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포교의 첫 걸음이죠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8일) · 주간

제1054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한국을 매료시킨 '불교적 연수'

공공기관, 불교계 연수·템플스테이 협약 이어져

최근 불교계가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기능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가 불교계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불교계가 이를 포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과 보호소년 및 가족들에게 템플스테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보호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2013년 발표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조사' 에서 정신건강부문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인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향후 보호소년, 이혼 및 가정불화를 겪는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도박관리센터 등도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정신 및 감정노동자, 도박중독자,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법무부도 보호관찰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역시 사업단과 협약을 맺었다.

중앙정부기관의 움직임과 함께 일선 사찰과 지자체의 협조관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의 경우에 7월 9일부터 충북교육청과 교직원들을 위한 '행복 연수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성순화 교육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법주사는 충북경찰청과도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캠프도 실시한다. 종로경찰서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조계사와 협약을 맺고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도 늘고 있다. 불교계 연수기관인 한국문화연수원의 김병주 총괄부장은 "금년만해도 경찰청, 세종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리더쉽 배양 등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연수신청과 함께 최근에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수신청도 함께 대폭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이 같은 요구에 발맞추는 한편 이를 통한 포교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법주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불교를 드러내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정법원·교육청 등 사회 각 분야 기관과 협약
청소년·중독자 등 대상 다양 심성 순화·자기 절제에 도움
'포교 활용도' 고민 필요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자체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중인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현재 일반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문화체험의 1기에 이어 마음다스림과 관련된 2기에 접어들었다"며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다스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사찰과 종단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불자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미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결국 불교는 고집멸도의 사성제에 근간한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불교계의 과제는 이들이 일회성 행사로 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일상에서 수행일지 작성과 수시 상담 등으로 이들이 힘들거나 지칠 때 다시 사찰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연재 |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24면



"죽어서도 차별… 순직 인정하라" 인사혁신처가 7월 3일 세월호 희생자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을 사실상 반려함에 따라 순직인정대책위원회가 국민적 공의를 모아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는 7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서 순직인정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울러 조계종노동위 도철 스님, 박문진, 권승복 등 노동위원을 비롯해 故 김초원·이지혜 유가족 김성욱·이종락씨는 청사 앞에서 순직인정 촉구 1천배 기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글= 박아름 기자 · 사진=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위한 불교 연대 운동 'START'

민추본 등 8개 단체, 15일 연석회의 출범

8·15 합동법회 추진
통일열차 등 행사 마련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8개 불교계 단체가 모여 연대통일운동을 시작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등 8개 단체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다가오는 광복70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불교계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분단이 100년을 향해가고 있는 때 평화통일을 위해 불교도가 힘을 합쳤다"며 "이 뜻이 후대에 전해져 통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한 달간 8·15 민족공동행사(민족통일대회) 및 조국통일기원 동시법회 참가뿐만 아니라 8·15남북합동법회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6월 30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합동법회를 정식 제안했으나 열악한 남북정세로 난세에 처했다"면서 "하지만 남북 불교계가 각자 힘을 보태 정세 파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광복70주년 평화통일열차를 기획했다. 서울역~도라산역을 왕복하는 평화통일열차와 함께 다양한 통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연석회의는 이즈음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5·24조치(천안함 피격 사건 후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7월 15일~8월 13일 평일 오후 12시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서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기도 정진' △8월 1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대응활동 등 진행한다.

연석회의는 특별강연에 대해 "배우 권해효 씨는 겨레하나 등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서 10년 이상 홍보대사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방북 경험을 통한 남북관계 이해도가 높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생생한 통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추본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연석모임은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더프라미스 등 함께한다. 연석회의는 각 참여단체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참여단체 실무책임자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준호 대불청회장)로 구성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원회 확대·개편 추진된다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비·노동위' 명칭 변경 등

소외계층으로 영역 확대
현장서 활동한 출가자에
3급 승가고시 자격 부여

사회·노동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대한 확대·개편이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5일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전면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출재가의 사회 역할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사회 계층 변화에 따른 종단의 대사회활동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14조로 구성된 기존 법은 3장 18조로 확대 세분화된다. 특히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노동위원회는 확대된다. 명칭도 '자비와 노동위원회(가칭)' 로 변경된다. 활동 영역도 기존 노동 분야에서 소외계층 지원, 이주민 문제, 사회 연대 등으로 넓어진다.

자비와 노동위원회와 기존의 환경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배치되며 위원회의 예산도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토록 했다. 또한 자비와 노동위원회 등 현장 지원 활동 출재가 인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의 원할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신설해 운용토록 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승가를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4년 이상 종령이 규정한 활동시간을 초과한 스님에 대해서 '승가고시법' 규정에 따라 3급 승가고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 같은 혜택은 스님들이 자리이타의 실천행 동참을 보장하고 관련 승가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무원은 오는 8월 3일까지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전면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종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발심출가자 이렇게 인도합시다"

교육원, 주지 스님용 행자교육지침서 발간



어느날 출가를 결심해 사찰을 찾아온 발심자를 사찰대중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출가발심자를 어떻게 승가공동체 속으로 맞이하는지를 정리한 행자교육지침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사찰 주지 스님들을 위한 〈출가자, 이렇게 맞이하고 인도합시다-출가와 행자과정의 모든 것〉을 펴냈다.

이 지침서에는 출가자를 맞이하는 자세를 비롯해 일반출가와 소년, 청년출가, 단기출가 등 유형별 출가에 따른 대응방안 및 6개월간 행자교육과정 등이 그림과 도표로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 행자등록을 마친 이들 가운데 25%가 중도포기를 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발심자가 지속적으로 수행정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찰 주지 스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행자 유형별 상담을 통해 대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습의교육을 철저히 시키되 맹목적인 순종 강조보다 설명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교구본사와 교육원을 통한 행자등록 절차, 종단에 행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출가할 때 필요한 서류, 소년 및 청년출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단기출가 사찰 신청과 단기출가 등록 절차 등이 상세히 실려있다.

교육원은 "현대에 들어 다양해진 출가자의 유형에 따라 행자교육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행자 퇴사율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 308쪽 | 15,000원 | 민족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패널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족사 02.732.2403~4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

원로회의, 선학원에 연석회의 제의 공문 보내

23일 정오 AW컨벤션센터서 선학원 “참석 여부 논의 중”

조계종 원로회의가 법인 등록을 놓고 종단과 갈등 중인 (재)선학원에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의장 밀운 스님 명의의 공문을 선학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에 7월 14일 자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오는 7월 23일 정오 AW컨벤션 센터에서 ‘원로회의 주최 종단과 선학원 스님 연석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로회의는 “선대 스님들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기에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선학원을 출범하고 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원로의원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하고 “종단과 선학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에 지난 7월 8일 열린 49차 원로회의에서 대화의 장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초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계종과 선학원은 전통 한국불교를 수호하려는 우리 선사들에 의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이라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종단 원로회의 차원에서 처음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학원의 제의 수용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 관계자는 “원로 스님들의 제안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일 선학원 이사회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 공문을 보냈지만, 선학원은 3일 회신 공문을 통해 “법인관리법과 종헌 9조 3항에 대해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이 정한 법인관리법 유예조치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2015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서 열린다

진각종, 7월 27일~30일… ‘비나리’ 주제로

김경호 밴드 등 공연 진행 독도서 ‘진호국가 불사’ 열어

지난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로 취소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일대에서 열린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회당문화축제’는 ‘비나리’란 주제로 체험 · 전시마당과 공연마당으로 나눠 진행된다.

체험 · 전시마당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동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진각종 종무원과 자원봉사단의 진행으로 리본공예와 에어브러쉬, 페이스 페인팅, 전통 한지 부채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아울러 독도사진전, 동해와 독도표기 지도전 등의 전시마당도 열린다.

공연마당은 28일 오후 7시 한마음회관에서 울릉도 지역 해군, 공군, 전 · 의경 등 초청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에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과 보컬그룹 J&B, VIYA 강남지부 댄스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지며 공연 후에는 장병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8시 도동항 소공원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동항 작은 콘서트가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 주 행사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29일 오후 7시 30분 도동항 광장 특설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행사에는 가수 김경호 밴드를 비롯해 불후의 명곡을 통해 잘 알려진 박애리&팝핀현준 부부의 국악+팝핀 공연, 비보이, 피이어아트, 트럼팩토리 등의 퍼포먼스 공연, 울릉도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 원생과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28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 금강원 참배 불사와 29일 독도에서 ‘광복 70주년 진호국가불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는 1902년 울릉도서 탄생한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지역문화발굴 등 문화복지 개념이 어우러진 국민화합대축제로서 지역 문화축제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는 “올해는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명 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면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회당문화축제와 나라 사랑 의미를 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송전탑·고속도로에 사찰 수행환경 ‘몸살’

수도사, 15일 기자회견… “송전탑 철거 및 도로 이격” 주장

경기 광주 수도사가 송전탑과 고속도로 공사 시공으로 사찰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으로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7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과 도로 공사로 수행환경과 신행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호 스님은 “사찰 뒤로는 송전탑이 설치됐고, 앞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수행도량으로서 위상이 훼손되고 수행환경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민원도 제기했으나, 모든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수도사의 30~50m 뒤편에는 지난 2008년 설치된 신안성~신가평 구간을 잇는 765kV의 송전탑이 들어섰다. 또한 앞쪽으로는 2016년 착공에 들어가는 이천~오산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건설까지 예정돼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찰 뒤편에 위치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스님과 신도들의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다는 청호 스님은 “최근 들어 두통과 어지러움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다”면서 “특히 송전탑에서

송전탑 소음에 스트레스 악화
주지 스님 만성 두통에 시달려
고속도로 예정… 사찰 고립 우려

나는 소음으로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수도사 신도 박봉순(67, 경기 광주) 씨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소음이 너무 심하다. 사찰 마당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사 앞에 들어서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도 문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사 주지 대웅전 뒤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고압송전탑. 주지 청호 스님은 송전탑의 소음으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회사 오산광주고속도로가 개설 추진 중인 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수도사 앞 80m 가량의 인접지를 지나는 노선이어서, 수도사는 공사 중 소음 · 진동 ·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개통 후에도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에게 수행 환경을 고려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중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추후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도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종단과 협의를 통해 2016년 개설 예정인 오산광주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청호 스님은 “그동안 마을 주민으로서 관계 기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송전탑에 이어 도로까지 들어서면 수도사는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송전탑 철거와 도로 노선 변경만이 사찰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 잇달아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 재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출 · 재가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1차 토론회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은 발제를 통해 “의현 스님 재심 판결은 누적됐던 현 종단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가 그대로 용인되면 94년 개혁 당시 내걸었던 5대 지표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갈 수 있게 된다. 판결을 원천 무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가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법하지 않는 출가자에 대한 공양 거부 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4년 종단개혁 동참 재가자들은 7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 스님 재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교단자정센터는 재심 판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출재가 대중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계종 집행부는 일종의 선긋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7월 16일 종무원 조합 특강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체감할 수 있다.

현응 스님은 “의현 스님 재심판결만으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이 훼손됐다거나 부정됐다는 말은 지나친 것”이라며 “종단 개혁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리하다고 할 것인지, 편법으로 한 것인지, 정치적

출 · 재가단체들 비판 가속화
현응 스님 “개혁 정신 훼손아니다”
오는 29일 대중공사, 분수령될 듯
종책모임들 “종회가 해결해야”

으로 풀었다고 할 것인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무원으로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오는 7월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열리는 5차 100인 대중공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적지 않은 출재가 대중들이 대중공사를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역시 1994년 종단 개혁 참여 승 · 재가를 비롯해 비상대책회의, 중앙종회의원 등을 위원으로 초청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들도 잇달아 모임을 열고 논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광장은 7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불교광장은 “7월 29일 예정된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중앙종회 차원에서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화도량은 7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종헌과 호계원법, 개혁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현 스님 사면문제를 중앙종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어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호계원의 심판이 아니라 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은 대중공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종헌종법 내에서 대중공의를 모을 수 있는 길은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사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임명

자승 스님, 15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에 월우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흥사 신임 주지 월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단독 후보로 나섰던 월우 스님은 지난 7월 10일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 후보로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대흥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임 주지 스님이 여법하게 잘 이끌어왔다”면서 “월우 스님도 대흥사를 화합으로 잘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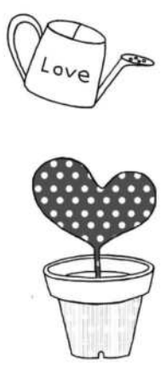
한편 월우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14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도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2015년도 청소년마음등불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형성, 학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진단하여 치유, 예방하며 스트레스,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존감 확립을 위한 〈2015년 청소년 마음등불〉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마음등불〉은 본원의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육지장사 등 각 기관의 명상센터(수련원)나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_ 2015년 7월 ~ 10월
- 장 소 _ 전국 명상상담센터 (수련원) 및 사찰
- 참 가 비 _ 무료
- 대 상 _ 중 · 고등학교 청소년
- 접수방법 _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육지장사 등 각 기관의 명상센터(수련원)나 사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문의 및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문 의 _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청소년마음등불 담당자 Tel : 02-2011-1903, Fax : 02-720-7065, E-mail : kjs@buddhism.or.kr

| 주관 | 금강선원, 봉인사,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행불선원, 육지장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15년도 청소년 명상캠프 프로그램

No	기간	지역	명상센터명	문의 및 접수처		참여 인원	비고
				담당자	전화/E-Mail		
1	6.1(토)~6.2(일)	경기 남양주	봉인사	김영환	010-5051-0222 / kimyhwan70@naver.com	30	마감
2	6.6(토)~6.7(일)	경기	육지장사	김용환	010-3201-7074 / hansi@hanmaum.org	50	추후공지
3	8.6(목)~7(금)	강원도	백담사	백거스님	010-9216-5352 / baekdamsa@hanmail.net	20	
4	7.11(토)~7.12(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medithera@hanmail.net	20	
5	7.18(토)~7.19(일)					20	
6	7.24(금)~7.25(토)	부산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미타선원	홍순하	010-5433-9855 / adagio8759@hanmail.net	20	
7	7.25(토)~7.26(일)	경기 이천	행불선원	조혜정	010-3173-9718 / saesori63@hanmail.net	50	
8	7.25(토)~7.26(일)	경남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대원사)	혜성스님	010-9494-6059 / namunge@hanmail.net	20	
9	7.31(금)~8.2(일)	충북	광명선원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010-3201-7074 / hansi@hanmaum.org	20	
10	8.3(월)~8.5(금)	부산	한마음선원			30	
11	8.7(금)~8.9(토)	울산				20	
12	8.7(금)~8.9(토)	광주				20	
13	8.11(화)~8.12(수)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신미랑	010-5392-1810 / ipc445@hanmail.net	30	
14	8.14(금)~8.15(토)	전라남도	명상상담센터 쉼	지오스님	010-4115-2303 / bongbulsa@hanmail.net	20	
15	8.15(토)~8.16(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 / medithera@hanmail.net	20	
16	8.15(토)~8.16(일)	부산	한마음선원	김용환	010-3201-7074 / hansi@hanmaum.org	20	
17	8.22(토)~8.23(일)	경남 거창	지혜로운 마음 명상상담센터	일광스님	010-9144-9695 / illguan@hanmail.net	20	
18	8.29(토)~8.30(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 / medithera@hanmail.net	20	
19	9.5(토)~9.6(일)	경기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심리상담센터장소 : 서울 봉도 청소년 수련원	이영순	010-5555-7103 / young196517@hanmail.net	20	

지역 포교 "주민과 함께" · 대학생 포교 "네트워크 활성화"

조계종 포교원 9, 10일 관련 간담회 · 회의 잇달아

광주 선덕사 · 시흥 대각사 사찰 도서관 활용 등 눈길

대학생 눈높이와 요구 부합 포교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



조계종 포교원이 7월 9일 주최한 대학생 포교 단체 간담회. 이날 단체들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공동체를 통한 지역 포교 활성화와 청년 불자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생 포교 발전 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가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잇달아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제3차 지역 공동체 포교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형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선덕사와 시흥 대각사의 지역사찰 포교 사례를 통해 사찰도서관 활용과 불교학당, 책놀이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덕사는 사찰 1층 공간을 도서관과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았다"며 "종교가 지역과 호흡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원묵 스님은 이어 "사찰에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덕사 측이 밝힌 사찰 내 작은도서관 건립 조건은 33㎡ 이상에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000권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은 지역공동체 유형에 따라 사례를 정리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7월 9일에는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대학생 포교 유관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 군종특별교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6개 단체 관계자, 대불련 지부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 주체 네트워크 형성과 포교역량 결집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유관단체 간담회 운영, 대학생 포교를 전담하는 TFT 구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대불련 연계 ·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불련발전위원회 최승태 위원장은 '캠퍼스포교 주체는 있는가'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대학생 포교의 현황을 짚었다. 특히 대학생 포교에 대한 개신교와의 역량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개신교는 '챌린지 2020 프로젝트' 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명의 신입간사를 선발 후 이들을 선교사급 지도자로 양성해 국내 1000명, 해외 1000명씩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40억 원의 모연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면, 대불련의 지난해 여름 캠프에는 98명이 참가했고, 1980~1990년 200여 대학에서 활동하던 대불련이 지난해 70개로 줄었다.

최 위원장은 "대불련은 지난 50년 동안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왔다. 내우에는 양심의 보루가 됐고, 외환에는 호법 선봉이었다"면서 "이제 대불련이 변화와 혁신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불련 힘만으로 캠퍼스포교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미래방향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재정과 인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목적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종단 차원의 캠퍼스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불자 포교를 수행할 수 있는 포교단체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사찰서 찬송했지만 '땅밟기' 는 아니라고?

1년전 인도 마하보디사원 훼불 단체 인터콥으로 밝혀져

지난해 7월 한국 개신교계 청년들이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땅밟기를 한 영상이 한국 비구니 스님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파문 1년여 만에 당시 청년들의 소속 단체가 한국 선교단체인 '인터콥'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콥은 사건 초기부터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지만 계속 사실을 부인해왔다.

기독교계 방송인 CBS는 7월 8일자 보도를 통해 인터콥 소속 회원들이 마하보디 사원 땅밟기 파문을 은폐하려했던 정황을 공개했다.

CBS는 지난해 인터콥을 탈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인터콥 후배 A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어느 사람이 물어도 인터콥과 관련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일이 우리 단체와 연관됐다고 알려지면 인터콥 단기선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모든 것이 본부 지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A씨는 "불교사원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던 3명과 본부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콥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를 부인해온 인터콥이 1년여 간 거짓 해명을 해왔음이 밝혀졌고, 결국 7월 10일 밤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콥은 사과문에서도 진솔한 참회 대신 변명으로 일관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심지어는 변명마저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부다가야를 불교관광지역으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모르쇠' 로 1년여 간 사건 은폐
개신교 언론에 제보 이어지자
결국 10일 공식 사과문 발표
'유체이탈' 화법 거짓 변명 일관
불교계에 공식 사과는 전무해

인터콥은 사과문에서 "인도 마하보디사원은 불교관광지역으로 지난해 7월 경 청년들이 관광차 마하보디사원을 방문했고, 기타를 본 현지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노래를 해볼 것을 요청해 한국어로 찬양을 했다"면서 "이후 한국 스님이 이의를 제기해 사과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동영상이 한국으로 보내져 '땅밟기' 라고 지칭하며 타종교의 예배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단기선교 여행 중에 유명한 불교사원을 단순히 관광차원에서 들어갔고 타종교시설에 유해한 과격 활동을 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해당 청년들을 몰아세우거나 정죄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비구니 스님은 청년들에게 찬송을 중단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3명의 기독교 청년들은 "하느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선교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결국 스님이 부다가야에서 벌인 일을 알리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사과문 배포도 개신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 단체나 관련 언론에는 보내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은 "인터콥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사과의 견해를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축소와 변명에 그친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사과문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조계종에 정식 공문으로 정중히 보냈어야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인터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계종에 신뢰성이 담보된 사과를 표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실하고 배려와 존중심을 갖춘 종교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콥은 개신교 전도를 위한 초교파적 선교 단체로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등 40여 곳에 9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한 국내 50개 지부, 해외 60개 지부에서 1000명이 선교 교육, 연구, 동원, 지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호암미술관, 서산 돌미륵 반환하라"

서산불교계, 해미읍성 돌미륵 환수운동 벌여

서산 해미읍성의 동서남북 사방비보(四方裨補) 중 하나로 주민들 몰래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진 산수리 돌미륵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서산 17개 사찰 및 암자 주지 모임인 서산주지연합회(회장 도신)는 최근 연합회 모임을 갖고 해미면 산수리 마을 주민들이 미륵을 되찾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돌미륵은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지만 미술관 측은 반입 증거를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미륵 환수는 서산주지연합회 총무 허정 스님(천장사 주지)이 7월 12일 천장사 선지식 법회 후 참가 스님과 신도 10명과 함께 해미읍성 4방에 세워져 있는 미륵불을 순례하고 불자들을 대상으로 산수리 미륵 반환 및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술관 측의 반발에 부딪쳤다.

13일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공승법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설정 스님은 가야사지에서 수덕사 산하 80여 사찰 및 암자 스님과 신도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공승법회' 에서 "해미읍성 사방비보 중 동방을 수호하는 부처님의 소재가 최근 제보로 밝혀졌다. 문화재가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미륵 반환 및 복원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 스님은 "불교계도 오래전 해미읍성 사방비보 중 하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미륵의 행방을 수소문해 왔다"면서 "최근 진품으로 보이는 미륵의 소재지가 밝혀져 주민들이 반환운동에 나선 만큼 불교계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산주지연합회 회장 도신 스님도 "주민들의 증언 청취와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서산 지역 17개 사찰 뿐만 아니라 각 마을과 인근 지역의 불교계 또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산주지연합회 총무 허정 스님이 주민들과 해미읍성 인근 미륵불을 순례하고 있는 모습

재가불자, 간화선 단기 안거 참여하세요

선원수좌회, 9월부터 두 차례 개최

간화선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단기 안거가 열린다.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이하 선원수좌회)는 '간화선 단기안거' 를 하안거 해제 후인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다. 선원수좌회의 단기 안거는 지난해 하안거 이후 두 번째이다.

선원수좌회의 올해 1차 단기안거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이며, 2차 단기안거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단기안거를 연다. 수행 장소는 수좌회의 양평 임시수련원이다. 1차 단기안거는 간화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지만 2차 단기안거는 간화선 수행 경험자를 위한 자리이다.

수좌회는 "간화선은 우리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는 수행법"이라며 "하지만 간화선 수행이 안타깝게도 선방 수좌스님들의 전유물인 듯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여법하게, 일상 속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단기안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간화선 단기안거' 는 하안거 해제 직후, 수좌스님들로부터 직접 수행법 지도를 받고, 제방 선원의 여러 어른스님들로부터 화두 간택과 그간의 수행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는 의료비 지원 등 수좌스님들을 위한 청정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단기안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수행을 지도한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북인도 다람살라 · 라다크 순례

정우 조계종군종교구장 스님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군승 19명과 함께 북인도 다람살라 및 라다크를 순례한다.



신흥사 교구종회 개최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7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성보문화재 유물전시관 건립 등 안건을 의결했다.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8월 14~16일 봉은사 경내에서 봉은사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접수는 8월 7일까지다. (02)3218-4825



안봉려관스님 77주기 추모다례

성효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7월 13일 제주불교 중흥조로 불리는 안봉려관스님 77주기 추모다례재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했다.

불교신문 사장에 주경 스님 임명



불교신문 사장에 주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 신임 사장 주경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경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언론이자 불법 홍포를 위한 포교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설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서산 부석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팀장급 인사 소폭 단행

조계종은 7월 14일 제5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 · 팀장급 인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이석심 前 종무차장이 이동하며, 종무팀장은 윤승환 前 기획팀장이, 사찰교무팀장은 권대식 前 사회부 국제팀장이, 기획팀장은 김용구 前 사회팀장이 맡게 됐다. 사회팀장과 국제팀장으로는 양원준 · 김기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이 보직을 이동하게 됐으며, 안거 휴가 중인 공승관 호법팀장을 대신해 전인동 前 사찰교무팀장이 맡게 됐다.

일반적으로 조계종은 12월 경 정기 인사를 진행해왔으나, 예산 및 사업 계획을 편성했던 종무원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종무원이 달라 업무에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종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7월 인사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사찰림 연구로 사찰 재정에 기여"

이태수 초대 한국사찰림연구소 소장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7월 9일 공석이던 소장에 산림전문가 이태수 박사〈사진〉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태수 박사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박물관 담당관과 임산화학과장, 화학미생물과장 등을 지내고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소 이사를 맡는 등 30여 년 간 임업연구에 몰두해왔다.

이 소장은 전국적의 사찰별로 사찰림 연구조사와 사찰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앞장서고 사찰림의 보호관리와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한국의 사찰은 많은 면적의 사찰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며 "각 사찰에서는 사찰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찰림은 산림 휴양적 가치가 매우 높기도 하지만 임업적 가치도 상당하다.

이 소장은 "계획적으로 일부 나무를 베어서 이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면 벌채한 나무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는 불교계 재정 확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은 "후대를 위한 생태보전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할 수 없다. 계획적인 벌목과 관리 등을 지



불교계 유일의 산림연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경력 토대
생태조사 및 임업 계획 수립

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실한 불자인 이 소장은 2000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 직원들의 불자 모임인 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를 창립하고 매달 회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처음 100부로 시작한 회보 '산림불교'는 현재 2900부까지 발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소장은 "정부기관이지만, 고위직에 기독교 신자가 많아 훈시 중 성경구절 인용 등이 잦았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불교 믿어 눈 밖에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자가용 차에 염주를 달고 다니는 직원에게 불교신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아도 아니라고 답할 정도였다. 반면 기독교계는 신우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매일 출퇴근 길에 관세음보살 염불100일 정진을 발원하고 불자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해 27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퇴직 · 현직 직원들이 모여 템플스테이를 하곤 한다.

이런 불심에 기반해 이 소장은 "사찰림에 대해서 과학적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불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사찰림연구소에서는 먼저 각 사찰림에 대한 토양환경과 임목축적 현황 조사를 비롯해 운영관리 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 사찰의 사찰환경과 생태조사를 실시하며, 사찰 조경관리 조사와 개선점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찰림연구소는 장기적으로 사찰림과 관련된 법규의 정리도 정부를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이 같은 조사보고서 등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조사 등이 진행되면 사찰림에 있는 나무 한그루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찰의 현대적 경영, 과학적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찰림 연구로 각 사찰이나 스님들께서 사찰 경영관리에 도움될 수 있다면, 이 일이 곧 부처님을 위한 공양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찰림연구소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면 우리나라의 불교와 불법을 지키고 선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찾아가는 음악회로 불교 알려요"

종립학교 학생들 위해 음악회 여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

니르바나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종립학교를 찾는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강형진 단장〈사진〉은 7월 13~14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원욱 스님의 뮤직+'를 진행했다. 종립학교인 동대부여중과 동대부고를 찾아 이틀에 걸쳐 음악회를 연 강 단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교와 음악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단장은 "음악회는 집중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30분 정도 공연을 펼치고 나머지 30분은 원욱 스님(목동 반야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졌다. 원욱 스님의 재미있고 압축적인 법문과 공연이 임펙트 있게 전달돼 상당히 반응



이 좋았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니르바나가 매년 진행하던 봉축 기념음악회 대신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찬불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강 단장은 "중학생들은 집중도가 떨어져 진행에 다소 산만함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음악을 차분히 감상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흐뭇했다. 처음 시도한 만큼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학교 측과 의논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더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단장은 "대형음악회는 재정 마련과 인적 구성을 갖추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규모로 진행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원욱 스님의 뮤직+'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면 앞으로 학생들과의 협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공연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음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진각종 '식재서원불사' 회향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2일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을 비롯해 전국 각 심인당에서 '메르스 소멸과 가뭄 해갈을 위한 식재서원(息災誓願) 회향불사'를 봉행했다. 7월 월초 불공회향불사를 겸해 열린 이 날 진언행자들은 강도발원을 통해 "메르스는 식재불사를 봉행하자 확연하게 진정 기미를 보였고 극심했던 가뭄을 해소해줄 잦은 비 소식도 전해졌다"며 "3자성 특별 진호국가불사를 이제 회향하면서 뭇 생명과 더불어 살려는 보살 정신을 회복해야 하겠다"고 서원했다.

김주일 기자

일면스님, 만해마을 캠퍼스 점검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이 7월 14~15일 강원도 만해마을 캠퍼스(이하 만해마을)와 낙산학사를 현장점검 및 발전계획 의견수렴을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법인 사무처장 종민스님과 허광도 기획관리부장, 이형열 사업부장 등이 동행했고, 동국대에서는 한태식 총장을 비롯해 신재호 기획부총장, 양영진 교무부총장, 오원배 대외부총장, 곽대경 기획처장, 박군서 관리처장 등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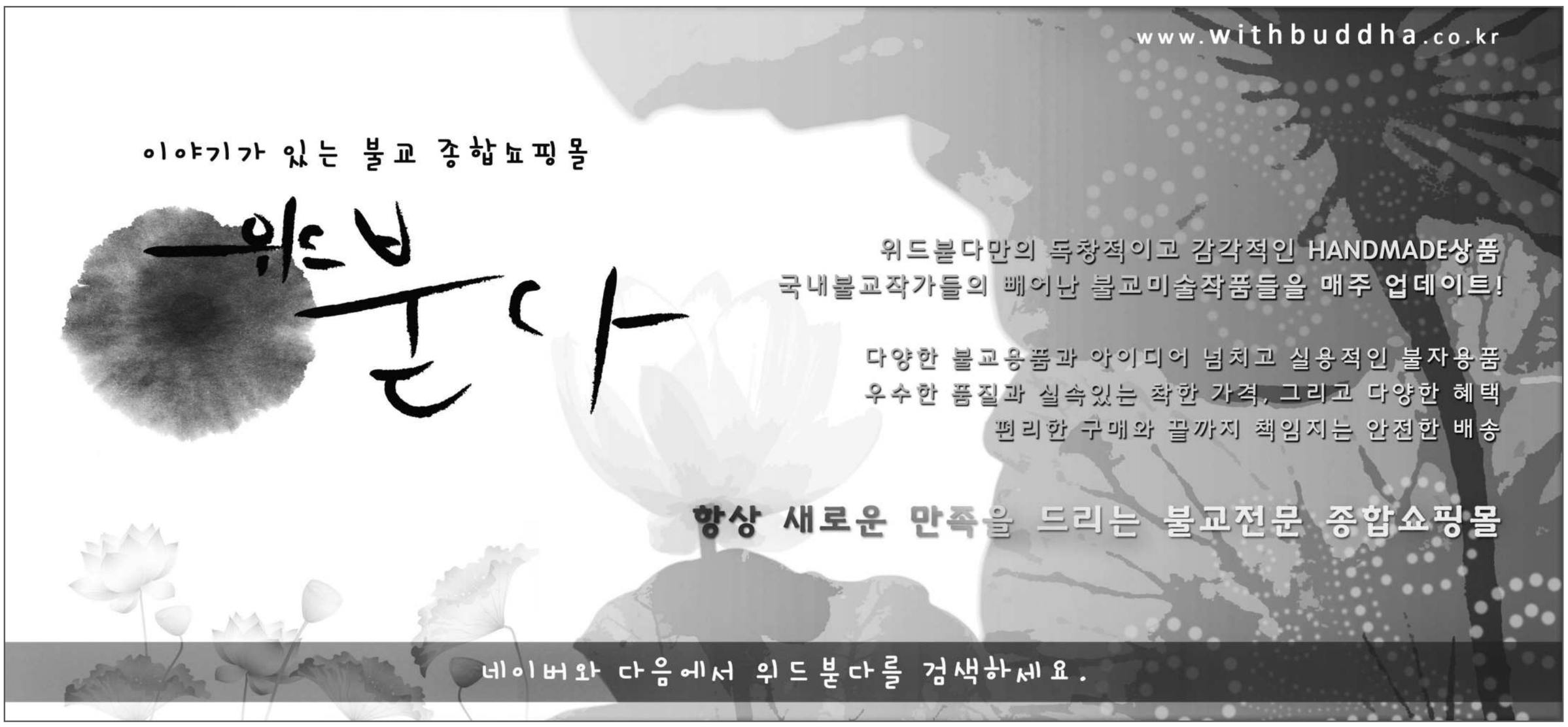
대한불교원조계종 보살계 산림 법회



(사)대한불교원조계종(총무원장 도암, 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총재)은 7월 12일 부산 금정구 회문사에서 대승보살계 및 비구 · 비구니 품계 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산 및 각 종단 종도 대중스님들과 사부대중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품계 증명법사로는 대한불교 화엄선종 종정 무송 스님, 한국불교 지장암 회주 정공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위원 성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난 6월 스위스 취리히 경매에서 금정총림 범어사가 매입한 칠성도(七星圖) 3점이 7월 14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돌아왔다. 보제루에서는 제막식과 법요식이 열렸다. 법요식 후 5000여 불자들은 칠성도를 참배하며 불심을 더욱 다졌다.



법요식 전 금어연 이운행렬이 경내를 돌고 있다.



수불 스님은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0년 만의 '환지본처', 환희심 자아내다

7월 14일 범어사서 '칠성도' 환수 법요식 열려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반출됐던 19세기 대표적인 성보인 범어사 칠성도가 50여 년 만에 환지본처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7월 14일 범어사에서 5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칠성도(七星圖) 3점 귀환 법요식' 을 열었다.

1861년 제작된 범어사 칠성도는 남도지역에서 활동한 선종(善宗) 스님이 그린 작품으로 밀양 표충사에서 만들어진 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왔다. 북두칠성을 비롯한 하늘의 여러 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범어사는 지난 5월 27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칠성도인수위원회' 를 구성해 적극 환수 조치에 나선 가운데 6월 3일 스위스 취리히 경매에서 이번 칠성도 3점을 매입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인인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이 경매 매입금을 보시했다.

이날 법요식에 앞서 칠성도는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법요식에 앞서 칠성도는 오전 경내 이운식과 금어연 행렬, 귀환식 등을 통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됐다. 범어사 칠성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성보박물관 앞마당에는 일간지와 방송사 및 각종 언론사들이 줄을 지어있다.

행사는 환희와 감동 속에 진행됐다. 범어사의 성보 중 하나인 일주문 앞에서 주지 수불 스님은 향과 차를 올리며 칠성도의 귀환을 축하했으며 함께한 사부대중은 이운식을 준비했다. 일주문부터 범어사 보제루까지 이운식을 진행하는 축하행렬은 화려한 장엄물로 문화재 귀환의 기쁨과 소중함을 일깨우듯 범어사 경내를 돌며 이운식을 봉행했다. 칠성도는 금어연 이운식으로 이동했다. 행렬 지나갈때마다 경내를 가득메운 불자들은 환희에 넘친 표정을 지었다.

법요식 전 스님 35명이 인도한 금어연 행렬이 일주문을 지나 보제루 앞마당에 진입하자 참석한 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근을 시작했다.

보제루 앞 마당에서 축하 법요식을 진행한 범어사는 5000여 명의 축하객들로 자리가 가득 채워졌다.

법요식은 경과보고와 범어사 주지인 수불 스님의 인사말, 축사와 축가, 제막식, 육법공양, 참배 등의 순으로 열렸다. 마지막 제막식은 육법 공양과 수불 스님의 차 공양 그리고 스님들의 삼배로 마무리 됐다. 제막식 후 참여한 불자들은 보제루에 들어가 칠성도를 향해 절을 하며 귀환을 축하했다.

범어사 칠성도 귀환식에 참여한 불자 김성희(67)씨는 "문화재 귀환식을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여법하게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스님들께서 직접 성보박물관에서 들고 오는 모습부터 육법 공양과 이운식하는 모습에 환희심이 절로 생겨났으며 보물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순간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배정희(43)씨는 "범어사 근처에 살아서 오늘 행사가 하는 걸 알고 찾아와봤는데 이운하는 장면이 황제를 모시고 오듯 장엄했고 아름다웠다"며 "불교 관련 문화재인걸로 알고 있는데 성보라고 불리는 그 문화재들이 그 가치에 맞게 대우를 받은 거 같아 내가 뿌듯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19세기 부산지역 대표 작품 꼽혀
불자 힘모아 6월 스위스서 매입
이운식서 5000명 정근으로 맞이해

수불 스님은 "범어사 칠성도가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다"며 먼저 이날 모인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해외에 반출된 칠성도가 반환 된 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배우고 향후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해외문화재를 다시 매입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 관련단체가 불교계와 협력해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은 환수 사상 첫 사례"라며 "향후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성보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범어사 신도회에서는 이번 칠성도가 반출된 데에 참회의사를 밝히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성보문화재들의 환수를 발원하는 7일기도 입재를 알렸다.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 회장은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신도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다. 앞으로 잃어버린 성보를 우리 손으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어연에서 금어(金魚)는 부산 금정산 범어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범어사만의 가마 행렬이다. 칠성도는 범어사 내 성보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며 범어사는 경내에 '칠성각' 을 새로 조성해 영구 봉안할 계획이다. 장소는 옛 극락암 장소(현 휴휴정사 인근)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어사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칠성도의 부산시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또 아직 환수되지 못한 칠성도 8쪽에 대한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범어사 정상창 기획실장은 "현재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에 칠성도 2축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6축의 행방은 알 수 없다"며 "국외재단과 부산시 등에 협조를 구해 나머지도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범어사=하성미 기자

칠성도, 19세기 부산 불심 대변

1861년 극락암에 봉안됐다가 6 · 25 전쟁 등 한국사회 혼란기인 1950~60년대 초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 불화인 '범어사 칠성도' 는 칠성과 북극성 신앙이 반영된 불교회화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려진 것으로, 화면은 중앙의 여래 1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여래 3구씩을 각각 배치하여 칠성여래를 나타냈다. 칠성여래 아래쪽 하단에는 각각 동자들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구름무늬를 경계로 칠성여래 상단에는 군상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표현하고 있다.

범어사 칠성도는 화면의 아랫부분에 기술된 기록 내용으로 19세기 명문 서식이나, 조선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범어사 칠성도는 조성 연대와 제작처, 화승, 봉안처 등 조성 유래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며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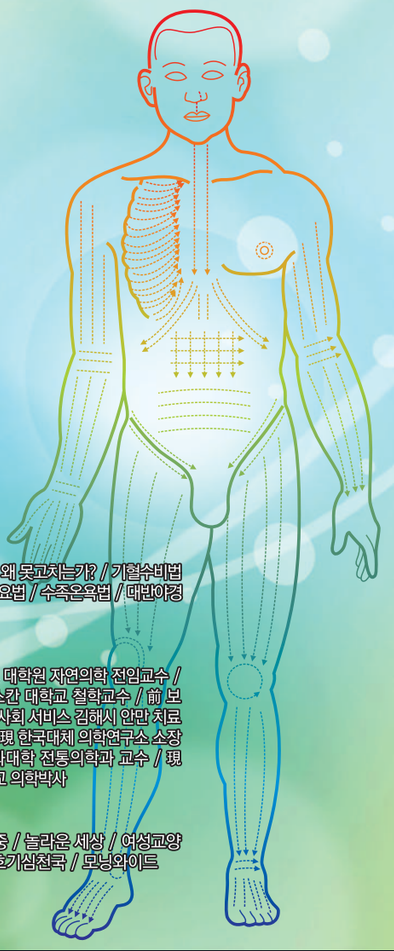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본문 중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말끔!
(본문 중에서)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본문 중에서)



정가 10,000원 (포켓북)



저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 기혈수배법 / 기적의 파스요법 / 수족운욕법 / 대반야경 外 다수

약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김해시 안마 치료재활 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몽골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치의과대학교 의학박사

방영
MBC 화제집중 / 놀라운 세상 / 여성교양강좌 / SBS 호기심천국 / 모닝와이드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

6인 6색 설법잔치 '전법 희망' 빛났다

개척자학교, 7월 14일 10분 설법대회 개최

수료 19명 중 최종 6인 선발
병고 · 방황 · 갈등 주제 '다양'
사진, 음악 등 시청각 자료 활용
"전법 희망 발견한 자리"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부처님 모습을 따라 해볼까요?" "네!"

강의실을 메운 청중들은 마치 진짜 어린 아이가 된 양 선생님을 향해 해맑게 웃어보였다. 청중들은 6인 6색 강사가 준비한 '10분 설법' 주제에 따라 환자, 어린이, 20대 청년, 군불자, 부부 등 모습으로 분하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붓다스터디 개척자학교(원장 조화제, 이하 개척자학교)는 7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만해교육관서 '1기 개척강사 설법대회 및 수료식' 을 열었다. 1기 개척강사 19명 중 선정된 6인의 개척강사는 각기 다른 대상 및 주제를 선정해 10분 설법을 선보였다.

2차례에 걸친 10분 설법 예비발표와 상호평가 후 대중투표로 선발된 만큼 강의 시작 전 개척강사들 얼굴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났다. 김재영 법사는 "9개월 간 수련과정을 통해 개척강사 19명이 처음 탄생했다. 치열한 상호평가를 통해 최종 6인이 선발된 만큼 신선한 설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이남재씨는 '병고는 지나가는 거센 바람이다' 주제로 입원중증환자들에게 설법했다. 이남재씨 강의는 환자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돋보였다. 혈액암이 전이 돼 6개월 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자신 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기도 · 명상을 권유했다.

돌발 상황도 있었다. 3번째 강사 배병태씨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 '나와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길' 설법을 시작했으나 준비한 PPT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배병태씨는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발표를 시작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6번째 강사 임정미씨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설정 '그대! 순간의 여행 같이 하시렵니까?' 를 강설했다. 임정미씨는 청중들에게 흙 점토를 나눠주고 작은 그릇을 만들게하여 "누가 빚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흙 점토를 보며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모습을 깨닫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기윤씨는 20대 청년 대상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강연 중 학생들 가까이 다가와 악수를 나누는 열의를 나타냈으며, 민경은씨는 군장병에게 보람찬 군생활을 위한 반야심경 가르침을 설파해 불교 정서를 가장 잘 나타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날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처님 되세요' 를 설법한 조명숙씨가 차지했다. 조명숙씨는 진짜 어린이를 앞에 두고 강연하는 듯한 어투와 몸짓으로 청중의 몰입을 이끌었다. 청중들은 직접 앞으로 나와 부처님 가사를 입는가 하면 부처님 자세를 몸소 체험 했다. 조명숙씨는 "손자에게 반야심경을 자장가로 틀어주고 함께 절에 가서 이것저것 가르쳐준 경험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던 것 같다"며 "특히나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것이 전법의 씨앗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개척강사로서 용맹 정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금상 이남재 · 신기윤씨, 은상 배병태 · 민경은 · 임정미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심사는 심사위원장 양성홍(전국포교사단 2 · 3대 단장), 심사위원 임완숙(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씨와 하춘생(동국대 박사)씨가 맡았다. 동국대 하춘생 박사는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각양각색 설법을 준비한 열정에 큰 감흥을 얻었다. 우리 시대 불교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면서 "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변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 이다. 부디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한편 개척자학교는 개척강사와 개척법사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기초과정 12주 · 고급과정 12주를 마치면 '개척강사' 가 되며, 이후 48주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개척법사' 로 인정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처님 되세요' 를 설법한 조명숙씨<사진>가 차지했다.


붓다스터디 개척자학교는 7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만해교육관서 1기 개척강사 설법대회를 열었다. 청중들은 6인 6색 강사가 준비한 '10분 설법' 주제에 따라 환자, 어린이, 20대 청년, 군불자, 부부 등 모습으로 분하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7월 1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서 제7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식을 열었다.

"진흙 속 연꽃처럼 어둠 밝히길…"

불교여성개발원, 7월 15일 '여성불자108인' 선정

한국 사회 각지서 부처님 자비행과 보살행을 실천할 108인 여성 불자가 새롭게 탄생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은 7월 15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서 제7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을 비롯해 여성개발원 이인자 초대원장 등 역대 원장단이 참석했다.

박순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찬란한 빛깔과 정갈한 모습으로 자비로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108인 위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제7차 여성불자108인은 지난 3~5월 후보자 선정을 통해 5월 13일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108인은 선정은 △경제 △교계단체 △교육연구 △문화예술 △보건의료 △복지사회 △자원봉사 △정치행정 △포교신행 등 12개 분야서 대사회적 역량을 펼치는 여성 불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선정된 여성불자108인은 앞으로 '여성불자 108인회' 일원으로서 불교여성지도자워크숍, 차수별 모임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게 된다.

7차 여성불자108인에 선정된 김귀순(세무법인 부민 대표세무사)씨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불교는 베품의 종교' 라 가르치셨다"며 "교리 공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비행 실천으로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소감을 전했다.

지원 스님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포교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오늘 선정된 108인 여성 불자들이 진흙 속 연꽃처럼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은 "여성개발원은 그동안 6차에 걸쳐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함으로써 여성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계와 불교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면서 "이 성과가 전국 신도조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이 격년제로 선정하는 '여성불자 108인' 은 불교여성 지도자 발굴 및 상호 네트워크 형성, 여성 불자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3년 처음 여성개발원 산하조직으로 여성 불자 108인회를 결성해 각 전문분야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회향을 이끌어왔다.

박아름 기자

제7차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경 제	김청옥 김태연 이연옥 이영주
교계단체	김영이 김옥주 김용숙 이채원 임현주 정선희 조영우 김일명
교육연구	박미례 박현숙 백미나 서현숙 손미영 안주희 이경욱 이도경 이수현 이영미 이인혜 이자랑 이희숙 전나미 전정란 정진원 최서윤 최희영 하지은
문화예술	김미수 김윤옥 김현자 김혜은 변미영 유현주 윤정숙 이귀숙 이정숙 임현자 장세윤 조향숙 천연순 최경희 한후남 황미숙
보건의료	강설미 김명숙 김순례 백경숙
사회단체	김규리 노윤희 서옥영 안애원 유인회 이현숙 정지원 한혜원 허남주
세무법률	김귀순
언론출판	전재성
자원봉사	강옥란 경민숙 고외숙 김도연 김옥경 박영옥 서정애 이태희 이현주 황순연
정치행정	권지혜 양채화 조윤예
포교신행	강채순 고미래 김갑연 김선옥 김재란 김한순 김현지 손현주 신용화 신진숙 안순희 이명숙 이명옥 이유신 이종애 이주현 정해진 정희숙 조창분 최영희 최유정 최윤옥 최은주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 지키자!

나무상담소, 7월 25~26일 청소년 명상캠프 열어

높은 학구열과 사교육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학교가 문을 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세첸코리아와 함께 7월 25~26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동 약수정사서 청소년 명상캠프 '마음놀이터, 마음아 놀자' 를 개최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높은 자살율은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명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 직관력 · 인내심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중 · 고등학교 청소년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1박 2일 간 △마음 가게-화, 슬픔, 우울함, 질투, 미움을 파는 곳 △마음놀이터에서 마음과 놀기 등 청소년 맞춤 명상 학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성평등 옴부즈맨 활동' 도 시작한다. 성평등 옴부즈맨이란 성평등 관점에서 인터넷 광고 ·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인터넷 광고 · 기사 등 양성평등 관련 개선점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고, 11월 경 우수 옴부즈맨 발표대회에 참가한다.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양성교육은 7월 29일, 31일 및 8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팬원빌딩 6층서 실시된다.

박아름 기자

동련, 전국어린이연합캠프 개최

7월 31일~8월 2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어린이 법회 인원이 적거나 제반 여건상 어린이불교캠프 개최가 어려운 사찰이 한 데 모이는 연합 캠프가 열린다.

사단법인 동련은 7월 31일~8월 2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개교한다.

이번 캠프는 사정상 어린이불교학교를 열지 못하는 사찰들을 위한 연합캠프로 이뤄진다.

동련은 "연합불교학교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지역편중에 의한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열악한 지역 포교 활성화 및 사찰 스님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2박 3일간 사찰습의 및 불교문화를 통해 불심과 예절을 함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장주 만들기 △꿈을 찾는 어린이 명상 △부모은중경 사경 등 신행 ·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이밖에도 △신나는 물놀이 △갯벌체험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한다.

접수는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또는 팩스(051-864-4665) 송부할 수 있다. 문의(051)864-4569

박아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복지관은 또다른 학교… 취미, 봉사 OK”

불교계 복지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풍성’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계 복지관에서는 취미생활부터 봉사까지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의 환경교육과 활동가 프로젝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과 함께하는 테마프로그램,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의 도예교실 등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불교계의 복지관 프로그램을 모아봤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위해 바른 먹거리와 환경변화를 주제로 ‘에코라이프 청소년 그린 리더!’ 를 7월 28일~30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환경활동가 만들기 프로젝트-노임펙트맨’ 은 8월 5일~13일 실시된다. 이는 유용미생물 EM 활용법 교육을 통해 천연비누, 발효액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동시에 캠페인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목동청소년 수련관은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해피솔루션’ 을 8월 10일~12일 실시한다. (02)2642-1318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 28일~8월 18일 진행되며 장애인식교육, 집단토론, 환경조사, 장애체험, 장애인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장애체험을 비롯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록나눔봉사단

목동수련관-‘그린 리더’ 환경 교육

본동복지관-원예 가족테라피 등

개금복지관-장애인식 프로그램

을 모집 7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친환경 세제 사용을 권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051)893-5034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테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우리가족 제대로 알기-템플스테이’ △정서안정에 효과적인 원예활동 ‘엄마와 아동이 함께하는 원예테라피’ △꽃을 소재로 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아트플라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체험을 떠나는 ‘목장나들이’ △방학기간 물놀이



교계 복지관에서는 취미생활부터 봉사까지 보람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은 목동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의 환경캠페인 활동.

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우리 워터파크 가자!, 아우름’ △방학 동안의 학습지원을 목표로 하는 ‘본동과 아이스크림 공장’ △‘나만의 학습방법을 찾아라’ 등 7가지의 테마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817-8052

창원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8월 11일~14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통 공작소 팝아트 팩토리를 진행한다.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팝아트 기법을 배워 직접 자화상과 초상화를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예술적 안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포토폴리오를 통한 활동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55)273-2117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실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말랑말랑 ‘도예교실’ △즐거운 락앤락 ‘국악교실’ △집중력 쑥쑥 재미 있는 ‘바둑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을 선사할 예정이다. (02)458-6796

이밖에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8월 중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한다.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02)739-950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역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들은 8월 중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02)742-95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지원 치료비 전달

총 1억 3천여 만원 모연, 30명 환우 지원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재 환아(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13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난치병 어린이지원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봉행된 ‘제15회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을 통해 모연된 기금이다. 방송과 온라인, 거리 모금액과 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봉행한 철야정진에서 모연된 금액은 총 1억 2천 8백만 원으로 3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비후성 심근증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성재 환아(남, 13세)가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았다. 고운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성재 군은 심장 근육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발생하는 기능장애로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에 아파하며, 심해지면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 현재 일용직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아버지 대신 중국인 어머니의 일용직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전국 병원법당과 불교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모집, 지난 6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30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선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게는 25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금의 일부는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위생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라오스에 위치한 ‘난치병 환아 쉼터’ 에 지원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전문노인 연극단으로 거듭나는 ‘대학老愛’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7월 15일 발대식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연극단 ‘대학老愛(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 가 7월 15일 발대식을 갖고 서울연극협회 등과 정식 MOU를 체결했다.

평균 연령 74세의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 ‘대학老愛’ 는 2011년부터 활동했던 극단 ‘빨래터’ 가 전신이다. 지역사회에 노인 전문 연극단원들의 활동을 알리고 연극, 교육, 문화, 언론 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극단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老愛’ 는 앞으로, 서울시노인복지관과 콜라보레이션으로 11월 진행하는 ‘제 1회 서울노인연극제’ 에서 공연하는 ‘장수마을’ 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아마추어 연극단의 활동을 지지하고자 원로배우 장미자 씨와 연출가 김태수 씨가 참석해 훈훈함을 더했다. 발대식에서는 연극단원을 소개하고 연극단원 12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서울연극협회, 팀플레이 예술기획, 창작집단 36.5와의 MOU 체결로 노인연극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감수, 전문연극인과의 교류, 시설대관, 기타 연계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연극단은 이제 전문 연극인들과의 MOU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노인연극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세대간 함께 소통하는 연극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연극단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대학老愛’ 가 7월 15일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꿈나눔 카페 ‘Open’

7월 15일, 13명 어르신 바리스타로 탄생


꿈나눔카페의 오픈식후 음료시음 장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7월 15일 센터 1층에 위치한 꿈나눔카페의 오픈식을 개최했다. 꿈나눔카페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버 바리스타의 활동적인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설립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가 확정된 어르신 13명이 꿈나눔카페의 바리스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을 비롯해 꿈나눔재단 박재식 이사장(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겸임),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오픈식에서는 우쿨렐레 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오픈 축하메시지 소원문 작성, 음료시음회가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꿈나눔 카페는 시니어를 위해서는 일터이자, 실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세대 공감의 카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10년 부설기관을 통해 최초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 원융종의 대화합을 선언하면서...

삼보정례하옵고....

지난 4월16일 우리 종단은 창종주이신 일공 큰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많은 종도와 문도들은 일체무상의 공허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였습니다.

원융무애 사상과 원통융화한 가르침을 주시고 원적에 드신 대한불교 원융종의 종정이신 영산당 일字 공字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부의 행동들이 잠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총무원의 간부 스님들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화합하고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일념의 원이 발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해의 손을 잡아주신 대천스님(낙천사), 해운스님(보타원), 평신스님(무애암)세분 스님의 넓으신 마음에 소승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천스님의 거처가 용궁정사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므로 정정합니다.

앞으로 총무원은 원융무애 정신을 높이 계승하고 원융종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로 간격 없이 융화하여 평화로운 종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9일 체탈도첩 건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임을 알리며 대화합의 계기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들께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9년 7월 10일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 진 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8월 17일

◆ 개강일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국립경주박물관 특강

신라의 불교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정병조 명예교수

신라는 삼국통일 후 고구려 · 백제 민족을 포용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론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 수용했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 불교는 사상적 · 문화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동국대 정병조 명예교수는 7월 11일 국립경주박물관서 '신라 불교의 이상과 전개'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명예교수는 불교사상이 전파되고 정착돼 퇴락에 이르기까지 신라 불교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고승들의 삶을 되짚었다. 정 명예교수는 "통일 전후의 신라 불교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상 풍토였다. 군주들의 불교관이 건전하였고 국민들의 믿음 형태 또한 매우 건강하였다"며 "인도에서 파생한 불교가 해동에서 사상적 회향을 이루는 한국 문화의 황금기"라고 평가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신라불교, 국민정신 구심점으로 우뚝 서다"



동국대 정병조 명예교수는 7월 11일 국립경주박물관서 '신라 불교의 이상과 전개'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불교의 도입과 정착

신라는 그 지정학적 여건과 권력 체제의 낙후성 때문에 삼국 중 가장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전대미문의 찬연한 문화적 독창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동력이 바로 위대한 대승 불교 정신의 현실적 응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이상을 관념화시키지 않았고 적절한 현실 타개의 방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신라 불교는 백제나 고구려가 하향적 수용 형태인데 반해 다분히 상향적 특징을 가집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왕실에서의 적극적인 수용과 전교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에는 강력한 반발의 흔적이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선 이차돈의 순교를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민간 신앙과의 마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불교의 도입에는 세 사람의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묵호자, 이차돈과 법흥왕은 각각 상이한 신분을 지녔지만 신라 불교 공인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분들입니다. 묵호자의 삼보 해석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서역 승려였지만 상당한 수준의 사상가였습니다. 이차돈과 법흥왕의 굳센 신심은 이후 한국 불교의 파사현정 기개를 가늠하는 좌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차돈의 순교는 정법 수호와 보살 정신의 현양이라는 한국 불교의 중심적 사상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D 527년 불교가 공인된 직후 우리는 지명과 각덕, 명관의 활약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세 분은 구법의 선봉으로서 대규모의 불경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의 정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열렬한 신심과 함께 냉철한 이성적 뒷받침입니다. 즉 불교적 논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두 분은 매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라 불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은 역시 원광(531~630)과 자장(?)입니다. 그들이 활약했던 시기는 삼국의 대립과 정복 전쟁이 가중되던 때였습니다. 진흥, 진평, 선덕, 진덕 등 역대 제왕들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함께 국민정신의 응결이라는 주요한 과제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원광의 세속 오계, 걸사표, 점제보 결성 등은 모두 그와 같은 시대정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세속 오계는 결코 화랑들에게 지시되었던 행동 강령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성과 왕실의 정신적 공감대를 이루는 지주였으며 국민 도의를 불교적으로 훈습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한편 자장의 경우에는 원광과 원효, 의상을 잇는 사상적 가교의 역할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광이 입적했을 때 원효가 불과 13세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원효나 의상이 자장으로부터 직접 배웠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자장 역시 화엄 사상의 도입, 중국식 관료 체제의 도입, 승통으로서의 활약 등 원광과 대동소이한 사상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극적 최후로 말미암아 그 사상성이 반감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승니의 기강을 확립하고 화엄적 세계관을 정착시킨 점 등은 매우 뛰어난 업적입니다. 그는 진실한 구도자였으면서도 근엄한 성품과 귀족적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광과 자장이라는 두 거목 밑에서 원효, 의상 등 뛰어난 사상가가 배출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고구려의 혜량이 신라로 귀화한 사건입니다. 그는 신하 화랑 거칠부와의 기이한 인연 때문에 신라로 귀순하였지만, 최초의 승통으로서 신라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그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인왕백고좌 도량이나 팔관회 등은 고려 때까지 왕실의 가장 중요한 법회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척 노력의 결실로서 불교는 서서히 신라 사회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불교 수용 당시 반발 흔적도
통일 후 현실 타개위해 적용
"불교문화 융성한 태평성세"

불교 사상의 신라적 전개

불교가 신라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시기는 진흥왕의 집권 후반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라 불교의 개화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7 · 8세기였습니다. 7 · 8세기의 신라 고승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대한 사상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통일을 향한 불교적 이데올로기의 제시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정신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즉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통일 이후의 사상적 책무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즉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분열과 대립 대신에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를 호흡했던 위대한 고승들 가운데서 단연히 주목을 모으는 인물은 원효(617~686)와 의상(620~702)입니다. 원효는 신라 불교의 으뜸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반야 · 유식 · 법화 · 화엄 · 정토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상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회통하는 탁월한 안목과 실천력을 지녔습니다. 또 원효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대중 불교의 지향입니다. 그는 이미 신라 사회에 일기 시작한 귀족 불교의 풍조를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불교가 권력층의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거나 인과적 윤리 의식이 패배적 숙명론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육두품 출신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안, 혜공, 사복 등 반체제적 성격이 농후한 이들과 각별한 교분을 유지했다는 점 등은 그 풍모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 편 의상은 원효와 비교해 볼 때 극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화엄종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부석사 등 화엄십찰의 건립, 낙산사 창건에서 보이는 대로 불국사 사상의 현양 그리고 정토 사상의 구현 등 매우 학술적이면서도 차분한 일생을 마칩니다.

특히 의상은 화엄 사상의 전파에 그 일생을 건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화엄경〉의 육상원융을 국가적 이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에 전체와 개인은 불가분일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 성찰이 곧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명저 〈화엄일승법계도〉는 바로 그 철학적 토대와 실천적 의지를 집대성한 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이 원효처럼 현실 비판이 집요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신분과 성품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화엄 사상을 국가의 이익과 결부시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소위 어용적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자적 고결한 인품과 빼어난 신행심이 그를 고결하고 의연하게 살도록 만든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탁월한 사상성에 의하여 신라는 통일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일 전후의 신라 불교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상 풍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주들의 불교관이 건전하였고 국민들의 믿음 형태 또한 매우 건강하였습니다. 인도에서 파생한 불교가 해동에서 사상적 회향을 이루는 한국 문화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신라 하대의 불교

경덕왕의 시대는 불교 사상의 만개기였습니다. 불국사, 석불사, 영묘사 등 굴지의 대찰들이 건립 되었고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문화적 융성의 태평성세였습니다. 통일 이전의 신라 불교 사상은 주로 미륵 사상과 관음 신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주로 미타 신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은 역시 사회적 안정 추세 속에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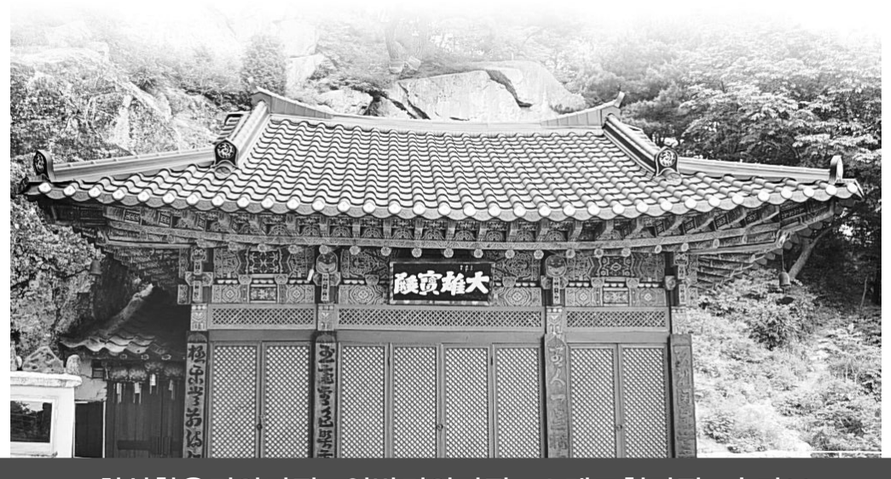
신라 하대에서의 특징적 경향 가운데 하나는 천축 구법의 여정입니다. 다행히 그 이름과 저술을 남긴 혜초 이외에도 아리야발마 · 현태 · 구법 · 혜업 등 많은 구법승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교학적인 면으로 볼 때 신라 사회의 주류는 화엄학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라 고승들은 화엄에 대한 연구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화 · 유식 · 밀교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부터는 선종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신라 불교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종은 육조혜능(663~713)의 남종선 계통이 주종을 이룹니다. 최초의 선종 도입은 법낭으로 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덕 여왕 때 당나라에서 사조 도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도의가 또한 남종선을 전해옵니다.

그러나 선사상은 신라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되는 것은 역시 고려 중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라 하대의 불교는 기울어져 가는 국운처럼 퇴락의 기미를 보입니다. 고려 정부는 명백히 지방 호족들의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 말엽의 불교계 동향은 고려 정부의 수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유전자는 아뢰야식이 아닌 말라식"

우희종 서울대 교수, 7월 16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유전자의 발현은 단순히 DNA 염기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후성유전학(epigenetics) 등의 첨단 생명과학으로 밝혀지고 있기에 DNA는 제7식인 말라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이론은 아뢰야식이 우주만물의 근본이라는 유식이론과 맞닿아 있다는 조명이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가 유식의 제7식인 말라식과 밀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사진>는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7월 16일 개최한 'DNA와 아뢰야식' 열린논단에서 "DNA를 모든 존재의 토대인 아뢰야식으로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개체의 토대라는 점에서 아뢰야식의 집장과 연계되는 말라식에 가까우며, 환경과의 조건과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자도 전6식에 연계돼 자리잡은 말라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식에서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8식으로서의 종자식인 아뢰야식은 함장식(含藏識)으로 불리며, 세부 측면으로 능장(能藏) · 소장(所藏) · 집장(執藏)의 3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우 교수는 "종자식인 아뢰야식은 모든 종자를 굳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며 "말나식은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를 이끌어 내어 발현하게 함으로써 생명체로서의 개체의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뢰야식과 전6식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마음자리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는 마치 유전자라는 물질로서의 생명체에서 생물학적 관계로부터 자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관계로의 도약과도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교수는 "사회생물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적 행위가 유전자에 근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NA는 물질이지만 물질로부터 생명현상 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DNA에 바탕한 유전자는 생명체의 특징인 개체성 발현의 근거가 된다. DNA는 생명현상을 담고 있는 물질이고 조건이 맞는다 해서 그 무엇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유전자의 발현은 단순히 DNA 염기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이 후성유전학(epigenetics) 등의 첨단 생명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체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인간에 있어서 2:8의 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환경에 의한 영향이 최소한 2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말나식의 본질적인 성질인 사량(思量)은 물리적인 용어로 'vector force' 로서, 번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염오식(染汚識)으로서의 말나식은 오염된 자아의식인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나게 되기에 개체로의 근거이자 바탕이 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 부탄 불교문화 관리에 도움 준다

문화재청, 7월 3~9일 부탄 현지서 기술교육 실시



한국정부가 불교문화의 보고인 부탄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나섰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7월 3~9일 1주간 부탄 국립박물관에서 문화부, 왕립직물박물관 등 국립기관의 문화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지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3년부터 진행중인 현지기술교육은, 상대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이 취약한 아시아권 국가에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보존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다. 교육은 현지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도 유물을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탄은 오랜 불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로, 중요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방법과 안전한 보관 · 관리, 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번 현지기술교육은 직물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사진 촬영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직물은 부탄 내에서 지금까지도 전통기술의 맥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자, 보존기술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덕현 기자

"우리 것이지만 훔쳐온 것이기에…"

한국 정부, '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키로



검찰, 서산 부석상 불상은 보류

"감정 배제, 국제법 등 따라 처리"

일본 측의 약탈문화재 반환 주장도

2012년 서산 부석사 불상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동조여래입상' 에 대해 한국정부가 일본에 반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카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사진>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다만 서산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산 부석사 불상은 법원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동조여래입상의 경우 불상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현재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취 당시 점유자였던 카이진 신사를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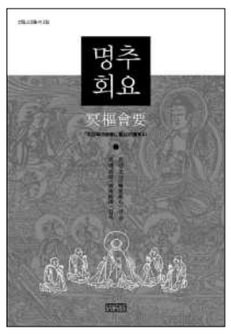
반환이 결정된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서 1974년 6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 측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같은날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 발표 이전 반환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쓰시마에서 훔쳐온 불상 중 약탈당한 증거가 없기에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특히 형사법은 절도범을 붙잡으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를 민족감정으로 대응해 해결하려 하면 더 꼬이게 된다. 역으로 일본 측이 소장한 한국문화재 또한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의당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성철불교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로"

백련불교문화재단, 마음공부 요지 모은 〈명추회요〉 출간



마음에 관한 논의의 요지를 모은 '명추회요(冥樞會要)' 한글본이 출간됐다.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가 마음에 관해 논한 '종경록(宗鏡錄)' 중 회당조심(晦堂祖心, 1025~1100) 선사와 영원유청(靈源惟淸, ?~1115) 선사가 상 · 중 · 하 3권으로 요약해 모은 것이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이번 '명추회요' 한글본 번역을 1권으로 엮었다. 이번에 출간된 '명추회요' 는 성철 스님이 생전에 발간한 총 37권의 '선림고경총서' 에 이은 후속작 성격이 강하다. 성철 스님은 생전 '선림고경총서' 중 하나인 '선문정로(禪門正路)' 에서 고려 이후 관심이 멀어졌던 '명추회요' 를 언급했다.

성철 스님은 " '종경록' 은 어려운 책이니 '명추회요' 라도 번역해서 유포하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며 말을 남긴 바 있다.

성철 스님의 상좌 원택 스님은 번역불사를 발원한지 23년만에 회향했다. 원택 스님은 "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비판' 으로 국한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성철불교관' 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철 스님은 선과 교를 부처님의 중도사상으로 일관되게 논의하셨다"고 전했다.

원택 스님은 "중도로 선교를 설파한 '백일법문' , 수행론으로 돈오돈수를 천명한 '선문정로' , 중도관으로 역대 조사 공안을 드러낸 '본지풍광' 을 깊게 연구해 한국 선교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명추회요는 일본 가경 원년(1387)에 간행된 판본으로 고마자와대학과 동양문고에 소장된 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와 대진, 선암 스님 등 전문번역가들이 나서 중국 종교문화출판사에서 출판된 '영명연수 선사 전서 상, 중, 하' 를 참조해 인용문속 인용문장에 대한 부호와 표점을 재정리했다.

원택 스님은 "역경불사는 역경가와 시간과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종단이나 동국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잘 번역해 온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불사야 말로 불교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불사"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 경전의 고한문을 공부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2015년 2학기 기본과정 개설강좌는 초서 · 불교금석문, 노자, 원각경, 한문법 강좌, 논어 등 주제로 진행된다. 7월 31일 오후4시까지 온라인(letsgohi@empas.com)이나 한문아카데미 사무실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선발과 일반연수생으로 나눠 모집한다.

선발 연수생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이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스님이어야 한다. 일반 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 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정원은 30명이다. 한문아카데미 개강일은 오는 8월31일이며 수업시간은 오후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7월 31일까지 가을 논문 공고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9월 19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을 논문 발표회' 에서 발표될 논문을 공모한다.

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표 주제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발표를 신청하려는 이는 소정 양식의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전자우편(bulgyohak@daum.net)으로 발송하면 된다. 논문계획서 신청 마감은 7월 30일 오후 5시. 신청자 중 발표자를 선정해 7월 31일 이후 개별통지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신진학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봄, 가을 연 2회 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010)4313-2122

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연합, 제77차 평화포럼 개최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 천도교 교령)이 주최하는 '2015 제77차 평화포럼' 이 7월 21일 오후 5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 907호에서 열린다.

상지영서대 최용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 충북대 윤리교육과 김용환 교수는 '생명살림과 생명나눔의 상관연동' 을, 쑥고개성당 김홍진 주임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애덕의 실천과 생명나눔 운동'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조계종 미래사 주지 해봉 스님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김대식 강사가 각각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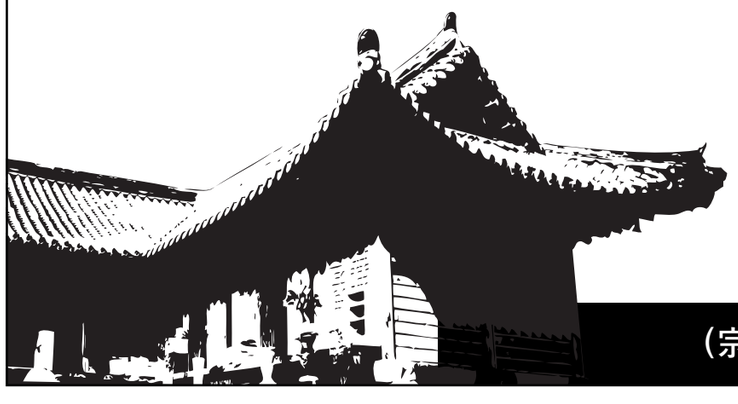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된다

내장사 · 정읍시 · 내장산 국립공원 3개기관 협조 다져

가을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일대의 사계절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장사(주지 혜산)와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개 기관이 공동협조체제를 구성키로 했다.

내장사 · 정읍시 ·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3개 기관은 7월 9일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이진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장산 관광 인프라구축의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3개 기관이 연계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3개 기관은 특히 단풍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특히 사계절 관광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비롯해 생태연수원, 단풍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 등도 추진된다.이날 내장사 주지 혜산스님은 내장사 대웅전 복원과 우화정 개축사업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KTX의 개통 이후 정읍의 접근성이 좋아져 단풍의 명소 내장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좋은 여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광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내장사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 복원 및 환경개선

정읍시 생태탐방지 구축 협력 요청

관계자 팸투어 및 버스운영 추진

정읍시는 내장사 측에 생태탐방연수원이 적합한 위치에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생태관광지 조성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 시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이진범 국립공원사무소장은 "생태공원 등은 근린시설이 아닌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장사 · 정읍시 ·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3개 기관은 7월 9일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내장산 일대 인프라 구축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을 방문한 중화권과 동남아권 해외 관광객들이 '내장산 탐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셔틀버스 운영안 등이 담겨있다. 또 해외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내장사는 2012년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4월 7일 상량식을 거행한데 이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대웅전은 면적 약 166㎡, 정면 5칸, 측면 3칸 50평 규모의 팔작지붕 다포집 형태다.

혜산 스님은 "각계의 정성으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품 법당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봉축행사 화보집 발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올해 화보집이 출간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7월 14일 '2015빛고을관등회'란 제목으로 봉축행사의 세세한 장면들을 담은 화보집을 내놨다.

화보집에는 점등식, 관등법회, 제등행렬, 관등음악회, 공모사업 등 지난 4~5월에 진행된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사진과 소감문 등을 실었다.

연광 스님은 화보집 발간사를 통해 "올해의 봉축행사의 특징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로 진행했다"며,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부대중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화보집 발간과 더불어 각 사찰, 불교단체, 관공서, 언론 등에 화보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7월 11일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대웅보전에서 열린 개금불사 회향 점안법회에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안 실상사 주지 지안스님이 법주를 맡아 진행됐다.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은 "내소사 대웅보전의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 협시보살인 문수 · 보현보살상은 원만한 덕상과 단아한 종호로 많은 불자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개금의 연대가 오래되어 퇴색하여 그동안 개금불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개금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34년(633년) 혜구두타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대웅보전(보물 291호), 봉래루, 영산회 괘불탱화(보물 1368호), 내소사 동종(보물 277호)등 많은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 특히 전나무 숲길과 대웅보전의 보상화를 조각한 꽃살무늬 창살로 유명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중학교, 인성·리더십캠프 실시

금산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서 1박 2일간 진행… 62명 참가

전북지역의 유일한 종립학교인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인성교육과 리더십 · 금연캠프를 열었다. 7월 9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김제 금산사 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6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캠프에서는 조영석 교장 선생님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학교장과의 즉문즉답, 문화재 탐구, 초청강연, 사찰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인 진선 스님과 함께 참선과 명상 전통적 예절교육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금산사 경내의 국보와 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연꽃작품 만들기와 108배도 진행됐다. 이어 김제 보건소 강영석 선생님 초청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생활이야기' 강연과 최근 유행한 메르스의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삶의 태도 강연,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의 어린시절 꿈이야기 강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 연마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선정 혁신학교로 선정되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을미년 하안거 포살법회 봉행

7월 15일 100여 스님 동참해 원력 다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15일 을미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포살법회는 선운사 대중스님과 도솔암, 참당암, 석상암 등 산내 암자, 말사 대중스님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날 포살법회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법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경우스님은 "계율은 중요한 실천덕목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올바른 가르침이다"며 "포살법회를 계기로 대중스님들의 수행상을 점검하고 가람수호와 전법활동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는 7월 28~30일 2박 3일간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배려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예불 체험, 합장주 만들기, 행복한 부처님 노래, 명상체험, 부채 만들기, 물놀이, 향장엄물 만들기, 부모은중경 사경, 캠프파이어, 수계식 등에 참여한다. (063)561-1375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불교활동가 조현옥 시인 시집 발간

세월호의 아픔을 고뇌하는 불교시집이 나왔다. 광주지역 불교활동가인 조현옥 시인의 3번째 시집 '사월의 비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1~2부에 세월호의 침몰 이후 시인의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담았고, 3~5부에 보림사, 도갑사, 무위사, 은적사, 선운사 등 사찰기행을 시로 담은 작품을 담았다.

조현옥 작가는 "시를 많이 사랑하고 시를 많이 읽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내는 시집이 부끄럽고 죄송한다. 시는 역사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시는 진실의 편, 정의의 편이다. 한 편의 시로 세상을 맑힐 수만 있다면 나의 고통은 즐거움이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집은 수익금 전액을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후원 기금으로 사용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양군, 낙산사 일대 디자인 개선 사업 시행

강원 양양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낙산도립공원이 정비됐다. 양양군은 7월 7일 8억9천500여만원을 투입해 진행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시설정비 사업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수가 훼손된 구간에는 해송을 심고 미관을 해치는 낡은 울타리와 간판 등은 철거했으며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낙산광장 대형주차장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양양군은 하반기에는 낙산사 대형주차장에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내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입, 공원형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산사부터 지구 입구까지는 디자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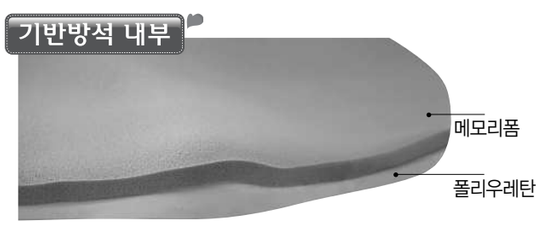
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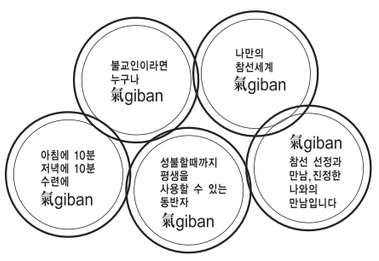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수행 점검하며 깨달음의 길 걸어갑니다”

7월 13일 조계종부산연합회 ‘하안거 재가안거 반결제’

재가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의 정진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를 7월 13일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진행했다.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하안거에 동참한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수행 방법과 성과 및 경험을 나누는 포살법회다. 특히 이번 반결제는 재가 안거에 동참한 재가자들의 수행 점검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첫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모인 재가자들은 지도법사로 참여한 스님들에게 직접 수행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 답변을 듣고, 도반들의 수행담도 들으며 정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교육원장 하림 스님, 포교원장 범천 스님, 사무국장 정관 스님, 문화국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산 동명대 설동근 총장이 함께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반결제를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에 대한 의지를 굳게 세웠다. 이어 법회를 통해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며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발원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영원히 행복하고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이라며 “행복을 위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거에 동참하는 재가자들은 참선, 기도, 사경, 다라니 등 자신에 맞는 기도법을 선택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날 점검에 참가자들은 수행 내용에 따라 반을 나누어 스님들에게 지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선반은 수진 스님, 정관 스님, 도명 스님, 인해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했다. 수진 스님은 참선 전 바른 자세와 손모양 및 자세한 몸풀기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지도했다. 이어 재가자들은 함께 실참한 후 화두와 몸의 변화 등에 대해 질문 시간을 가졌다.

안거 수행 점검 위한 특별 법석

1000여명의 재가 불자 참석

참선·기도·다라니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과 실참 지도

수진 스님은 “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화두에 대한 의정을 놓치는 것”이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참선 초보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몸의 고통이니 기본적 자세를 유지하고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7월 13일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를 진행했다. 사진은 참선 지도 모습.

기도반에서는 혜성 스님, 보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섰다. 보연 스님은 “기도의 종류는 간경(看經), 염불, 절 기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따라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라니 반에서는 하림 스님, 일철 스님이 사경반은 주석 스님, 범천 스님이 참여했다.

다라니 기도에 참석한 김지은 불자는 “기도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며 평생 해야 할 일이란 것을 도반들의 수행 나눔으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며 “다라니 기도의 힘인지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변화된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경반에 참여한 강우숙 불자는 “평상시에 집중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사경을 하면 거짓말처럼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안거에서는 지장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알게 되는 좋은 수행법”이라며 환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수행 모둠별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 서로의 수행법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안거에는 20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중이며 각 사찰에서는 수행을 독려하며 재가자 수행문화 정착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원효 스님 주석처 천성산 화엄의 성지”

내원사, 7월 14일 원효봉 정상석 제막식

양산 내원사(주지 진성)가 7월 14일 정상석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는 내원사의 노력으로 천성산 제1봉이 다시 원효봉이란 이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번 제막식을 통해 내원사는 천성산 1봉의 본 명칭은 ‘원효봉’임을 알리고 천성산이 화엄의 성지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천성산 습지를 복원하고 자연을 보호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행복할 것을 발원하는 산신제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미타암 주지 산옹 스님, 원효암 주지 범철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산시 관계자들은 “천성산은 전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며 불교의 성지로 생각한다”며 천성산을 함께 보호해 갈 뜻을 밝혔다.

내원사 주지 진성 스님은 “천성산 원효봉 제막식을 통해 불교의 성지임을 다시 확고히 했다”며 “오늘 산신제는 그동안 공사로 많은 생명이 죽은 것을 위로하고 천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해발 922m에 세워진 천성산 원효봉 정상석은 1m 80cm의 크기로 글씨체는 석보상절을 원형으로 제작했다. 새롭게 정상석을 제막한 원효봉은 신라 시대 원효스님이 〈화엄경〉을 설한 지역으로 지금도 그 일대를 화엄벌이라 부르고 있다. 천성산은 원효 스님을 따르던 988명이 이곳에서 득도를 해 지어진 이름이다. 20년 전부터 양산시는 원효봉을 천성산 제1봉으로 부르고 표기했으나 내원사 스님들의 노력으로 정상석을 제막하고 불교성지 대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내원사는 “천성산 제2봉이라고 명칭 되고 있는 장소도 원래는 ‘비로봉’이란 고유의 불교 명칭이 있다며 이름을 정확히 되돌리고 불교 성지임을 천명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내원사는 천성산 1봉의 본 명칭은 ‘원효봉’임을 알리는 정상석 제막식을 거행했다.

부산불교연합, 연등축제평가보고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14일 부산코모도 호텔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대해 평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5부산 연등 축제는 50만 부산시민이 함께한 부산 대표 관광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새롭게 변경한 연등축제 장소 ‘송상현 광장’은 접근성이 용이해 참가도를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남달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통등 강습 및 체험 부스 등은 낮에 실시해 호응이 떨어졌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평가회 및 회향식에서는 전통등 및 창작등 수상자 시상식도 개최됐다.

하성미 기자

“70년 신행이야기에 환호와 박수가”

이대원 회장의 〈바라밀 일기〉 출판 기념 사인회



부산연꽃모임 이대원성 회장의 책 〈바라밀 일기〉와 시집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의 출판 사인회가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에서 7월 11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지 목종 스님, 이대원성 회장〈사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목종 스님은 이대원성 회장의 70년 신행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으며 참가한 불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목종 스님은 참여한 모든 불자들에게 책〈바라밀 일기〉를 법보시하며 격려해 더욱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목종 스님은 “이대원성 보살님은 부산이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분”이라며 “신행생활이 담겨 있는 바라밀 일기를 읽고 그 삶 속에 묻어나는 불교의 지혜를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원성 회장은 “책을 발간하고 첫 사인회인데 이렇게 대광명사에서 정성을 담아 환영 해주시고 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이 책을 통해 독자분들이 한 가지라도 공감하고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더욱 기쁠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참가한 불자들은 이대원성 회장의 신행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사인회에 참가한 팽순자(77) 씨는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대판 승만보살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 빨리 읽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지선(43) 씨는 “보살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책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공부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이 회장의 책 출판 사인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부산 초량 소림연화선원, 7월 22일 오전 11시 부산 홍법사에서도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보현사, 덕암·충담 스님 부도탑 제막

7월 12일 400여 명 동참

경남 통영 보현사(주지 묵원)가 7월 12일 덕암 · 충담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보현사 회주 혜화 스님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해 덕암 · 충담 스님의 뜻을 기리는 부도탑 제막식을 축하했다.

부도탑 제막식은 1부 호산 스님 외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하는 다례로 시작해 2부에서는 조탑 점안과 내빈들의 추모사가 진행됐다. 특히 보현사는 축하 화환대신 공양미를 받아 백미 500kg을 통영여성포럼 배도수 회장에게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지 묵원 스님은 “대승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셨던 모두의 큰 스승이신 충담 스님과 덕암 스님의 부도를 세우고 두 분 큰 스님의 사리기를 봉안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며 “벅찬 감동과 부처님의 가피를 온 몸으로 느꼈다”고 기쁨을 전했다.



덕암 · 충담 스님 부도탑 제막식

보현사는 부도탑 불사를 준비하며 지난 3년 동안 3회에 걸쳐 백일기도를 봉행하고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해 온 바 있다.

한편, 충담 스님은 태고종 대종사 법계 품수와 승정에 추대됐고 세수 86세 법랍 69세에 소신공양으로 열반에 들었다. 덕암 스님은 1970년 태고종의 초대 총무원장을 맡았으며 1986년~1993년 태고종 제 13대 종정, 1999년 제16대 종정으로 재추대되었으며 1996년에는 태고총림 방장에 취임했다.

하성미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이름을 얻음은 새 존재로 탄생하는 것과 같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⑨ 아! 그 이름 손오공!



그림 · 최주현

눈밝은 수보리 존자, 원숭이 왕의 바탕을 꿰뚫어 보았겠지요? 얘기를 들어 보니 천지의 정기를 받은 출생도 범상치 않고.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큰 뜻을 품은 것도 가상하고. 앞날의 훌륭한 성취를 기약할 만한 제자 하나 들어왔구나! 애고, 이뻐라! 귀여워라! 훌륭한 제자를 보는 스승의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래도 직업이 직업이라 조금은 느낍니다요.

그렇지만 스승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도 그것을 함부로 다 드러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칫 건방져지기 쉽죠. 아직은 철없는 제자니까요. 그런 조심스러움에 기쁜 맘에 속으로 웃으면서도 짐짓 근엄하게, 담담한 표정으로 입문식을 겸하여 우리 원숭이 왕에게 이름 석자를 내립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손오공(孫悟空)이란 이름을!

수보리 존자께서는 한번에 척! 지어주셨지만, 도인의 가벼운 한 마디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법! 역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삼쾌선생의 오랜 작명 경력에서 나오는 성명풀이를 한번 해 봐야 하겠네요. 음? 정말 작명도 하느냐구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작명이야 기본 중에도 기본이죠. 다만 작명을 잘 안해줄 뿐, 실력이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작명법은 분명한 원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작명에도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렵게 말하니까 그렇고요, 간단하고 쉽게 말해 요즘은 한글 시대이니만큼 한글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문이 중심이던 세상에서는 한자의 뜻이 무척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자 뜻만 생각하고 지으면 정말 웃기는 이름 많이 나오죠. 김치국(金治國), 고생만(高生滿), 우동집(虞東緝), 구만두(具萬斗), 임신중(任新中), 고소한(高昭漢), 구수한(具秀漢), 조구만(趙俱滿), 주동희(朱棟熙), 하지만(河祉滿), 성교중(成嶠重), 비연태(費然泰)...기타 등등.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이름으로 불리며, 또 자신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생각하기에 거기서 오는 암시가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위와 같이 우습게 지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한자 뜻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니까 좀 봐줄 수 있겠지만 이젠 아니란 말입니다. 소리에서 오는 영향이 이제 더 크게 된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원칙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글자 그대로 발음되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근래(朱勤萊) 같은 이름은 읽을 때 '주글래'가 됩니다. '석희'는 '서키'로 발음되죠. 가능하면 이렇게 발음이 글자 그대로 나지 않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음법칙과 구개음화 같은 것들을 고려하며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몇가지 원칙 지키면서, 가능하면 한자로 표기할 경우 뜻도 좋은 이름을 두어개 지어 놓고, 아기의 부모나 어른들이 여러번 불러보면서 가장 느낌이 좋은 이름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기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잘 아는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그 아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어울려야 합니다. 질그릇에는 질그릇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다 고려청자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도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봅니다. 요새와 같은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질만 잘 개발하면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할 수 있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타고난 소질을 가로막는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여서 잘 짓는다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결과! 아이와 정감이 통하지 않는 작명가가 지은 이름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많다고 하데요.

제가 작명을 잘 안해드리게 되는 것도 이런 작명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작명 부탁하면 저는 이런 원칙을 잘 설명해 드리고, 부모나 조부모가 두 개 정도의 이름을 지어서 식구들이 계속 불러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맘에 드는 것으로 하라고요. 그래도 정 결정하기 힘들어 하면, 삼쾌선생 비결에 의해 두 개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드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냐구요? 그건 영업상(?) 비밀에 속합니다요. 하하.

자~ 이제 저의 작명실력에 대해 믿음이 가시죠? 음? 믿음이 싹 가신다구요? 백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내다본다는 예지력 비슷하게 뭐 하나 시원스럽고 신통한게 없다구요? 애고! 제발 그렇게 무슨 희안한 것 찾는 버릇부터 좀 고치세요. 진리란 평범한 데 있는 거랍니다.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갖춘 삼쾌선생의 참 모습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실력을 손오공 이름 풀이를 통해 보여 드리기로 하죠.

자! 손(孫)이라는 성(姓)은 무슨 의미냐 하면....원숭이 손(𤘓)자가 있어요. 거기서 짐승을 뜻하는 丶(큰 개 '견' 자입니다) 변을 떼어내고 성을 삼았으니....이는 동물적인 차원을 벗어난 존재로 거듭나라는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겠죠.

우리 인간이란 본디 신과 동물의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원숭이 왕은 이미 그냥 평범한 짐승인 원숭이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구도의 길에 오른 존재. 그러니 이미 동물적인 차원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런 뜻을 살려서 성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 두죠. 거기에 손(孫)자를 깨뜨리면 '자(子)+계(系)'가 되는데 자(子)는 남자 아이요, 계(系)는 어리고 가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영아(嬰兒)로 돌아가는 것을 숭상하는 도교와 신선도에 부합한다는 거죠.(이것은 서유기 원전에 나오는 수보리 조사의 풀이임)

그다음 '오'(悟)자는요, 하핫. 돌림 자라네요. 이름 짓는데 항렬 있잖아요. 조사 문하의 제자들에게 내리는 돌림자가 마침 '오' 자였다는군요. 그런데요... 이 조사 문하의 돌림자를 전부 보면 그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광대지혜진여성해영오원각(廣大智慧眞如性海穎悟圓覺)의 열네자인데, 이걸 뜻에 따라 묶으면 광대지혜(廣大智慧), 진여성해(眞如性海), 영오원각(穎悟圓覺)이 되겠습니다. 크고 넓은 지혜, 진여의 성품 바다, 훌륭하고 완전한 깨달음. 그런 뜻이 되죠.

전부 합해 말하면 본래적인 완전한 진여 성품을 깨달아 성취한다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이 열네 글자!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 왕도 이런 가풍을 지닌 부처님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오' 자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空)은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에 대한 목표 제시라고 할까요? 오공(悟空)이라면 바로 "공을 깨닫는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공'이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그 뜻을 풀이한다는 것은, 저야 못할 것이 없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겠네요. 모든 존재들이 똑 떨어진 자기만의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겹 만겹으로 서로 의존해 있다는 연기(緣起)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공'이라고 할까요? 연기와 공은 손의 앞 뒷면과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러한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를 본 자는 여래를 본다'는 말도 있죠.

> **"수보리 존자에게 '손오공' 이름 받아 작명은 성격과 인생에도 영향 미쳐 구도의 길 걸으란 의미의 '오공'"**

어? 나칠계님, 그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거라구요? 엥? 세상이 온통 꽝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을 깨닫는 것이라구요? 로또 복권 샀다가 꽝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라구요? 아우~ 정말 저 힘빠지게 하지 말고, 좀 자중해 주세요!

자, 나칠계님 땜에 흐트러진 시선, 다시 모아 주세요. 손오공의 이름 한자 한자를 풀어 보았죠? 그럼 그런 자들로 채워진 손오공의 전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새겨 보죠.

"이제 짐승의 세계를 벗어나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그대, 불사(不死)의 도를 향해 나아가도다. 온 누리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도를 성취하라!"

대충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꼭 이름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제 원숭이 왕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뭐, 이미 있었는데 이름 얻는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구요? 그 물음에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김춘수의 시를 소개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아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팍팍 느껴질 거예요.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떠세요? 원숭이 왕이라고 불리던 것과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것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제는 우리도 원숭이 왕이라는 칭호 대신 손오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빛나는 이름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되겠죠? 담 시간에 뵙기로 합니다.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거제멸치,미더덕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실치 등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미더덕 2kg (가격 13,000원) 아이스박스 택배
택배는 멸치 5박스, 미더덕 10kg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멸치

그윽한 향 미더덕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건 물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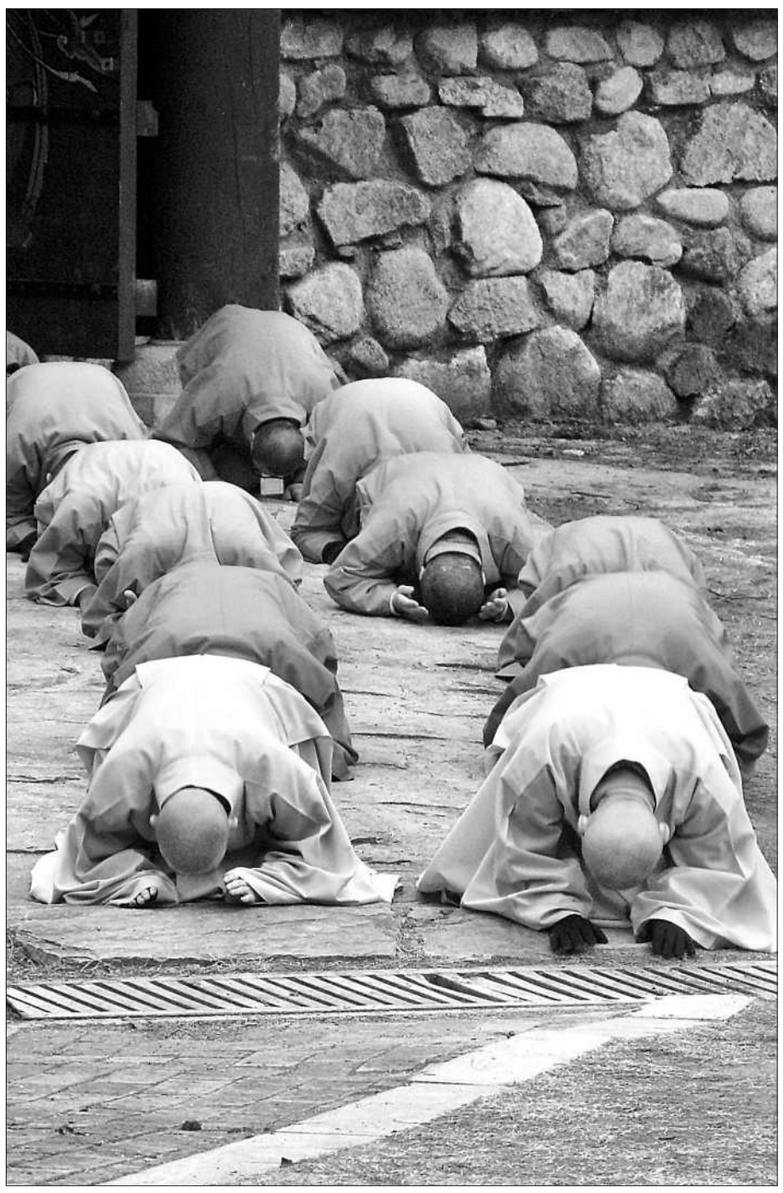
■ 위 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 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 액 : ① 4억 5천만원(조정가능 합니다.) (1억 5천대출안고 2층 건물 및 토지 상가하고도 나머지 교환 가능함) ②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874-9번지
■ 2층 143평,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조정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佛法은 만인 평등한 진리의 가르침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20. 대승불교로의 길 ㊦



조계종 사미 사미니 교육 중 여행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초기 교단은 일부를 제외하고 '양가의 자제' 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승불교로 넘어오며 교단은 누구나 출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만인 평등하며 소수의 독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지혜의 길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의 길이었다. 지혜의 길이란 가르침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이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이룩한 역사적인 역할은 거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또 그 역할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르침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큰 존재 이유를 가질 것이라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인생의 나그네이다. 이 인생의 나그네인 우리들이 만일 몸이 묶여 광야의 한복판에 버려졌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다만 소리내어 울부짖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미친 듯이 다만 뛰어다니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또 신(神)에게 기도하면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하게 몸을 묶고 있는 것을 벗겨야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자기가 지금 놓인 상황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또 관찰하여 가야할 곳을 결정한다. 그리고 갈 곳이 결정되면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가야 한다. 붓다가 이 인생의 광야 속에 놓인 우리들에게 가르친 바도 또한 이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망동(妄動)의 길도 아니며 기적(奇蹟)의 길도 아니며 신에 의지하는 길도 아니며, 기도하며 구원을 받겠다는 길도 아니며 다만 지혜를 연마하여 지혜에 의해서 가겠다는 길이었다.

이 길은 그 시대에 있어 붓다에 의해서 타개되었으며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여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능히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 가르침의 골자를 이해하는 일도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연기(緣起)의 법칙성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무상(無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다.

또 무아(無我)의 인간관을 확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이러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며 확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다다르면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무지(無智)와 몽매(蒙昧)는 여전히 넓게 인류 위에 두텁게 덮여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 능히 이 가르침을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었던 자는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일 것임이 틀림없다. 고역(苦役)에 몸을 시달리며 이마에 땀 흘리면서 겨우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 가르침에는 인연이 먼 사람이었으리라고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하여 근본불교의 교단은 결국 신분이 높은 지성이 뛰어난 '양가의 자제' 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밭의 비유

어느 때 붓다는 나아란다(나라타)부근의 바아바아리강바라는 임원(林園)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한 마을의 장(長)이 붓다를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한 일이 있었다.

"대덕이시여, 온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는 각자(覺者)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각인시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자세히 법을 설명하며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붓다는 전례(前例)에 따라 탁월한 비유로써 대답하였다.

"마을의 장(長)이여, 그대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한 사람의 농부가 있어 그에게는 세 개의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중 하나의 밭은 훌륭한 옥답(玉畓)이며 또 하나의 밭은 중등(中等)의 밭이며, 다시 또 하나의 밭은 거친 자갈밭이며 염분(鹽分)이 많은 것이라고 하자. 이러한 밭에 지금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 그때 그는 먼저 어떤 밭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마을의 장은, 먼저 옥답(沃畓)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등의 밭에 뿌리며, 거친 자갈밭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마지막의 자갈밭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방치할는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튼다 하여도 겨우 소의 사료(飼料)가 될 정도의 것 밖에는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대답하였을 때 그의 의문은 이미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에서 붓다는 또 다시 그를 위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훌륭한 옥답(沃畓)' 으로 비유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였다. 그것은 비구, 비구니들이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개 높은 신분의 출신이며 지성(知性)이 뛰어난 '양가의 자제' 들이었다. 또 붓다는 다시 '중등의 밭' 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재속(在俗)의 신남신녀(信男信女)라고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런 사람들도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왕이나, 바라문, 장자(長者) 등 그 사회에 있어서 높은 지위나 재물이 많은 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의 '거친 자갈밭' 에 비유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붓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방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원하는 것은 그들도 또한 그 중의 한 구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오랫동안 이익이 되리라."

이렇게 교법의 씨앗을 뿌릴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붓다가 예상한 것처럼 풍족한 수확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경전이 말하는 바는 정말로 시사(示唆)하는 점이 많다. 이상(理想)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가르침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 지성(知性)이 모자라는 사람들의 앞에는 폐쇄(閉鎖)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거기에 근본불교의 또 하나의 큰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그 모순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됐다. 만인평등의 가르침이 언제까지나 소수의 사람들만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붓다 멸후(滅後)의 불교를 등에 걸머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비판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은 저절로 대승불교의 정신에 통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가르침 속에 대승불교의 흐름을 생겨나게 한 이유는 결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역사적 경위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서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제한(制限)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중도의 바른 이해를 위해

불교의 핵심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요, 또 하나는 연기 법칙(緣起法則)이다.

여기서는 중도 사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中庸)〉 사상과 불교의 중도(中道)를 혼용해 설명하려는 자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좌(左)로도 기울지 않고, 우(右)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불교의 중도로 그릇 인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중도의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 하나 해야겠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쪽이라 하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서쪽이라고 하는가?'

남쪽과 북쪽 또한 마찬가지의 질문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정답은 정해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현위치를 기준으로, 해뜨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남쪽, 북쪽이라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남북의 중앙, 곧 세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나에게는 좌(左)도 우(右)도 없는 것이다. 기울고 피해야 할 변두리도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세상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 일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是心是佛)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 없다.(心外不佛)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을 첫 외침으로 울려 댄 것이다.

팔만장경을 원효는 다섯 자로 줄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표현했다. 부처는 쿠시나가르에서 마지막 그림자를 걷으며 진리의 등불(法燈明), 마음의 등불(自燈明)을 유훈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원한 선사 임제는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뜻으로, 수처작주(隨處作主)를 큰 법문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중도(中道)는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니라,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임을 잊지 말 일이다.

세 가지 보물(三寶)

불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한다. 이름하여 삼보(三寶)인데 불(佛), 법(法), 승(僧)을 의미한다.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法)은 인정하겠는데 스님까지 끼어 삼보(三寶)라니, '글쎄요' 를 연발할 수도 있는 일이겠다. 다만 교주인 석가모니는 현존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 또한 스님들이 없었으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올 리 없을 터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서는 조사(祖師)스님과 부처님을 동등시해 조불(祖佛)이란 단어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족(蛇足)처럼 덧붙이는 설명은 그만 접어두고 〈화엄경〉 쪽으로 옮겨가겠다. 〈화엄경〉에 보면 삼보를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가 주지삼보(住持三寶)인데 흙과 종이, 돌과 나무, 쇳덩이를 녹여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예배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모아가는 신앙을 의미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
진리는 항시 가까이 드러나 있다

둘째는 별상삼보(別相三寶)인데 나무는 서 있는 그대로 바위는 자연 그대로, 굳이 톱과 도구 등을 사용해 부처님 형태로 다듬어놓지 않더라도 자연 그대로가 나무부처요, 바위부처라는 논리이다.

셋째는 동체삼보(同體三寶)인데 섬겨야 할 부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찾아야 할 진리는 내 맘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가정이 최고의 기도처이자 영험 있는 법당이요, 부모는 부처이자 처자식은 보살이라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 현담〉에서는 귀의(歸依)라는 의존적, 의타(依他)적 단어 대신, 귀경(歸敬)이라는 단어로 상호존중적 진리와, 하나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매달려야 할 메시아도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돌아가 의지할(歸依) 타력적(他力的) 신앙보다는 스스로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歸敬) 자력적(自力的) 신행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항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명리학 화상강의

사상 처음으로....
명리학 화상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명리학에 관심은 많지만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이제 강의실과 똑 같은 분위기로 실시간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강의는 강의시간에 실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강의법입니다. 강의 중에 바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도경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도경선생님의 강의는 유투브에서 '도경명리' 를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과목
□ 명 리 학 :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 개강일자 : 중급반, 고급반 2015년 8월 5일 수요일
– 중급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고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입문반, 초급반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입문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초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수강료 선납 시 : 6개월 수강료 75만원,12개월 수강료 150만원

도경명리학당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010-8844-4654 / 010-9664-8959
도 경 명 리 학 당
국민은행 585001-04-119718 예금주 : 김연주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진관사 사찰음식
제1차 공양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모집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에서는 '공양주 전문가 양성 교육' 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찰음식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 교육 및 시연을 통해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에게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찰음식의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정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월) ~ 29일(수) 2박 3일
2 장 소 : 진관사 산사음식 교육장
3 참 가 자 :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 50명
4 주최 / 주관 : 진관사 /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5 주요프로그램 : ① 사찰음식의 정의와 역사
② 공양주와 채공의 소양교육
③ 공양주와 채공의 소임 – 이론과 실습 / 실습 발표 및 평가
5 교육 참가비 : 오만원정(₩50,000원)
6 참 조 : 홈페이지(www.jinkwansa.org)
7 문 의 : ☎02)388-7999

불교, 오클라호마 지역 채식 문화 '선도'

부처님마음 사원, 제4회 채식 페스티벌 성료
지안 렌 스님 "채식은 자비 · 조화로운 삶의 길"



부처님마음(Buddha Mind) 사원이 11일~12일 이틀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의 대만불교 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채식 문화를 이끌며 부처님의 가르침도 함께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News OK' 는 "부처님 마음(Buddha Mind) 사원이 11일~12일 이틀간 개최한 채식 페스티벌(Veggie Festival)에 오클라호마시티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며 "이는 '부처님마음 사원' 이 지난 2012년 첫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한 이래 다양한 채식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채식 문화의 저변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채식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닌 하나의 생활 습관"이라고 전제한 지안 렌(Jian Ren) 스님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로 유명한 영화배우 벤 스틸러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윤리적 · 종교적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 영성의 도시로 꼽히는 오클라호마시티도 채식 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부처님마음 사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지안 렌 스님은 사실 오클라호마시티의 채식 문화의 정점에 서 있는 수행자이다. 부처님마음 사원이 '평화로운 다이어트, 평화로운 마음'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채식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던 저력도 지안 렌 스님에게서 나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해 "지안 렌 스님이 채식 마스터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만 청 타이 찬(Chung Tai Chan) 사원에서 공부한 까닭"이라고 지적한 'News OK' 는 "스님은 청 타이 찬 사원에서 채식의 교리적 배경을 깊이 했고 실제 요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부처님마음 사원에 주석하면서 지역 사회에 불교 채식의 참 맛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News OK' 에 따르면 부처님마음 사원은 채식 페스티벌 외에도 △불자들이 참여하는 요리 콘테스트 △지역 간호사에게 채식 홍보 △지역 유명 요리사 초청 강연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지역 주민 약 3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채식 유행 아닌 '생활습관' 정착
벤 스틸러 등 헐리웃스타에도 인기
렌 스님 '채식' 지역사회 전파
무료 채식뷔페서 조리법도 배워

"육식은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채식은 생명의 순환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지안 렌 스님은 "채식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새로운 삶의 길"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죽임의 구조를 바꾸고 상생을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할 때 세상은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채식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대표적인 야채 요리를 맛볼 수 있었던 채식 뷔페 코너였다. 채식 뷔페에서는 입장료 없이 음식 담을 그릇만 집에서 챙겨오면 누구나 각국의 야채 요리를 맛보고 조리법도 배울 수 있었다.

"최고의 두부요리를 맛보고 그 조리법도 배우고 싶어서 사원을 찾았다"는 메릴린 바사르(Marilyn Vassar) 씨는 "채식을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었지만 불교 수행자가 직접 진행하는 채식 페스티벌은 처음 참가했다"며 "올 연말에는 부처님마음 사원의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씨앗을 끊는 것"이라는 쟈넬 타림디오스키(Janelle-Talimdjioski) 씨는 "매년 부처님 마음 선원의 채식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생명을 피붙이라고 생각하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ews OK' 는 "식사는 나 아닌 것(음식)이 몸에 들어와 나를 이루는 통합의 과정인데 육식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는 지안 렌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미국의 영성 도시로 꼽히는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자비로워져라' '타인을 해치지 마라' 등 종교 경전에서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의 실천이 채식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안 렌 스님과 부처님마음 사원의 노력으로 오클라호마시티의 주민들이 지구 환경을 먹을거리와 연계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청두서 1200년 전 불교 정원 발견

당나라 시대로 추정… 정중사와 밀접 관계 추정



중국 쓰촨성 청두시서 당나라 시대 추정 고대 불교 정원이 발견됐다. 이 유적은 고분 18기와 우물 1개, 구덩이 8개, 수로 3개, 욕조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에서 1,2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정원(Buddhist garden) 유적이 발견됐다.

'China Daily' 는 13일 "당나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불교 정원이 청두시 퉁진루(通錦路)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이 유적은 고분 18기와 우물 1개, 구덩이 8개, 수로 3개, 욕조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 · 보살상 일부로 추정되는 석조 파편, 건축 부속물, 대규모 생활용 도자기 등도 출토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의 문화유적이 풍부하게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굴단을 이끌고 있는 이 리(Yi Li · 고고학 박사) 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유적이 당나라 및 오대(五代) 시기의 불교 정원 건축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관료들 다수가 자택과 별장에다 연못을 파고 언덕을 쌓아 꽃나무와 돌을 배치하는 등 인공 정원을 건축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는 이 유적이 만불사(萬佛寺)의 전신인 당시 정중사(淨衆寺)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추정하고 있다.

'China Daily' 는 고고학계의 말을 인용, "현재 쓰촨성 박물관에 있는 남조시대 조각상은 만불사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많다"면서 "이 지역 일대가 당시 정중사의 정원이었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 '도시 영웅상' 수상

아시아계 이민자 정착 12년간 꾸준히 도와



대만의 국제적인 불교복지재단인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토론토 시에서 주관하는 '2015 도시 영웅상' 을 수상했다. 토론토 시당국에 따르면, 토론토 지부는 지난 12년간 아시아계 이민자 정착을 적극 도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투치(Tzu Chi)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2015 도시 영웅상(Urban Hero award winner)' 을 수상했다.

'Inside Toronto' 는 4일 "대만의 대표적인 불교복지재단인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가 토론토시에서 수여하는 '2015 도시 영웅상' 의 영예를 안았다"고 보도했다.

토론토 시당국은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의 2015 도시 영웅상 수상은 지역 사회 이민자의 정착을 꾸준히 도왔던 지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설립 12년째를 맞은 투치 재단의 토론토 지부는 현재 100여 명의 자원봉자들이 봉사 · 의료 · 교육 · 교양 등 네 부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투치 재단은 글로벌 조직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주민들과 교감하기 위해 각각의 방법론을 펴고 있다"고 전제한 자원봉사자 테레사 리오(Theresa Liao) 씨는 "토론토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데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게 토론토 지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이라며 "봉사 대상자는 종교를 떠나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Inside Toronto' 에 따르면 투치 재단 토론토 지부는 도심 노숙자 겨울 의류 제공, 직장인 미혼모 교통 카드 제공, 문맹 퇴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워털루(Waterloo), 키치너(Kitchener), 세인트 캐서린(St. Catharines)시까지도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벽돌 쌓아 사찰 건립 '만능 손' 스님

틱광탄 스님, 분재 · 건축 등 손수 도량 관리

스스로를 '팔방미인(a jack of all trades)' 이라고 부르는 스님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춰 바오 광(Chua Bao Quang) 사원 주지 스님은 산타아나 뉴홉 거리에 위치한 약 2천 5백 평 사찰 부지 건설사이자 관리자로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최근 이 스님이 벽돌로 사찰 건축을 완성해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신문 'The OCRegister' 는 7월 11일 벽돌로 사찰 건물을 지은 틱광 탄(Thich Quang Thanh)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The OCRegister' 는 "지난 10여 년간 스님이 벽돌을 쌓아 절을 세웠다. 평소에도 스님은 직접 부처님 제단을 장식하고 분재 기술을 익혀 절 마당을 가꾼다"며 "1천만 신도를 보유한 이 사원은 탄 주지 스님의 예술적 비전으로 신도들을 이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수공업으로 보시금 저축
불교공예품 수집에 투자
불교 박물관 건립 목표

탄 스님은 직접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로 기반을 다졌다. 벽은 나무판자로, 기둥은 화강암으로 세웠다. 'The OCRegister' 은 "탄 스님이 직접 건물을 짓기 위해 경내에서 측량하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귀했다"고 설명했다.



틱광 탄(Thich Quang Thanh) 스님〈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춰 바오 광(Chua Bao Quang) 사원의 건물을 벽돌로 손수 지어 화제를 모았다.

신도 방밴 팜(Bang Van Pham)씨는 "스님이 스스로 절을 지음으로써 보시금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스님이 도량 내를 꾸밀 때 무계획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웃어보였다.

탄 스님은 "경내 물건의 4분의 1정도는 내 손으로 만들었다"며 "이로써 절약한 돈은 불교 공예품을 수집하는 데 모두 쓰고 있다. 신도들을 위한 불교 박물관을 짓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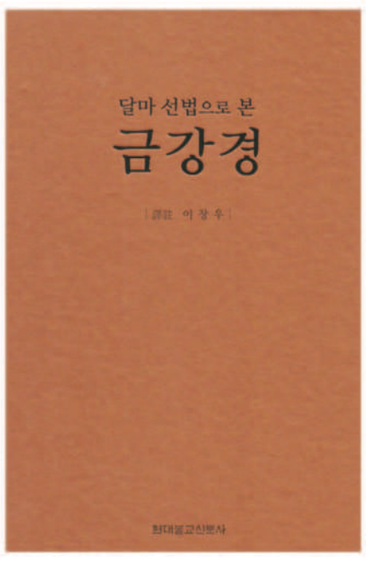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세밀하고 정교한 한국미술 정수 한 자리에

삼성미술관 리움 '세밀가귀-한국미술의 품격' 전 9월 13일까지

최고의 주조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불보살상과 극도의 세밀한 선으로 표현된 고려불화는 정교한 우리 미술품의 정점이 아닐 수 없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세밀함'과 '정교함'을 통해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세밀가귀(細密可貴)-한국미술의 품격' 전이 9월 1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미술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불교미술 금속공예, 나전, 회화 등 전 분야의 국보 21점과 보물 26점 등 140여점으로 구성됐다.

어렵게 서울나들이를 한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 금동 대향로'(국보 287호)를 비롯해, 동국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간송미술관, 호림박물관 등 국내 19개 주요 기관의 대표 작품과 함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영국미술관, 암스테르담국립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 등 해외 21개 소장처에서 대여한 국보급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文 문양, 形 형태, 描 묘사로 나뉘어 대중들을 찾아간다. '文 문양-정교함의 극치, 화려함의 정수'에서는 전통 공예품 속에 나타난 여러 장식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금속공예품을 비롯해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상감청자 등의 장식은 물론, '천하제일'이라 칭송 받던 비색과 그 안에 숨겨진 문양을 보여주는 비색청자 등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통해 공예 작품에 나타나는 정교함과 화려함의 원류를 살펴본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세밀가귀-한국미술의 품격' 전이 9월 1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 왼쪽은 금동대세지보살 좌상, 오른쪽은 백제 금동 대향로.

치밀한 형태미 '금동 대세지보살'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고려불화'
조선 최고의 주조품 '운룡문 운판'
각 시대 대표 작품 새롭게 조명

'形 형태-손으로 빚어낸 섬세한 아름다움'에서는 장인의 손끝으로 빚어낸 정묘한 형태의 세밀함을 찾아볼 수 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주조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치밀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금속공예품과 불보살상을 통해 형태의 섬려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금동 대세지보살 좌상'(호림박물관, 보물 1047호)은 가느다란 허리와 섬려한 손발의 표현, 전신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장신구 등은 당시 불보살상에 반영된 시대적 미감과 제작 기법을 잘 보여준다.

'描 묘사-붓으로 이룬 세밀함'에서는 붓을 통해 표현한 섬세함의 다채로운 모습을 조명했다.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서 예술로 승화한 고려불화에 나타난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문양, 극도로 세밀한 선으로 묘사한 사경의 선(線), 자기의 표면을 화폭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철화 · 청화백자, 사실적인 묘사와 정교하고 치밀한 필세가 잘 나타나는 회화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어 붓이라는 도구로 만들어낸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국보 235호) 등의 고려불화 역시 정교하고도 사실적 표현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한다. 리움 미술관은 "극도로 화려하고 정밀한 고려 불화들은 고려시대의 화공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불화의 세부는 화공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변상도와 사경에서 보이는 극세필은 중국에서조차 부러워하며 화공을 요청했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국보 287호)는 백제 미술의 뛰어난 조형성뿐만 아니라 최고 경지에 도달한 주조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사뇌사지 출토 '금강령'(국립청주박물관)이나, 조선시대 주조품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청동 '운룡문 운판' 등을 통해 문양뿐만 아니라 형태의 정교함과 세밀함 그리고 화려함의 추구가 여러 시대를 거쳐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 17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고려 나전 8점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나전을 조망하고, '청자진사 연화문 표형주자'(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칠보산도병'(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동경계회도'(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을 국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전시한다. (02)2014-690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정된 실체 없는 불상 예술로 승화

김영진 개인전 갤러리 신라서 7월 26일까지

불상 시리즈의 신작을 소개하는 김영진 작가의 개인전이 7월 26일까지 대구 갤러리 신라에서 열린다.

이번에 소개되는 불상은 주물로 찍혀 나온 조형물이다. 미술작업을 위해 개금 재료를 찾아다니다 불상제작소를 방문하게 된 작가는 그곳에서 불상 조형을 배웠다고 한다. 김 작가는 "4개월 동안 불상 제작을 배웠는데 매우 재미있었다. 이후 불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종종 제작하게 되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기에 이를 통해 불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의 불상도 그렇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불상도 일정한 틀을 가진 형태로 굳건하게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여기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불상의 금도금 위에 다양한 색상의 염료로 착색을 해 불상의 고정적인 틀을 깨버렸다. 어떤 건 형태 자체에 변형을 가해 부처님의 상호(相好) 대신에 다른 형상이 올라와 있다. 상식적인 체계의 조형을 전복, 전향하는 행위를 통한 도발적인 조형작업이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공(工)의 아티스트이기에 조형은 임무이자 의무다. 그러나 작가는 조형을 하면서 동시에 조형을 거부하고 파괴한다. 미술평론가 황인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깨부수고 조형을 만나면 조형을 깨부수고 급기야 나를 만나면 나도 깨부순다. 이런 종횡무애야말로 작가를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그의 작품에 대해 평했다.

김영진 작가는 1946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1974년 앙데팡당전, 대구현대미술제, 1975년 서울현대미술제, 1976 부산현대미술제, 1979년 에꼴드 서울, 1984 한국현대미술제(대만) 등 70~80년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대미술의 주요 단체전에 중심인물로 참여해왔다. (053)422-1628 정혜숙 기자



김영진 작가는 불상의 변형을 통해 예술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국박, 한국문화재 영문도록 전자책으로

〈통일신라조각〉 시작으로 7권 선보일 예정

선덕대왕신종 석굴암사천왕상 등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영어 전자책으로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통일신라조각〉(Sculptures of Unified Silla) 영문도록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해온 한국 문화재 영문도록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제까지 발간된 영문도록 전 7권이 모두 올해 전자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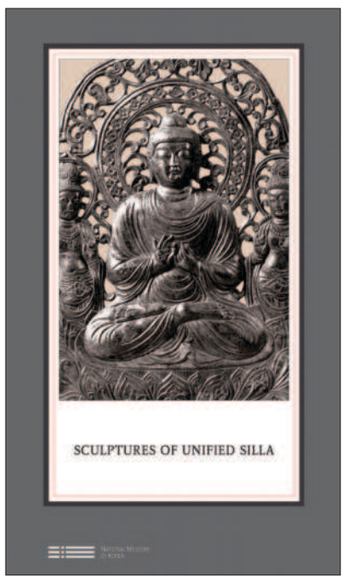
이번의 전자책 발간은, 인쇄물 형태의 영문도록을 해외 주요 박물관 · 미술관 및 학술기관에 무상 배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이 직접 전자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마존과 교보문고 등 국내외의 유수 전자책 상거래 시장에 한국문화재 영문도록 전자책을 출시함으로써, 한류의 확산과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아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층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금년 중으로 출간될 전자책은 〈고려청자〉〈조선시대 청화백자〉〈조선시대 불화〉〈조선시대 향연과 의례〉〈조선시대 초상화〉〈한국 나전칠기〉 등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망라한 영문도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의 전자책 출판을 계기로, 한국 문화재의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과 수요층 확대를 위해 영문도록 콘텐츠 개발 및 발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통일신라조각〉 영문도록 전자책 표지

선화 그리기의 과정 책으로 출간

담원 김창배 화백 〈한국 선화 화법〉 출간

담원 김창배 화백이 선서화의 기법을 설명한 도서 〈한국 선화 화법〉을 내놓았다. 김 화백은 선 그리기를 비롯해 달마도, 다동의 화법 등은 물론 마음가짐 준비자세 등에 대한 과정들을 책 속에 담았다.

김창배 화백은 선묵화란 한마디로 수행을 통한 선(禪)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선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화가들도 불교 공부를 바탕으로 수행을 실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화는 형상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이 책에 선묵화를 그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선(線) 그리기와 응용, 묵법, 운필법, 기본필법과 붓의 전호(前豪)와 필심(筆心) 등 개체의 표현에 대해 도판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또, 선화(禪畵)의 주역 달마와 선동(仙童) 그리기, 인물의 부분별(눈, 눈썹, 코, 입, 손, 발 등) 형태 그리기, 선방(禪房) 용구 및 다구 그리기, 피사체와 개체의 표현 등의 화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청량사 어린이법회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둥근소리 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가 7월 23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장면.

첩첩산중 둥근마음 음성공양으로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 제 2회 정기 공연

첩첩산중 경북 봉화 산골마을 사찰의 신도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이 공연을 펼친다.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가 7월 23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둥근소리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노래하는 합창단이며 이번에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둥근소리' 라는 합창단의 명칭은 각자의 목소리가 둥글게 둥글게 어우러져 환희로운 마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첩첩산중 시골 절 청량사의 도량에 사부대중의 마음이 한데 모여 곳곳에 뿌려지듯 불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찬불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둥근소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찬불가, 국악, 가요 등의 장르를 아우르며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 △1부는 연꽃향기, 바람부는 산사, 마음 등이 공연되며 △ 2부는 좋은 인연,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3부는 꿈 찾아가 가리라, 뭉게구름, 짠짜라, 사랑의 밧데리 등이 이어진다.

단원은 청량사 어린이법회 학부모
매주 화요일 예식장 빌려 연습
어린이 밴드·꼬마 풍경도 무대에

둥근소리합창단은 청량사 어린이법회에 오는 어린이들의 부모들로 구성됐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연습을 하는데 그 장소가 영주의 한 예식장이다.

지휘를 맡은 이종만 씨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 마땅한 연습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예식장을 운영하는 회원이 공간을 내어줘 연습을 하게 됐다. 보통 사찰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많지만 청량사는 혼성 합창단이다. 부부가 함께 합창단에 참여하니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고 전한다. 이들의 열정에 감동 받은 이종만 지휘자 역시 매주 서울에서 영주까지 오가며 합창단 지도에 매진했다.

또한, 사이 공연으로는 청량사 어린이 밴드의 '연꽃등 밝히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이 좋아요' 등도 선보여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청량사는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면서 청량사에는 다양한 신행단체들이 많이 생겼다. 이번 공연에서는 청량사의 어린이 밴드, 사물놀이팀 꼬마풍경 등도 무대에 오르며 자녀와 부모가 한 무대에 오르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아리랑 연곡과 뱃노래 공연도 이어진다.

(054)672-1446 **정혜숙 기자**

강한 생명력 돋보이는 브르타뉴 해송 화폭에

임무상 화백 프랑스 초대전

불자 화백 임무상이 7월 27일~8월 2일 프랑스 트레가스텔시의회센터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작가는 유럽 전시 당시 들린 브르타뉴의 해송을 보고 반해 작업한 작품 중 30여 점을 전시한다.

국내에서도 소나무를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오던 작가는 이번에는 유럽까지 그 영역을 넓혀 새로운 작품세계를 펼친다. 임무상 화백은 "2013년 브르타뉴의 화강암 해안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 바람에 나무의 줄기는 휘어져 있지만 단단히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 해안의 소나무를 관찰하며 수많은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한 100여 점 중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강 임무상 화백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300여 회의 주요 그룹전 및 초대전과 한국미술세계화전(LA, 뉴욕, 파리), 한류 4인의 개성전(일본), 한국미술 12인 초대전(독일), 취리히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다. 2013년에는 파리 셀렉티브와 이태리 아타시마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임무상 화백의 '해변의 소나무' (부분도)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경계의 벽 허물 때 이성·인류애 완성

법·언어철학적 상상력 돋보이는 영화 '더 리더'

지난 해 제4회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뒤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대표작인 〈더 리더(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더 리더〉는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돼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원작에 충실했던 영화 '더 리더'는 법철학에 대한 심원한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도 그럴 게 원작자인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뒤 여러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영화 '더 리더'는 '법의 경계'라는 심원한 주제의식을 재미있고도 감동적이게 풀고 있다.

먼저,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자.

10대 소년 '마이클'은 길을 가던 중 열병으로 인해 심한 구토를 일으킨다. 이를 본 30대 여인 '한나'가 도움을 준다. 마이클은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한나를 찾아갔다가 이성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한나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기 전에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말 한마디 없이 마이클을 떠난다. 세월이 흘러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재판에 참관하려고 갔다가 피고인의 신분인 된 한나를 보게 된다. 다른 피고들과 달리 한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다만 "사건의 주범이었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부인한다. 그러나 기획서를 누가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씨를 써보라고 하자 그제야 자신이 주범이었음을 인정한다. 한나는 문맹이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마이클은 예전에 한나에게 읽어줬던 책들을 육성으로 녹음한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한나에게 보낸다. 한나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독학해서 문맹에서 벗어난다. 출소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둘은 만난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 한나는 자살하고 만다.

서사만 보자면 '더 리더'는 마이클과 한나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하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더 리더'는 과거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통합' 운운하는 현 시점에서 '더 리더'가 주는 교훈은 제법 의미심장하다. 영화(혹은 소설)의 서사 속에 용해된 독일의 과거사 문제와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마땅히 그 사회 구성원의 가슴에 맺힌 멍울을 풀어줘야 한다. '상생(相生)'의 선 과제는 '해원(解寃)'이다.

'더 리더'가 훌륭한 작품인 이유는 살아온 여자이다. 제도권 경계 밖의 사람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설령 무기징역을 받을 지라도 문맹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명료하다.

승찬·도신 스님 선문답서 보듯
구속과 해탈은 마음가짐에 달려
과거사 문제는 해원상생이 해답
경계는 배제 아니라 포용 위한 것



'법의 경계'라는 심원한 주제의식을 재미있고도 감동적이게 풀고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자 조르주 아감벤은 〈호모사케르〉라는 명저를 통해 주권자의 경계 밖에는 '벌거벗은 인간'이 있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다. 경계 밖의 인간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나치즘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놀라움은 나치즘의 가해자를 경계 밖의 인간으로 상정한 데 있다.

한나는 평생 동안 문맹인 것을 숨기며 살아온 여자이다. 제도권 경계 밖의 사람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설령 무기징역을 받을 지라도 문맹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명료하다.

"법의 경계는 배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3조 승찬 스님과 4조 도신 스님이 주고받은 선문답을 떠올리게 된다.

도신 스님이 묻는다.

"해탈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승찬 스님이 답한다.

"누가 너를 구속하는 이가 있더냐?"

"아무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속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이미 해탈한 사람일진대 어찌하여 굳이 해탈을 찾느냐?"

승찬 스님과 도신스님의 선문답에서 알 수 있듯 구속과 해탈의 경계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더 리더'는 법철학뿐만 아니라 언어철학적인 메타포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백미는 한나가 마이클이 보내준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슴 벅차하는 장면이다. 한나의 삶에서 가장 꽃 피는 시절은 마이클과 보낸 나날일 것이다. 누군가 대신 읽어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었던 한나. 한나에게는 사랑이 곧 대화였고, 대화가 곧 사랑이었다. 대화는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통로이다. 경계의 벽을 허물 때만이 사랑은 완성된다. 그 사랑은 이성애이기도 할 것이요, 인류애이기도 할 것이다.

유응오 작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5~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5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7	스승과제자,함께걷다	성재헌	(주)조계종출판사
8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9	불자로산다는것	도일	불광출판사
10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잘 있습니까?"



기별

우현 스님 지음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행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야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스승은 짧게 '내려 놓아라' 하였다."

깊고 넓은 법계에서 공존하는 자연과 부처님을 바라보며, 관룡사 주지 우현 스님〈사진〉은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냈고 여기에 선어를 보탰다.

통도사 교무국장 시절, 사보에 시와 사진을 연재한 우현 스님은 관룡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찰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시어를 엮어 차별화된 카렌다를 제작하는 등 2008년부터 지금껏 찰나를 기록해 왔다. 이 책 〈기별〉은 이를 엮은 시선집으로 스님은 아름다운 세상의 순간들을 낱낱이 담아 독자들에게 한 소식, 기별을 보낸다. 총 76개의 주제로 담겨진 〈기별〉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부처님 가르침을 정제된 언어와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찰나'를 기록화
총 76개 주제의 글과 사진 수록
정제된 언어 울림으로 다가와

"꽃 하늘의 눈물을 머금다. 눈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꽃은 그냥 그대로 후드득 지상으로 떨어진다."(연꽃중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는 연꽃을 보고 저자는 구도의 과정서 올라온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채 혼자 져버리는 안타까운 수행자의 모습을 빗댔다.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 짐을 버티고 떨쳐버리는 사람이라야만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보살의 화현으로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책 속에는 수행자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꿈이라면' 도 읽는 이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다.

"찰나의 봄날에서 영원을 꿈꾸는 것이 중생의 안목이라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의 법칙을 읽어내는 것은 부처의 안목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낮 순간의 꿈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날, 중생과 부처의 차별없는 영원한 니르바나에 노닐 것입니다."



이렇듯 간략하면서도 울림있는 스님의 일상 속 글귀와 사진은 불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자연속에서 수행자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자는 구도자의 길을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했다.

"많은 붓다께서 길 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이야기하였다. 하여 가을 초입이 어느날 산들바람과 하늬구름과 두발로 걸었다."라고

스님의 시는 운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선어 같다. 읽고 난 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끝맛이 명징하다. 특히 '영원한 찰나' 는 더욱 그렇다.

"아쉬운 마음에 여즉 가을을 보내지 못했건만 첫 눈이 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 감추지 못해 그대를 붙잡아 두려 하지만 그대 어느새 찰나가 되었구려. 그러나 걱정마시오. 내 마음엔 그 모습 영원이 되었으니…."(영원한 찰나)

불법의 길에서 자연과 함께 걷고 있는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다보면, 어느덧 따뜻한 '성정의 부처' 를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에서 '행복' 으로 자신의 마음에 기별을 넣어보자.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환하게 잘 있습니까" 라고.



삶과 죽음의 오래된 사유… 經典은 최고 古典

〈경전〉 〈고전〉



한 권으로 읽는 불교고전

곽철환 지음
불광 펴냄
1만 6천원

대장경(大藏經)이란 불교의 모든 경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장(經藏), 승가의 계율 및 그것에 대한 해설서인 율장(律藏), 경장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을 집대성한 논장(論藏)을 비롯해 역대 조사와 고승들의 저서와 문헌까지 포함된다.

이것을 새긴 목판의 수가 8만4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팔만대장경' 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대장경은 실로 그 양이 방대하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었음을 뜻하며, 곧 텍스트로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취사선택의 유리함이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수많은 경전 가운데 어느 것부터 읽어나가야 할지, 어떤 경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 쉽사리 책을 고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전 읽기 안내서이다. 대장경 속 수천 가지 경전들 중 가장 널리 읽히는 36가지를 가려 뽑아 그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경전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개별 경전의 내용은 물론, 대장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교 사상의 요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입문서는 우선 읽기 쉬워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의 골자를 온전히 전해야 한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 책은 대대로 불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36가지 경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경전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더불어 원문 자체가 난해해 그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거나, 좀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그 뜻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불교 입문서로서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교학과 수행에 있어 사뭇 차이를 보이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경전을 장 별로 묶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대변되는 두 가지 불교 전통을 대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아함부와 니카야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 상대적으로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불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이 외에도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주요 논서와 수행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고승들의 법어집을 통해 불교 이론이 어떻게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고, 삶에 어떠한 변화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책이 갖는 특별함 중 하나이다.

불교의 사상과 이론에 지적 호기심을 느껴 막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그것의 배경지식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개괄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입문서이다.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의 모든 것
한눈에 쉽게 읽는 불교 입문서
남·북방 불교전통 대비해 설명
초기불교 교리와 수행체계도 조망

선집(選集)의 유용함은 다량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의 기획 취지 역시 여기에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장경 속 핵심 경전의 내용과 불교 전체를 가로지르는 사상의 근간을 배우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수준의 불교 공부를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책머리에 불교 공부법에 관한 짧은 조언을 남겼다.

"불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앎' 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자는 약이 아니라 처방전일 수밖에 없으니까. 불전을 읽다가 자신에게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되새기고, 여러 수행 가운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 학습의 요점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종합처방전이다.

독자는 잘 정리된 이 처방전을 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법 혹은 수행이 무엇인지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는 이거다 할 유일한 정답이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할 순서도 없다. 어떤 사람에겐 초기 경전의 말씀이 와 닿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승 경전, 혹은 논서나 법어집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꾸준히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저자가 밝히듯 불교 학습의 요점은 지속적인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고전(古典)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작품' 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처음 기록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간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 폭넓게 읽히는 책을 말한다.

이러한 책들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예컨대 삶과 죽음에 관한 물음 같은 것들 말이다. 끊임없이 새것에 열광하는 요즘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고전만큼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이 책에 '고전'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러한 고전의 의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은 출가수행자나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보는 종교 서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바라보면 '존재와 본질' '삶과 죽음' 에 관한 오래된 사유의 기록인 불교 경전은 인간이 갖는 근원적 물음을 가장 첨예하게 탐구한 텍스트이자, 전(前) 인류가 남긴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수 천 권의 경전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모두의 내면에 자리한 공통의 물음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경전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주제로 삼아 쓰인 전집이다. 그리고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은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간추린 고전 도서 목록이다.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14,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불교 근간되는 점안의식… 교리와 사상, 수행법 등 총 망라

불상점안의식 연구
점안의식집

해사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3만원



▲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교의례의 핵심은 귀의의 대상인 불법승 삼보에게 예경과 찬탄, 그리고 공양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는 소례(所禮)인 불상을 한낱 조각품이 아닌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를 갖춘 완전한 부처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불상이 불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성물에 불과하다면 법당 불상에 예를 갖추고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례는 그야말로 우상숭배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불교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모든 불교의식을 의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점안의식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불교의식은 부처님을 모시고 거행하는데, 이런 예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점안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안 의식에는 불교의 교리와 사상, 수행방법과 목적 등이 총 망라돼 있어 불자들의 신심 고취는 물론 방향성까지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도 모든 의례가 가능한 일차적 의식이라는 점에서 불교의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책은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작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또한 저자인 해사 스님〈사진 ·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4년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다.

의식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각각에 맞는 의식들이 발전했으며, 불교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이 시행된다. 불교에서 의식은 법회 목적과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데, 전문 의식에서는 상징성과 압축성으로 인해 그 의미와 절차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또한 의식과 전통에 권위가 부여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책은 점안의식이 불상이나 불화가 진정한 불보(佛寶)가 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식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점안의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의미를



불상 점안의식 체계적으로 서술
2014년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논문
"점안의식 거쳐야 조각 · 그림 佛格"

파악해 올바른 점안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술됐다.

이 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를 개괄하는 제 1장에 이어, 제 2장 '불상점안의식의 배경과 사상' 에서는 불상점안의식의 사상적 기반과 특성 · 의의 등에 대해 고찰한다. 즉 초기대승경전의 다불사상과 대승불교의 삼종삼보, 삼신불 사상 등의 고찰을 통해 사상적 기반을, 태장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 제존의 의미, 점필에 나타난 사상 등을 통해 그 특성을, 나아가 점안의식이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 '불상점안의식의 전개' 에서는 불상의 기원과 점안의식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 점안의식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며, 점안의식과 다른 의식들의 특징과 의미를 비교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점안의식은 조탑점안, 나한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신중점안, 산신점안, 불상점안 등이다.

제 4장 '불상점안의식의 작법 절차' 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먼저 점안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불단이나 법구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점안의식 전에 시행되는 〈삼화상청〉과 〈신중작법〉의 의미와 내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 점안의식의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를 엄정의식 · 결계의식 · 건단의식 · 소청의식 · 점필의식 · 관불의식 · 장엄의식 · 공양의식 등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아가 점안의식에 사용된 범패와 작법무, 점안의식의 수인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특히 수인의 복원은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즉 현재 한국불교서 통용되는 〈점안의식문〉에 수록되지 않는 불보살의 수인을 경전과 도상집, 의식문을 토대로 새롭게 찾아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15세기에 제작된 〈진언집〉서부터 근대의 〈석문의범〉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식집을 분석 종합해, 여법한 작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한낱 조각품서 성스러운 귀의처, 부처님으로 격을 바꾸는 점안의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찰하고, 점안의식이 부처님을 우리 곁으로 모시는 절차임과 동시에 각자에 내재된 자성불에 점안하는 의식임을 밝힌다.

저자인 해사 스님은 "이 책이 불상점안의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나아가 그 중요성과 의미에 걸맞은 여법한 의식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책 출간 취지를 말했다.

▲ 점안의식집

점안의식은 조각이나 그림을 성스런 예배 대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의식이다. 즉 점안의식을 거쳐야 조각이나 그림이 불격(佛格), 부처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경, 즉 불교의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불교의식서 점안의식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전래된 의식문에서의 점안의식문들을 토대로 현행 점안의식을 보완해 각종 점안의식들을 보다 여법하게 집성, 편집했다.

불자들은 불상이나 불화 등을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예경을 올린다. 그런데 조각품이나 그림이 어떻게 예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점안의식에 있다. 이를 통해 조각이나 그림이 불보(佛寶)로 격상된 것이다. 그 만큼 점안의식은 모든 의식의 근간이 되며, 따라서 점안의식이야말로 가장 여법하게 치러져야 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점안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상점안의식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고, 점안의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저자는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점안의식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보다 여법한 〈점안의식집〉을 편집했다. 또한 〈대정장〉서 다라니에 맞는 수인들을 찾아 보완했는데, 의식에서 신구의 삼밀(三密)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하나인 신밀(身密)의 수인을 보완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렇듯 편자는 점안의식의 여법한 작법 절차를 위해 전래된 기존 의식집들, 즉 〈진언집〉 〈청문〉 〈권공제반집〉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대다라니진언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제의범음산보집〉 〈조상경〉 〈작법귀감〉 〈점안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에 기록된 점안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현행 점안의식에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각종 점안의식들을 제시한다. 즉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김주일 기자

조선의 승려, 조선 불교의 근대화를 꿈꾸다

조선불교유신론

만해 한용운 지음, 최경순 옮김
민족사 펴냄 | 2만 3500원



〈조선불교유신론〉(1913년 불교서관)은 만해 한용운의 저작으로, 당시 조선 불교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혁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조선불교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책이다. 이번에 최경순씨가 새롭게 번역한 이 책은 기존의 번역들을 월등히 뛰어넘는다.

Ⅰ장은 〈조선불교유신론〉의 해제이다. 역자는 저자 한용운의 생애와 저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고찰했다. 또 〈조선불교유신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만해 사상의 근간이 된 량치차오(梁啓超)와 사회진화론에 대해서도 살폈다.

Ⅱ장은 〈조선불교유신론〉을 번역한 부분인데, 한용운은 조선불교 개혁을 토로하고, 불교는 미신이 아니라 고금동서의 모든 철학을 종합 · 포섭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이상(理想)은 평등주의 내지는 구세주의(救世主義)에 있는 것으로 이는 서양의 자유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역설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선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탱화와 번잡한 의식들을 버려야 하고, 승려도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원의 주지 선출 문제, 교단 조직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Ⅲ장은 〈 '조선불교유신론' 의 번역과 그 연구(부제: 만해학(萬海學)의 '빛과 그림자' 〉)이다. 여기서 역자는 '조선불교유신론' 의 새 번역의 필요성과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만해의 일본행이 만해 사상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했다. 부록에는 '조선불교유신론' 의 영인본이 실렸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애송시 〈님의 침묵〉의 첫 구절이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이 식민지하에 있던 1926년 당시, 민족 독립에 대한 희망을 '님의 침묵' 이라는 시로 형상화했다. 이 시는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낭송되고 있다. 한용운은 1896년, 18세의 나이로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해 승려가 되었다. 오세암에서 그는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고 선(禪)을 닦았다. 이후 세상사에 대한 관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 후 1905년에 재입산해 설악산 백담사서 연곡(連谷)을 은사로 정식으로 득도했다. 1908년에 금강산 유점사서 공부하다 마침 금강산에 방문한 일본 불교 조동종(曹洞宗) 관계자들의 후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5월부터 약 6개월간 조동종대학(현재의 고마자와대학)에 입학해 불교와 서양철학 등을 배우며 새로운 문물을 익혔고, 조선인 일본유학생들과도 교류했다.

옛말투를 한글 문장으로 옮겨
서양인명과 지명의 원어 밝혀
만해 본문서 인용한 문장 출처 소개

만해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약 6개월간 일본 불교계를 견문했던 경험에 있다. 이 시기에 일본 불교는 이미 매우 발전해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불교대학, 불교유치원, 포교당, 복지시설, 출판사 등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만해는 이런 발전상을 보면서 조선의 열악한 불교 현실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근대화의 주장이 풍미하고 있었다. 만해는 일본 불교계의 이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란 '우물' 을 벗어나 세계를 여행하고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 불교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번역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번역투의 일관성이다. 〈조선불교유신론〉 원문은 한글 토나 조사만 한글이고, 그 한글의 문투도 '~하니라' , '~하랴' , '~하나니' 등 옛 말투로 되어 있다. 이원섭 번역본은 원문의 한자 부분을 비교적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 반면, 한글의 문투는 현대어법과 원문의 옛 말투를 살린 대목이 섞여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옛 말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문장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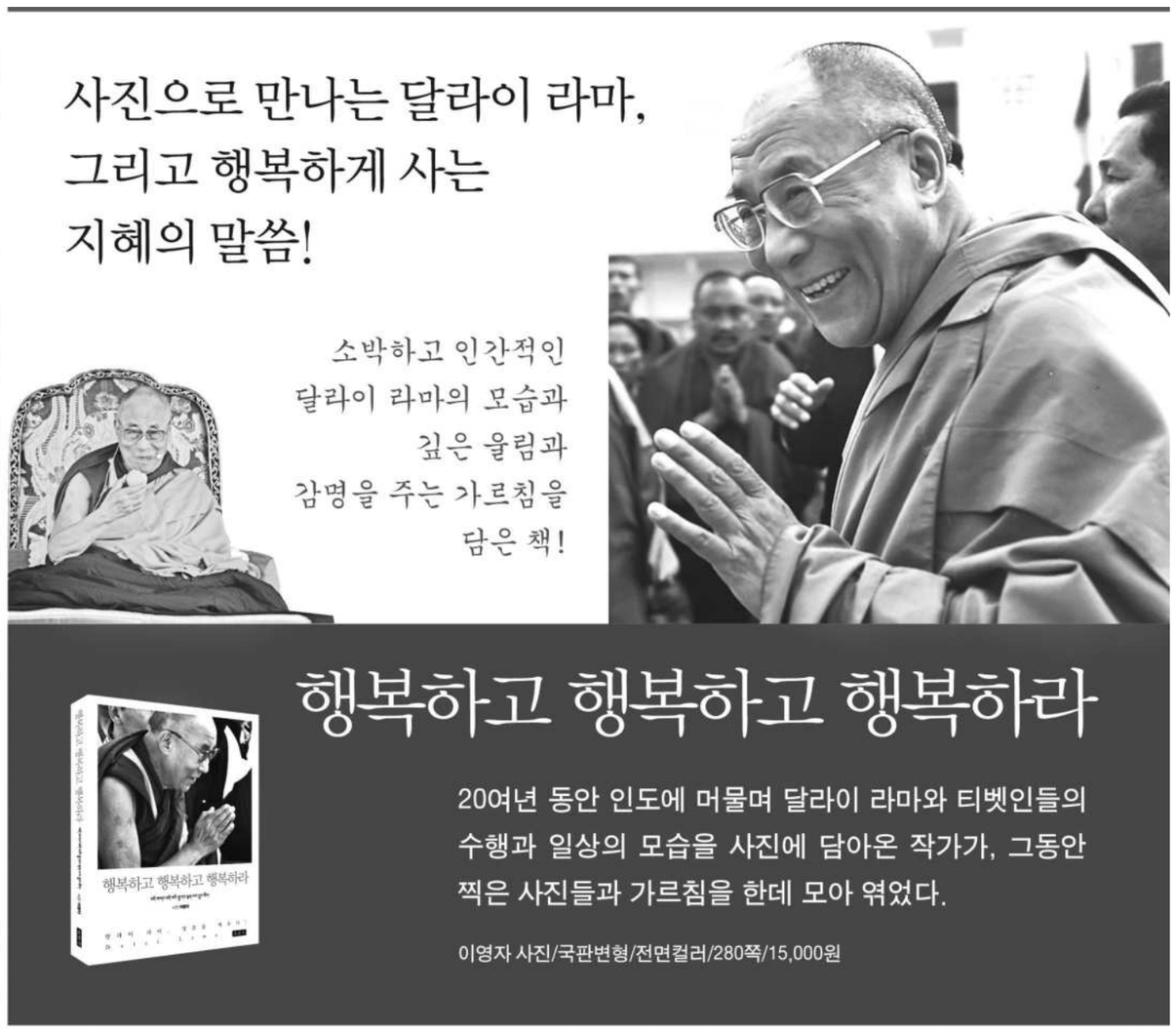
둘째는 원문의 인명과 지명 확인이다. 이원섭 번역본은 〈조선불교유신론〉 원문에 자주 등장한 서양철학자의 인명이나 지명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대목이 많다. 그런데 이번 번역본에서는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에 사용된 서양인명과 지명의 원어를 밝히는 한편, 이원섭 번역본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바로잡았다.

셋째는 원문 출처에 대한 확인이다. 이원섭 번역본의 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조선불교유신론〉 본문 가운데서 만해가 인용한 문장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해의 문장은 문체나 서술 스타일, 용어 등 상당수가 량치차오의 글에서 인용한 대목이 많다.

앞서 지적한 서양인명과 지명 문제도 이와 연관이 있는 셈으로,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서 서양철학자를 언급한 부분은 거의 량치차오의 문장서 가져온 사실만 보더라도 만해 문장의 주요 출처가 량치차오의 글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원섭 번역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게 역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번역본은 기존 번역본과 달리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의 단순 해석을 넘어, 만해가 본문서 인용한 문장 출처를 가능한 찾아 밝히고, 인용문과 원문 간의 변형 등에 대한 텍스트 비판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의 도래… 동아시아를 변화시키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프롤로그– 불교, 동점의 여정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지금까지 약 2,500년 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세계종교이자 뛰어난 철학 체계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해 왔다. 불교는 이들 지역 사람들의 사유와 심성, 신앙과 내세관, 수행과 실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를 창출하였다. 불교는 붓다에 의해 제시된 사상적, 수행론적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이후 수많은 거장들의 노력에 의해 변화, 확장된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인간의 근원적 고통 해소와 생사윤회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하는 실천적 종교이다. 붓다는 삶과 존재의 핵심적 가치를 꿰뚫은 선각적 사상가이자 수행자였고, 그의 가르침은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중생구제의 실천적 삶을 여는 상생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붓다가 살았던 기원전 5~6세기는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 맞이한 인문의 여명기였다. 이 시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의 개화기이자 공자를 위시한 중국의 제자백가가 출현한 때였다. 당시 그리스와 인도, 중국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일왕조의 전제군주가 아닌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이나 공화정의 경쟁, 제후들에 의한 정치적 각축전이 펼쳐졌다. 이에 다양한 정치 · 철학 · 종교적 주장이 분출되었고 많은 혁신적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인문학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일군의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대표자 중의 하나가 바로 붓다였다.

붓다가 되기 전의 고타마 싯다르타는 기원전 560년경 현재 네팔의 남부지역에 있는 룸비니에서 사캬부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부친은 카필라국의 국왕인 숫도다나(정반왕), 모친은 마야부인이었다. 탄생 직후 현인들이 와서 그가 전륜성왕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에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의 싯달타로 이름을 지었다. 부왕은 아들이 자신을 잇는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랐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의 고통이나 추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궁궐을 빠져나가 생로병사의 현실과 삶의 고통을 목격한 사문유관을 경험하였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29세에 출가를 단행한 후 6년간 고행을 하였는데 고행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 설산에 들어가 홀로 수행에 정진하였다.

마침내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은 궁극의 지혜를 얻어 깨달은 이인 붓다가 되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정법인 다르마에 대해 검증하고 확신한 후 7주가 지나 설법을 결심하였다. 붓다가 처음 설법한 곳은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법의 수레를 처음 굴린 초전법륜을 행하였다. 전에 함께 고행을 했던 다섯 수행자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설하자 이들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 첫 제자가 되었다. 이로써 붓다와 다르마, 불제자가 갖추어진 불법승의 삼보가 성립되었고 무소유와 평등, 화합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교단이 출현하였다. 붓다가 깨달은 다르마의 내용은 현상세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한 12연기, 미혹과 깨달음에 대한 진리인 고 · 집 · 멸 · 도의 4성제, 고와 락의 중도를 통해 열반에 드는 바른 길을 제시한 8정도, 다르마의 세계를 구조화한 제행무상 · 제법무아 · 열반적정의 3법인, 물질과 그에 대한 인식 등 현상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분석한 색 · 수 · 상 · 행 · 식의 5온을 핵심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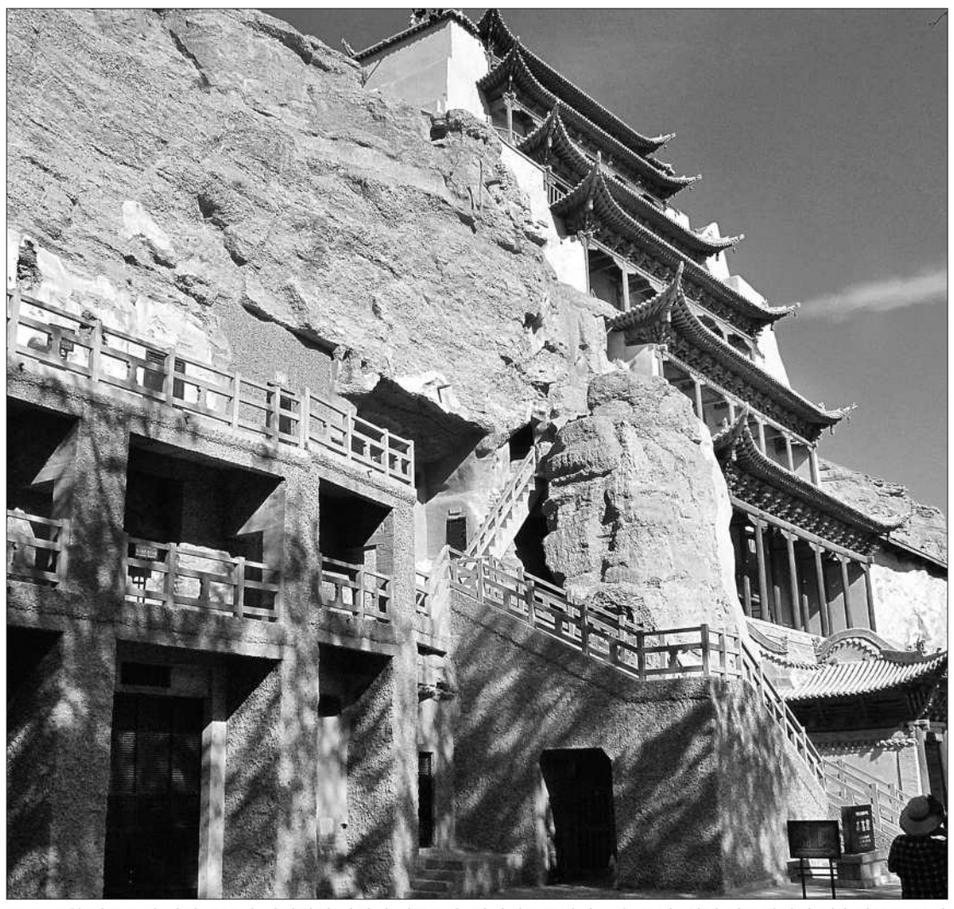
붓다의 지향점은 철학적 논변이나 진리 자체에 대한 맹목적 탐구가 아니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현실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해탈을 얻는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실천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화살과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한 분석보다는 화살을 맞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독화살의 비유처럼 고통의 질곡에서 허우적대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붓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붓다는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과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학적으로 명쾌한 규정을 내리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누구나 스스로가 답을 찾게 하였다. 붓다는 80세에 쿠시나가라에 이르러 열반을 맞이하였고 이때 슬피 우는 제자들을 향해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한다. 슬퍼하지 말고 법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삼장의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삼장은 '여시아문' 으로 시작되는 붓다의 말씀을 수록한 경장, 계율을 기록한 율장, 경전과 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모은 논장을 가리킨다. 1차 결집은 붓다의 열반 직후 마하가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아난다, 우파리의 기억과 암송에 의해 경장과 율장이 성립되었다. 2차 결집은 붓다 열반 후 약 100년이 지나 아난다의 제자 야사가 소집하였는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율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고 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었다. 3차 결집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아쇼카왕 때 목갈리풋타팃사의 주도로 열렸고, 각종 논서들이 논장으로 집성되면서 삼장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 시기까지를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라고 하고 이후 부파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철학적 이해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부파불교가 철학적 교리 논쟁에 빠지고 출가자 중심의 승원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실천수행과 신앙에 대한 대중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혁신적 신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대승불교의 출현이었다. 대승불교는 재가신자 중심의 사리공양과 불탑신앙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일찍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부파의 교리와 활동에 근거한 출가자들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예불과 중생구제를 특징으로 하는 대승경전의 성립과 불전문학 및 구전 설법사의 등장도 불교의 신앙화, 대중화가 가속화된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대승불교의 대승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커다란 수레라는 의미로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나 철학이 아닌 보다 많은 중생과 함께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이타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말 속에 그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로 인해 대승불교 측에서는 기존의 부파불교에 대해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소승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았고 이는 인간이 붓다가 되는 역사이자 과정이었다.

대승불교가 이전의 불교와 달라진 점은 첫째, 붓다관의 변화로서 중생 구제를 위한 붓다의 본원과 자비가 강조되고 붓다는 교화와 구제의 주체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었다.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 보살이 공덕을 쌓아 성불한 존재인 보신, 중생의 제도를 위해 현세에 나타난 화신의 삼신관이 대두하였고 과거, 현세, 미래의 삼세불이나 온 우주공간에 편재한 사방불이 등장하여 시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부처가 출현하였다.



중국 돈황 막고굴의 전경. 336년 건립되기 시작한 막고굴은 위진남북조와 수, 당, 오대,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불사가 진행된다. 서쪽에서 발현된 불교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문화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원전 1세기 새로운 불교운동 '자리이타' 대승불교 개념 정착 後漢시기에 중국으로 불교 전파 윤회 · 업 등 내세관, 東亞에 영향"

둘째, 보살과 그 수행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대승의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 실천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을 의미하였다. 또한 보살은 붓다의 지혜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적 주체였다.

셋째, 대승경전의 성립으로 1세기 이전에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정토 관계 경전이 등장하였고 2~5세기경에는 여래장경, 열반경, 해심밀경이 대두하였으며 6~7세기에는 대일경, 금강정경과 같은 밀교 경전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대승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중관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등이 나와 철학적 깊이를 더하였고 인명학과 같은 불교논리학도 발전하였다.

대승불교 성립 직후 불교는 언어와 세계관 등에서 전혀 이질적 세계인 중국에 전래되었고 문명사적 충돌과 문화와 사상의 변용을 초래하면서 동아시아인의 삶과 죽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중국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이 전해졌고 인식론, 존재론 등의 사유방식과 심성 이해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윤회와 업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내세관이 중국 문명의 현세지향적 세계관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불교는 전래 직후부터 유교, 도교와 같은 중국의 토착사상과의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이후 상호간의 영향과 적대적 변용을 거치면서 중국 문명권에 수용, 정착되었다.

기록상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1세기 중반 후한의 명제 때이다. 명제가 꿈에서 황금빛 사람을 본 후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서역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이때 서역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사십이장경〉 등의 경전과 불상을 흰 말에 싣고 왔고 한의 수도 낙양에 중국 최초의 사원 백마사가 창건되었다. 앞서 기원전 2세기 후반 한의 무제는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족을 격퇴하고 장건을 시켜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개척하였고, 이를 통해 기원 전후 무렵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은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북에 각각 왕조를 세운 남북조시대의 혼란기를 거쳤다. 이에 현실적 고난 극복과 종교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커졌고 도교와 함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불교 도입 초기에는 도교의 황로신앙에 의거해 붓다를 죽지 않는 불사의 신으로 여겼고 불로장생과 복을 비는 신앙으로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도교 등과의 경쟁과 접목 노력은 불교의 중국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자가 인도로 가서 붓다가 되어 교화를 펼쳤다는 노자화호설이나 공자, 노자와 같은 중국의 성인이 원래 붓다의 제자였다는 삼성화현설이 대두하기도 했다.

한편 여산 혜원(344~416)은 법신인 붓다의 영원성을 전제로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신불멸론을 주장하여 업과 윤회의 관념이 중국에 정착되는데 기여하였고 백련사 결사를 조직하여 정토신앙을 선구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그는 출가자인 승려가 세속의 군왕에게 예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문불경왕자론' 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가권력과 교단의 분리는 동아시아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교단이 왕권과 국가권력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불교의 중국화나 토착화는 이질적 언어로 쓰인 불교 경전의 한역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불전 한역은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가 중국에서 확산되는데 필수적 전제였다. 초기에는 불교의 난해한 교리를 중국적 개념을 차용하여 이해하고 번역하는 격의불교의 단계를 거쳤다. 예를 들어 대승사상의 핵심 개념인 공은 영속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한역 초기에는 없다는 의미의 무로 번역되었다. 이후 구마라집, 진제 등 불전 한역의 거성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불교 경론이 거의 한역되었고 불교교학과 대승사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졌다. 그로부터 다양한 교리를 연구하는 학파와 교단 조직을 갖춘 종파가 성립되었고 수당 시대에 불교의 중국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김용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석 · 박사를 받았다. 전공은 한국불교사 중 조선과 근대이다. 저서로는 〈Glocal History of korean Buddhism〉,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가 있다. 현재 동국대 HK교수 및 한국불교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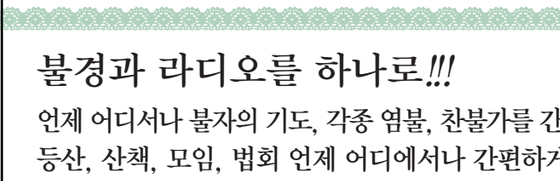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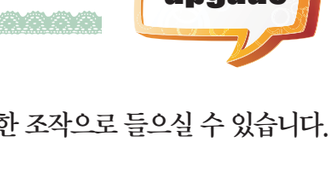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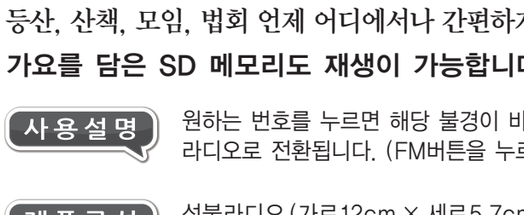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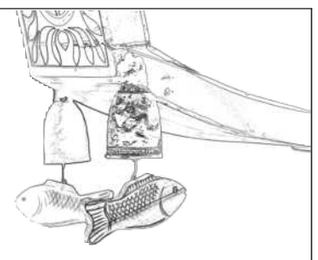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미륵불(대형)
알 림
010-4630-8005

정확한 방편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정확한 방편술을 숙지해
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대한불교조계종)
055-574-2882
010-3501-02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사찰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서창)
010-8503-5037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373-112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산중 조용한 암자)
010-4484-5758

원하는대로 이루는기도비법
• 내공도법을 익히면 신장도 부릴 수 있습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구성학+현공풍수양택 7월 지역별 강의일정
■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5일 수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2일 수요일 오후1시-5시(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3일 목요일 오후1시-5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 현공풍수양택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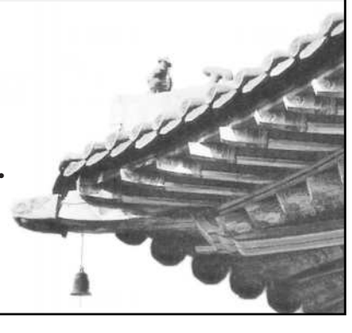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 모 집 : 수시 모집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리자 (유리자동서), 옥룡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 흠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 발각정심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 내 대형 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땅(전) 721평, 평당 45만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땅(답)1070평, 평당 50만원
  춘천시내에서 20분거리
- 최고의 명당터임

011-823-35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 상담
  방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부지:60평
◎ 법당:40평,교통편리
◎ 요사:60평
◎ 양도:9억7천
◎ 위치:서울 포교당
◎ 면적:60평,2층/3층
◎ 보:2000만,월120
◎ 시설비:2500만원
◎ 교통편리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사찰 급 양도
* 법당 69㎡, 요사채 73㎡, 토지 850㎡
* 논산훈련소부근 사찰. 주차장 있음
* 인수가 7천만원(융자5천만원 별도)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마 산 암 자 안 내

- 위치 :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삼존불,용왕당,에어컨 등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800만원,월세15만원
  (주변임야 활용가능)

010-7169-9878

작은암자(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대지 100평, 건평25평, 실평수 35평정도
- 신축 목조주택 임법당, 몸만오시면 됨
  불사 완벽하게 했습니다
- 동네끝집 절옆으로 조용한 차도로 있음
- 가격은 1억 9천 정도이나 직접와 보시고 형편대로 절충하셔서 상의하십시다
  대출 6천정도 됩니다
- 꼭필요하신 분께서만 전화주십시요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전원주택-사찰 양도,차판판매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 대지 약 600평 주거건물 및 창고 포함
- 입주 후 바로 생활 가능
- 별장으로 최상. 가야산 정상 조망
  수도자분께도 최적의 장소
  텃세없고 조용한 마을
- 개인소장 차판 판매(벚개맞은 나무. 기목. 괴목. 대추나무 등) 기암괴석
- 고가구 판매 • 가액 : 3억5천

010-8880-89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산세좋고 물 맑은 곳
  기도하기 좋은 사찰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3억 2천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관음전,종각, 요사채
- 방총13칸,공양간,창고,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건물 총13동
- 대형버스 5대주차장,
  소형차주차장 20대 등
- 가액 : 3억 9천만원(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교당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격 : 보증금 300백, 월50만
  보증금 포함 1천 5백만원
  방문 후 가격절충
- 은사스님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9071-60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토굴(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액 : 1억 1천만원

010-9183-0654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502번지
- 토굴터 396평
- 가액 : 25,000,000 원정

010-8852-1479

큰사찰및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33,330㎡), 평당 10만원
- 답사후 결정, 주인 직접
  현재 사찰 운영중
  (개인 분할 등기 진행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 건물,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 거리

010-3879-25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 (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 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 4, 화장실 2, 목욕탕 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 숨겨진 보물이 2개 있음

010-2461-3014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주 인근, 옥과면
- 사자봉 적송림 7부능선
- 산 : 1만2천평, 종교부지 650평
  노천 약사석불12자,
- 건물 : 조립주택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인근, 초중고,대학교있음
- 가액 : 3억 7천만원, 조건부협의가능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 3층 법당 35평 삼존불
- 요사, 공양간, 화장실 등
  15년간 운영 급양도
- 보증금 : 천만원
  시설비 천만원

010-6616-004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3층 중 2층 법당
- 주방 스님방 욕실
- 삼존불, 소불 108
  친견 가능한 스님 및
  보살 안성 맞춤
- 가액 : 보증금 1천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남산로
  (무거동 태화강변)
- 평수 40평, 큰방2, 공양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2259-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군
  대산면 모산리
- 대지1,001㎡, 법당20평 외 건물 4동
- 특징 : 스님, 보살님,
  명리철학 하시는 분 적합
  일반인도 가능, 교통편리,
  주차공간 많음, 텃밭 있고
  마을 안에 있음. 집기류 일체 양도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5억(절충)

010-8988-34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매매금액 3억)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10,000원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아양교
- 삼존불 외 지장불
- 가액 : 총 2,500만원
  (월세 300만원 35만원)

010-4474-820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총 1.250평
- 법당 30평
- 요사3동 75평
- 가액 : 2억원

011-370-590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과 교통요충지
- 평수 35평 3층 건물, 방1, 주방1, 옥상 30평 이용가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탱화
  영가단 및 앰프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주방, 집기일체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몸만오시면 됨
- 소임 관계로 부득이 양도코저 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
  시설비 2,200만원 보시면 깜놀

010-3813-61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최고 명당터
- 건물 근린시설 총 300평
- 지하1층, 1층, 2층, 3층(포교원)
  각층 75평, 대지 130평
- 가액 : 7억 5천만원(융자 3억가능)
  ※ 월 임대수익 220만원 이상 가능
- 3층 포교원만 매입시
  가액 1억 8천만원
- 시설 완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43-845-812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수원시 정자동
  (대단지 아파트 상가)
- 면적: 32평(3층 중 2층) 시설최상
  시설 일체 완비
- 양도 :1억 6천 (대출 4천포함) 시설비포함
- 전세 7천5백 (보증금4천5백 시설비3000)
  월세 : 보증금 4천 월45만원
-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동
  576-11번지
  부산 온천장 중심
- 3층 약 50평
- 삼존불에 모든시설 완벽
  모든시설 완벽 최상, 방2개
- 시설비는 거의 없음
- 직접만나서 절충,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세50만원

010-1010-4070

토 굴 안 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촬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주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사 찰 안 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서울시 노원구, 건평: 40평중
- 4층 : 법당, 5층 : 요사채
-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 협의후 절충 가능
- 주변이 산과 아파트 단지로
  20여년 운영중입니다

010-5237-0408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5〉 잘못된 삶은 없다 ㊤

지혜로운 대화의 시작 '고귀한 침묵'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너무 많이 말하기
너무 빨리 말하기
깨달음을 자랑하기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기
상대방을 무시하며 말하기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 다이구 료칸 〈나의 계율〉에서

말하기 전 여과 연습

만성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같은 만성병 환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낸다는 주제는 곧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삶에 가장 큰 고통을 가져오거나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행동은 몸의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바로 입이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붓다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말을 다루는 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과 편지, 글로 쓴 그 밖의 메시지를 포함한 말하기는 만성병 환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게 만들 수도 있고 환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소외시킬 수도 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혜로운 대화법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진실하게, 좋은 의도로, 도움이 되도록, 애정을 담아,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공식으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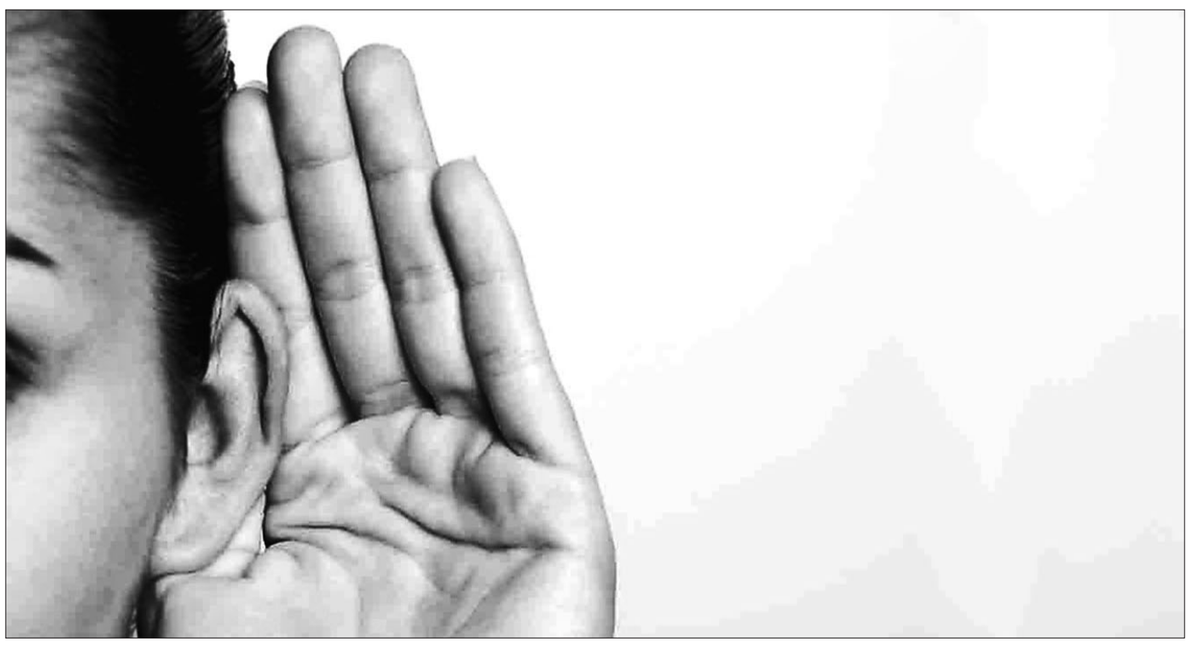
'해야 할 말이 진실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될 때만 말하라.'

모든 말을 진실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이 세 가지 성질을 기억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지혜로운 대화법을 연습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 장의 도입부에 소개한 선시에서 료칸 조차도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한 자신의 계율 목록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한다. 이따금은 내가 진실하지 않게 말할 것이고 불친절하게도 말할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화법을 연습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 아니면 실패의 계명으로 만들 때와는 달리 스스로 부족한 경우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말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연습'은 효과를 불러오는 말이다.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을 입 밖으로 내거나 이메일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의 말이 진실함과 친절함과 도움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하게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해질 수 있다.

이 요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기는 쉽지만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한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에 대해 친구와 맞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라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친구와 맞서려는 의도를 "어떻게 지내?"와 같은 질문의 의도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소통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말로 변할 것이다. 친구가 회사 일이나 집안 문제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우리가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비심을 갖고 도움을 주면서 대응할 기회가 된다.

만성병 환자가 된 후 나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연습할 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병과 내가 시도한 치료법 전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 다섯 해 동안은 새로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새로 나온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그 내용을 이메일에 길고도 자세하게 적어서 아들 자말과 딸 마라 그리고 한두 명의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 답으로는 보통 응원의 글 몇 줄을 받았다.

절친한 사람들이 내 병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심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세한 설명들은 진실함이라는 붓다의 시험에는 통과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서 그것이 받는 이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렇다, 나는 아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제 몫의 고통이 있다. 우리의 오랜 친구인 첫 번째 고귀한 진리 말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는 지혜롭게 대화하지 못했다. 만약 자말이 끊어질듯 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거나 마라가 매일 처리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로 엄청나게 바쁘다면 내 편지를 읽고서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친절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 편지는 의학 용어들과 내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가득한 기나긴 이메일이었다. 병이 나고 다섯 해가 지나서야 내가 지혜로운 대화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대화법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나자, 내가 항상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모두를 위해 더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질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로운 대화법이라는 개념에는 붓다가 고귀한 침묵이라고 표현한 것도 포함된다.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전문의와 새로운 치료약에 대한 경험을 전부 설명하는 일을 그쳤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흥미와 즐거움을 가져올 이야깃거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 병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다.

예를 들어 한번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다. 나는 자말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어느 일요일에 전화를 걸었다. 감기에 대해 말하려는 의도로 입을 열었지만 이내 말을 멈추었고 그 대신 자말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우리는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감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대화에 만족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덕분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는데 자말의 기분도 좋아졌기를 바란다.

삼가야 하는 네 가지 대화

같은 문헌에 따르면 지혜로운 대화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거짓말, 편을 가르는 말, 남을 욕하는 말, 그리고 잡담을 삼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앞의 세 가지는 그 이유가 명백하지만 마지막 것인 잡담은 조금 미묘하다. 붓다는 잡담을 경계했다. 잡담이 종종 악의적인 수다를 포함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잡담은 하찮고 의미 없는 말이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에서, 이를테면 자애와 깨어 있는 마음과 지혜를 기르는 일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시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악의 없는 수다조차도 고통의 근원인 질투심이나 그 밖의 마음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잡담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고백할 것이 있다. 사실 이러한 잡담은 병이 난 이후로 내가 가장 그리워한 대화의 종류였다. 때로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소한 일화를 나누며 몇 시간 동안 잡담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를 바란다. 잡담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늘 심각한 문제만을 화제로 삼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고통과 혜택 '입'에서 비롯**
> **대화 전 진실 · 친절 · 도움 고려**
> **지혜롭게 '말 여과하기' 연습**
> **때로 말하기보다 '듣기' 중요**

내 추측으로는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좀 더 자주 잡담을 나누는 호사를 누리길 소망할 것이다. 토니와 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토니는 한때 동네 대표로 뽑힌 적이 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서 다른 곳을 가기란 토니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이었다. 나는 토니가 바깥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나에게 전부 말하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로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토니는 한 가지 반복되는 경험만은 내게 이야기했다.

식료품 가게 복도에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는다.

"부인은 어때요?"

토니는 내가 더 좋아졌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전과 비슷해요."라고 대답한다. 자신이 아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말해도, 가능한 한 짧은 대답이 되도록 계산한 이것이 알고 보니 대화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었다고 토니는 말했다. 식료품 가게 복도에서 토니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주제는 그것이 비록 잡담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지역 정치 문제나 서로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심지어 날씨까지도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아프다는 사실은 그 복도에 놓인 코끼리와도 같아서 이 동물을 비켜 가기란 무척 어렵다.

의심할 여지없이, 토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살피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곤경에 처한다. 우리는 토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재빨리 물어봄으로써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다.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했다. "예전과 비슷해요."라고 대답하자마자 서로의 가족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사적인 주제로 말을 돌리려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다. 토니가 말하길 그것은 좀 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잡담을 경계하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음 주 계획이 무엇인지 혹은 다가오는 국민투표에 대한 잡담은 최악의 경우라 해도 대개 중립적이다. 그러나 잡담에 대해 붓다가 우려한 핵심은 그것이 편을 가르거나 남을 욕하는 말로 쉽게 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

'편을 가르는'과 '남을 욕하는'의 반대말은 각각 '화합하는'과 '진심어린'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화합을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넬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자애심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대화법은 네 가지 고귀한 마음 상태의 발전과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질 수 있다. 편을 가르고 남을 욕하는 말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의 근원인 질투심과 분노, 억울함이라는 마음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만성병 환자에게는 육체적 고통을 보태기 때문이다.

편을 가르는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의 훌륭한 해독제는 '참을성 있게 견디기'이다. 참을성을 키우면 우리는 느긋해지고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된다. 세상 밖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그것이 진실함과 친절함과 도움이라는 성질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지혜로운 대화법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어떤 날에는 료칸의 목표 중에서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지 않기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라는 몇 가지 요건만 만족시킬 수 있어도 나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내 기억해 낸다. 붓다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깨달음과 깨어남, 해탈과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행으로 생각했음을. 이를 염두에 두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말만 써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나는 몇 배의 노력을 다시 기울인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곡사
• 주 지 : 관묵(이규학)
• 주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37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재)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지난주 광고의 날짜를 변경합니다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21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8월 8일(토)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goodname114.com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 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좋은 습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용돈은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쓰겠어요

I will make a plan for how to spend my allowance.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Bill Gates, 1955~)가 몇 해 전, 캐나다의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입니다. 사회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자녀들에게 용돈은 얼마씩 주나요?"

"일주일에 1달러씩 줍니다."

"큰 딸은 15살인데 용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대신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법니다. 아이들이 헤프게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지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기 쉽지요."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하는 것을 척척 사 줄 수 있는 부자가 청소년인 자녀에게 한 달에 5천 원도 안 되는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석유를 통해 큰 부자가 된 미국의 록펠러 가문도 철저한 용돈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록펠러 집안의 어린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3등분해서 용돈, 저축, 기부에 각각 써야 했습니다.

용돈기입장을 꼬박꼬박 잘 썼으면 보상으로 용돈을 조금 더 주었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꼬박꼬박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친척들이 주는 용돈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용돈을 받는 형태는 달라도 공통적인 점은 우리가 받는 용돈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도 이곳저곳 쓰다보면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돈을 써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돈을 나눕니다. 큰돈이 생겼다고 한꺼번에 써 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에는 돈이 없어 쩔쩔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규모 있게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용돈을 규모 있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지금 받는 용돈이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용돈을 가장 많이 쓰나요?
* 한 달 용돈은 얼마가 적당할지 지출 계획을 짜 보세요.

재미있는 취미를 찾아 즐기겠어요

I will find a hobby that I can enjoy and have fun with.

"말똥을 물에 담갔다가 화초에 주면 다음날 바로 꽃이 핀다."

"작약은 한 번 성내면 3년 동안 꽃을 피우지 않는다. 사람똥물을 주어서 성냄을 달래주어야 한다."

조선 초기 사람으로 세종 때 벼슬을 했던 강희안(1417~1464년)의 글입니다. 강희안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꽃과 나무 가꾸는 법을 쓴 〈양화소록〉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로 꼽힙니다.

조선시대에 선비가 꽃을 가꾸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희안은 취미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가한 틈에 향기 진한 연꽃을 대할 때, 작은 물고기가 개구리밥과 물풀 사이에서 뛰어놀 때 옷깃을 풀어헤치고 거닐거나 노래를 읊조리면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주어 공부 능률이 오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 주어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소질과 적성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간이 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 갖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가요?
* 취미생활이 주는 이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러분이 꼭 익히고 싶은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고쳐야 할 습관이 있나요? (어떤 것인가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겠어요

I'll develop healthy living habits.

독일의 유명 철학자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년)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히 칸트의 산책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태어난 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칸트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똑같은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칸트의 지팡이 소리가 나면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칸트의 지팡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칸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보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칸트는 〈에밀〉이라는 책에 빠져서 산책 시간을 잊었던 것입니다. 칸트는 어려서는 몸이 매우 약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습니다.

칸트의 예에서 보듯이 습관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립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성인병을 치료하려면 당장 습관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들인 습관은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익힌 좋은 습관은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빙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벽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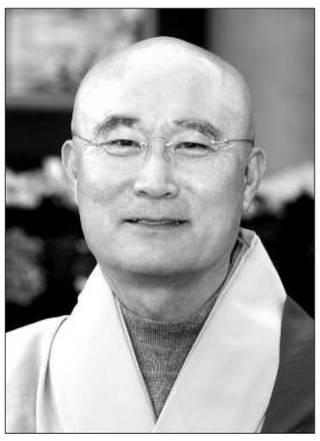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대구) 1899-9532

미주 전법순례를 마치고

해외전법 네트워크 구축, 시급한 과제



지원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포교원에는 10개의 전법단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병원, 교정교화, 경찰, 군, 장애인, 체육인, 국제전법단이 그것이다. 그중에 미비한 활동 중인 국제전법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했고, 1~2년의 계획을 세운 뒤 국제전법단의 첫 해외전법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회향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전법순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구체적인 미주지역 해외전법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LA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개인 사찰이 유기적인 연대 없이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실상에 사찰들이 불자들에게 어떤 포교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대의 미주사찰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미주 사찰들은 기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법단이 찾아가 불자들과 함께 참선(명상)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함께해 해외불자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부제를 절감했다. 전문포교사와 지도사의 인력도 턱 없이 부족했다. 스님들은 1인 10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교육과 포교의 질은 높을 수가 없었다.

하여 포교원의 내년 주 종책으로 삼아야 될 만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요령이다. 해외현지에 능력있는 불자들이 많다. 그들을 포교원 내 디지털 대학과 현지불교대학을 연결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의를 송출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전문 포교사와 지도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다. 불교대학 설립에 희망하는 시카고 불타사 같은 경우는 신도수와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설비도 잘 되어있다. LA와 뉴욕 불광사, 벤쿠버에서도 불교대학 설립에 대한 여건과 관심이 모자라지 않다. 이번 해외순례 이후 고무적으로 불교대학설립에 대한 신청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종단과 해외사찰 모두 깊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결과 국제전법단이 미국 동부, 서부, 캐나다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앞 서 말했듯이 지도법사 한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전법단 밑에 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현지에서 표교 인력으로 많은 영략을 갖추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전법지원단으로 심사해서 스님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묶어드리고 한국에 국제 전법단과 연결하는 실질적은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국내처럼 체계적인 방법으로 양성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사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의 영문 번역을 비롯한 영어 법회나 강설도 갖추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이번 해외전법순례를 통해 종단 내에서 미주지역을 포함한 해외 사찰과 불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이번 해외전법순례로 그동안 많은 소외감을 느꼈을 미주지역 불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종단 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포교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불자 세상보기

50만원 해임과 성완종 리스트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7월 1일 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이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5건으로 이전 6개월의 적발 건수 35건과 비교해 85%나 감소했다고 한다. 철저한 원칙을 세우니 공무원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많은 법령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법들이 문제가 되곤 했다. 현실과 동 떨어진 처벌 규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은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다시 돌아와 요즈음 정치권을 보자.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뒷수습으로 분주하다. 성환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가 정국을 강타한 것이 4월 9일인데 그 사이 4·20 재보선과 메르스 사건 등에 묻혀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런 시점에 검찰은 성환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82일 만인 지난 7월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2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환종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홍문종 2억 원, 유정복 3억 원, 이병기, 이완구' 라고 적혀 있었다. 이 중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뺀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2007년 말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게 남은 일은 성환종 전 대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이다. 2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근식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성환종 자살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이 느꼈던 사건의 비중과 거리가 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는 "친박 권력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대표의 비판도 그 자신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대표는 그가 청와대 핵심 참모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성환종 전 회장을 두 번이나 사면 복권했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은 성환종 로비가 여권 실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정치개혁의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저버린 채 양측이 서로 물타기 논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축소 수사'에 있으며 사건을 정치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겼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문법)이다.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5조 8천억 원(민자 1조 7천억 원) 예산의 아문법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준다는 대가로 빅딜을 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아문법만 통과시켰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은 관피아의 존재에, 성환종 사건에서는 부패기업과 정치인의 엄청난 커넥션에 경악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괴물이 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과 정치개혁의 책임은 결국 국정을 책임 맡은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 국정쇄신과 정치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원칙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社說

불교 힐링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

몇 년 전부터 힐링 바람이 불면서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 불교계의 각종 콘텐츠들이 일반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교계가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기능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어 화제다.

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가 불교계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불교문화사업단이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과 보호소년 및 가족들에게 템플스테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도박관리센터 등도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정신 및 감정노동자, 도박중독자,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법무부도 보호관찰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역시 사업단과 협약을 맺었다.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일선 사찰과 지자체의 협조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보은 법주사의 경우 7월 9일부터 충북교육청과 교직원들을 위한 '행복 연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성순화 교육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도 늘고 있다.

금년 만해도 경찰청, 세종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수신청도 함께 대폭 늘고 있다.

불교계가 이 같은 시대 요구에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통해 포교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 참가자들이 신행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불교콘텐츠들을 활용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는 여름 휴가 보내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는 분위기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자 도심과 인근 유원지에 다시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백화점 등의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메르스 공포' 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침체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메르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관광업계다. 12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객이 방한을 취소하고 각 지역 행사와 모임 등이 취소돼 관광버스가 멈춰서는 등 메르스 사태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불교계도 여름 휴가를 맞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산사로의 여행을 유도하고 있다. 여름의 푸른 산사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와 숲 명상, 생태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 한자 등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 심신수양프로그램, 놀이 및 성장 프로그램, 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휴식형 프로그램 등 다채롭다.

최근에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는 한 광고문구처럼 '조용한 휴가'를 선호하는 20~30대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 인파와 바가지 요금, 물가 부담 등이 싫어서라는 이유가 많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피로가 넘치는 사회 풍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머무르다' 라는 뜻의 '스테이(stay)' 와 휴가를 뜻하는 '베이케이션(vacation)' 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 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짙푸른 녹음과 맑은 새소리, 산속 바람결에 일렁이는 청아한 풍경소리. 고즈넉한 여름 산사는 여름철 폭염을 피해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번잡한 피서지나 해외 여행 대신 안전하고 마음 편안한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뼘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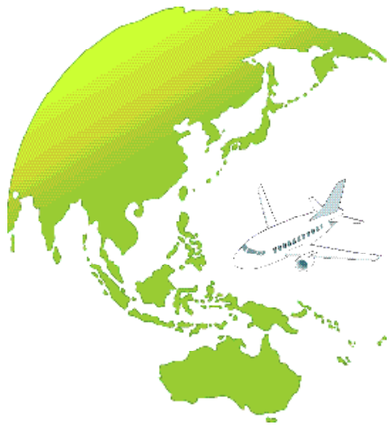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 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3~4,6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낭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져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쉐뿌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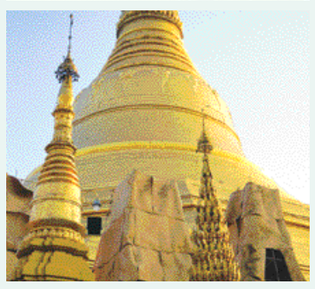
제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땡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HOTEL :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차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헤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신행
한국불교
신행 70년

재의식 법회부터 문화 · 순례까지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재의식 봉행 등 순수 불교적 신앙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행활동은 스님들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들의 자율적 영역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사찰 밖에서의 신행활동은 사찰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들 중에는 스님들이 지도하는 신행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불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다.



108산사 순례단이 2007년 관촉사를 참배하고 있다. 선묵 혜자 스님이 시작한 108산사 순례는 한국불교 '순례' 문화를 변화시켰으며, 도농 상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문화 · 군 포교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 시대 신행활동 매우 소극적
1960년대 이후 신행 본격 '기지개'
전통 · 신흥종단 분화… 신행에도 영향

초하루 · 보름 법회서 일요법회 도입
참선 · 염불 · 간경 등 수행 중심 활동
불교대학 설립… 교육화된 신도 양성
기도 · 기복에서 설법 · 실천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등 新 신행 트랜드 부상



안국선원 신도들의 수행 정진 모습. 안국선원은 수행 중심으로 신행 프로그램을 정착 시킨 대표적 도량이다.



불광사 새 법당 상량식. 불광사는 1974년 광덕 스님이 불광법회를 창립해 일요법회를 만들어 정착시켰고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도 열어놨다.

신행이란 무엇인가

신행(信行)은 '불교의 신념체계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제반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불자의 신념체계와 신행활동은 초기경전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아함경에서는 이를 사불괴정(四不壞淨)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불괴정이란 불법승 삼보와 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불자의 신행은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 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불교적 방법은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념(六念)이다. 육념은 불법승(佛法僧) 삼보와 계시천(戒施天) 등 여섯 가지를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내적인 신앙의 측면과 외적인 실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내적으로 확고한 신앙심을 갖추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리를 깨우치고, 화합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서원하며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념의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의 실천원리를 토대로 현대불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신행방법이 창안되었다. 염불은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정근과 같은 신행방법으로 다양한 염불신행단체를 만들어냈다. 염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축하여 핵심을 염하는 것으로 옴마니반메훔,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마하반야바라밀 등을 주로 신행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을 염하는 것은 좌선을 통한 선정의 체험, 정견의 성취를 통한 지혜의 완성 등으로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염승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등과 같이 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신행방법으로 다양화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불자들은 관음과 지장 등을 염하는 것은 염승이 아니라 염불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실재 활동했던 스님들을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모든 제불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화신불로 수용하고 염할 때는 염불이 된다. 반면에 개별 보살의 공덕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염승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불자들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화신불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대부분 염불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신행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사찰에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신행활동은 사찰 내에서의 활동영역과 대 사회적 실천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찰 내에서의 활동은 주로 기도 및 법회 참석, 천도재, 수륙재 등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그것마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불자들의 사찰 내 신행 활동조차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제반 환경적 요인으로 불자들은 독립운동을 선도하는 스님들을 몰래 돕는 것으로 사회적 실천을 대신하였다.

신행, 변화와 틀을 잡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래로 지속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주로 신앙적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각종 재의식과 법회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륙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대사회적 실천운동이 전혀

광복 이후 불교계는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단이 단일종단으로 출범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얼마 후 한국불교 태고종이 등록되고 이어서 천태종, 진각종 등 수 다수의 종단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종단분열은 전통 종단과 신흥 종단의 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불자의 신행활동 분화로 이어졌다. 태고종은 천도재, 영산재 등 재의식 중심의 신행활동 참여가 확대되었고, 천태종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염불신행을, 진각종, 총지종, 진언종 계열은 옴마니반메훔 중심의 염법신행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렇지만 조계종은 회통불교의 성격을 지니면서 참선, 기도, 법회, 염불, 주력, 간경 등과 같은 다양한 신행방법을 모두 흡수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종단을 떠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신행단체들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정토회는 실참 수행과 각종 구호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였다. 정토회는 초기에 재가불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일부 구성원이 출가하면서 출재가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광복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불교계는 종단의 분화와 더불어 사찰 공동체의 형성과 독자적인 재가불자 신행단체의 형성 등이 혼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왜색불교 척결이라는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각 종단들은 내부적으로 분화되면서 소속된 사찰들이 신행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전통적 신행활동인 기도법회 중심에서 설법 중심의 법회형식도 도입되었다.

기도법회는 초하루, 보름, 각종 재일에 정기적으로 봉행되는 신행활동이며,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다만 부처님 재세시에는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는 방식이었다면 대승불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부처님과 제불보살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전통적인 법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법회의 경향을 수용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요법회 혹은 주간의 야간법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식 중심의 기도법회와 설법 중심의 신행법회를 구분하는 사찰도 나타났다. 초하루와 같은 전통법회를 봉행하면서 동시에 일요법회 등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의 정기법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법회에 변화를 준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서울 불광사이다. 불광사는 1974년 불광법회를 창립하면서 일찍부터 일요법회를 봉행하였으며 신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범적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불광사는 수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중의 체계와 재가불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광법회가 법륜의 두 바퀴가 되어 도심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광사는 사찰 운영의 대부분을 신도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도들 스스로 바라밀회를 조직하고 사찰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새로운 사찰운영방법을 채택하였다. 불광법회는 바라밀운동을 신행활동의 근간으로 정하였으며 재가불자들은 바라밀 조직으로 지역과 직능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안국선원은 신행활동의 시스템 자체를 수행중심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찰이다. 안국선원은 1989년 "조계종의 종지 종풍에 의거하여 인류의 마음에 진리의 외침이 울리게 하고, 세계만방에 지혜의 눈을 밝히는 선의 범세계화로 만민평등의 세계일화를 우주법계에 꽃피우는데 일조한다"는 실천이념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매일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국선원은 순수한 수행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 신행활동의 한 축으로 등장한 것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는 전국의 100여개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자들에게는 새로운 신행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에 위치한 미황사는 매우 궁벽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참사람의 향기라는 7박8일의 집중 템플스테이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불교대학, 신도 교육 이끌다

사찰 중심의 신행활동에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불교대학의 운영이다. 불교계 최초의 불교대학은 서울 남산에 위치한 대원회에서 운영하였던 대원불교대학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대원불교대학은 1973년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원불교강원으로 출발하였으며, 1981년에 불교대학으로 명칭을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 A (50개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신행
한국불교
신행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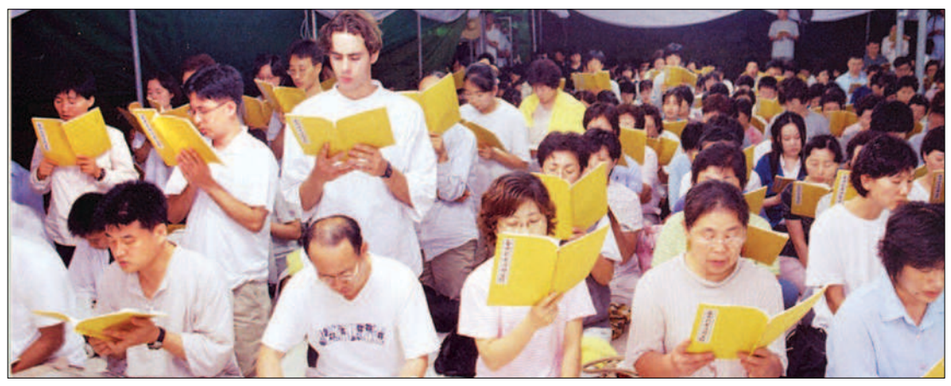
시대 맞춤형 신행 운동 전개



100여개 사찰에서 진행중인 템플스테이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신행문화로 자리잡았다.



대원불교대학 입학식. 대원불교대학은 최초의 불교대학이다. 이 같은 불교대학은 교육화된 신도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간경, 염불 등 다양한 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재가 신행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한국 불교 신행 역사의 큰 특징 중 하나다.

변경하였다. 그리고 미국 LA와 부산 등에서도 불교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다. 대원불교대학은 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신도교육의 붐을 일으키는데 성공사례로서 일조하였다.

교양대학 형태의 불교교육은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조직화, 그리고 봉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행활동의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초기의 신도교육은 사찰 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입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재교육의 체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교재를 개발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포교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주요 사찰에서 불교대학 운영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전국의 주요 교구 본사와 수말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신도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찰의 신도교육은 불자들을 더 이상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득하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불교대학은 사찰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산사는 1989년 전주 시내에 화엄불교대학을 개설하여 도심포교의 거점 도량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불교대학이 기존의 전통사찰 내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속초신흥사는 도심의 원각사포교당에 불교대학을 개설하였고, 월정사는 강릉과 원주, 동해 등에 불교대학을 개설하였다.

불교대학은 불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경전교육과 조직적인 신행활동의 모범을 만들고 있다. 사찰별로 배출된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기수별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 포교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교대학 졸업자들 중에서는 포교사고시에 응시하여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신도교육이 전문적인 포교활동으로 신행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례 · 독송으로 확대되는 신행

사찰 신행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단체는 선묵혜자스님이 이끌어 가는 '108산사순례단' 이다. 이 순례단은 2006년 통도사 순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을 방문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약 5천여 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순례단은 방문사찰이 위치한 농촌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장병에 대한 공양, 장학금 지급, 효행상 시상, 다문화가정 인연 맺기 등의 대사회적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0여 곳에서 '108산사순례회' 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순례에 나설 정도로 순례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사찰순례 혹은 성지순례로 이어지는 신행문화는 각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108사찰순례단의 활동은 기존의 단순한 성지순례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신행활동에 익숙해져 있는 불자들에게서 새롭고 역동적인 실천방법을 이끌어 내었다.

봉은사는 수천 명이 동참하여 신묘장구대다라니와 42수 진언을 독송하는 관음신행을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신행문화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시기에 조계사에서는 금강경 독송을 중심으로 하는 신행문화가 정착되었고 42개월의 진언수행을 마친 봉은사에서도 금강경 독송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지역별로 활동하는 신도조직의 활성화는 신행문화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현재 각 종단별로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그리고 사찰별 신도조직을 결성하고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중앙신도회가 포교원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 교구별 신도회가 24개 교구본사에 조직되고 있다. 중앙신도회 산하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행복바라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금활동은 이웃 종교에 비해 침체되어 있던 모금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재가자들의 독립된 신행단체

단위 사찰의 범주를 넘어서서 재가불자들이 독창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신행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재가불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신행단체들을 분석해보면 간경,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문사수 법회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간경을 신행활동의 하나로 정착시킨 단체는 1962년 출범한 '금강경독송회' 이다. 백성욱박사의 주도로 시작된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간경을 통해서 분별심을 제거하고 해탈과 열반을 체득하는 생활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이 단체 회원들의 신행방법은 매일 금강경을 7회 독송하고, 미륵존여래불을 1시간 동안 염하며 마음을 바치는 정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심자들의 경우 100일 단위로 정진하여 점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우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김재웅법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포항 금강정사에서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청우불교원을 중심으로 21개 법당 및 법회가 운영되고 있다.

간화선 중심의 참선단체로는 1965년 백봉 김기추 거사에 의해 시작된 보림회가 있다. 보림회는 "어지러운 세정(世情)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원리와 누리의 본체를 캐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거사풍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백봉거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 법신이 유상 색신을 굴린다."는 새말귀 화두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허공으로서의 '나' 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69년 충남 유성에 보림선원을 개원한 이후 보림회는 각 지역에 분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985년 백봉거사의 입적 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서울, 부산, 산청, 청원 등지에서 보림선원을 운영하며 재가불자 중심의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림회는 일찍부터 모든 의식을 한글화하고, 재가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화두의 현대적 해석으로 시대적 적실성을 높였다.

염불수행단체인 문사수법회는 1988년 김태영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법회 모임은 "문 · 사 · 수의 세 가지 지혜를 공부하여 스스로의 삶을 자각하고, 마침내 자신의 참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서 밝고 맑은 나날을 창조"하기 위한 신행방법을 제시하였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대중법회를 개설하고 수행도량 정진원을 개설하면서 독자적인 포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중앙전법원, 대전전법원, 담양의 정토사 등의 포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1992년 천안에 부지를 확보한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보급 전파하여 일체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하여 설립"된 수행단체에 속한다. 이 단체는 "모든 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청정한 수행 공간"을 지향하는데 '주말 위빠사나 수련회 및 집중수련회' 중심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호두마을은 200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매년 미얀마의 사야도를 초청하여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법기선원은 1994년 서울대학교 불교수행모임인 선우회가 법기 강정진 거사에게 가르침을 들으면서 출범하였다. 법기선원은 "황폐화된 현 수행불교 속에서 정법수호와 정법선양을 목적으로" 개원한 재가불자 수행센터이다. 현재 법기선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수행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법기사의 신행방법은 마음관찰법, 관법과 염법, 기초교리와 호흡법, 점검 등의 내용을 지도하며, 매월 1회 정기법회를 통해서 무기와 번뇌의 대처, 관(觀)과 염(念)의 동시 수행, 결인관, 호흡관, 설관 등의 관법, 염념상속법과 의심법의 염법(念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기존의 염불, 참선 및 위빠사나, 간경 중심의 신행단체와는 별개로 학술 중심의 신행단체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교학술연구 단체로는 한국불교연구원을 꼽을 수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이기영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가불교 중심의 불교학술 및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외 학술연구를 주도하면서 불교학술지 〈불교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거점 도시에 전국구도와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의료봉사 모임인 무량감로회를 통해 자비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 개발해야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각 사찰과 종단의 체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찰이나 종단에서 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신행활동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과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 중심의 신행활동과 단체 중심의 신행활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참선, 간경, 기도, 법회, 의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이 토대가 되지만 기존의 전통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에 안주하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불자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면 불교계의 위축과 퇴조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찰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행활동 참여와 더불어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활동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신행활동 분야는 문화운동과 상담 및 명상 분야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 방법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명상을 기반한 서양의 MBTI의 보급과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불교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육근을 청정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문화운동이 삶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한국불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고통을 치유해줄 수 있는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행활동 주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향후 불교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불교문화원을 건립하고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신행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심산 스님은 …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대성사 주지를 역임하고 공군법사, 공창종합사회복지관장, (사)동련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1994년 ~200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홍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현재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재)불심홍법원 이사, 국제불광회 한국 부산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골 NOC 훈장, 조계종 포교원 제10회 포교대상 원력상, 2014년 조계종 포교원 제26회 포교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몽골의료봉사 지원 및 몽골 헌옷 보내기 지원사업, 다문화 페스티벌, 청소년 몽골 봉사 활동, 인도영화제 개최, 인도 KITT 대학 상호교류협력 체결 등을 통해 해외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포교를 위해 좋은 조건이 갖춰야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신도가 한두 명 뿐이었던 불지사를 맡았을 때도, 비닐법당으로 홍법사 법회를 시작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찾아 열심히 했을 뿐이죠.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0년만 노력한다면 포교의 성과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의 새 방향을 제시해온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포교의 핵심은 현재의 조건을 잘 살피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도심 포교로 개사 10여년 만에 대형 사찰의 면모를 갖추며 힐링의 명소로 자리잡은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포교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비닐 법당 법회에서 대규모 불사까지

홍법사 입구에 조성된 아미타대불은 홍법사를 상징하는 웅장한 불상이다. 대광명전을 좌대로 삼아 모셔진 아미타대불은 높이가 21m인데, 건축물인 대웅보전까지 합치면 45m 크기의 좌불로 국내 최대 불상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존자가 보내준 부처님 진신사리까지 봉안되어 있어 홍법사를 찾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홍법사에는 주말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쉼을 찾아온 어르신들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불자 비불자 상관없이 이곳을 들리는 이라면 웅장하고도 정갈하게 불사를 이룬 사찰을 보고 환희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도사 부산 포교당 불지사에서 도심 포교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스님이 홍법사 불사를 시작한 시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지사에서 도심 포교와 복지 활동에 큰 두각을 보이던 스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 홍법사 창건주 故 하도명화 보살이 평생 서원이었던 절을 짓고자 하는데 심산 스님을 주지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보살님께서는 절을 짓고자 원력을 세우시고 20여년 동안 인연을 찾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보살님을 뵙곤 했는데 자신의 신창 농원에 절을 짓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홍법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곳은 2층으로 마련된 낡고 초라한 요사채와 농장을 가득 채운 나무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부산 시골 변두리에 위치해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스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행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6개월간 은거 생활을 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던 스님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 30평 남짓의 농장관리 사옥을 개조해 첫 법회를 연 것이다. 열 명 가량으로 시작했던 법회에는 천천히 신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린이법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취미활동에서 신행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신도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에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렇게 일 년 사이 수많은 불자들이 몰려들고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자유롭게 불사를 할 수 없었다. 농장 관리사옥을 조금씩 허물어 공간을 만들고 비닐을 엮어 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바람을 막으니 비닐하우스나 다름없는 법당이었다.

“물론 상황이 열악했죠. 하지만 어렵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2년 종단에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사찰을 지정할 때도 전국에 5개 사찰 중에 저희 사찰이 선정됐습니다. 단청도 기와도 없는 곳에서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냐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해냈습니다”

홍법사 템플스테이는 영어 프로그램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등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고교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에 매진
종범 스님 일체유심조 강의 들으며
마음의 원리 관심갖고 출가 결심

통도사 포교원 불지사 주지 시절
다라니 기도로 대중들의 불심 일깨워
3년만에 1400여 회원 동참 눈길
공양미 모아 무료 급식으로 회향

부산 외곽지역 홍법사 불사 시작
문화와 신행 아우르는 적극적 포교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신행활동 이끌어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2007년 그린벨트 지정이 풀리자 곧장 불사를 진행했다. 2008년 6월에 기공식을 시작해 1년 만에 대웅보전을 완공했다. 일사천리로 불사가 진행됐다. 스님은 이 과정을 통해 불사는 부처님의 가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신기하게도 비가 안 왔어요. 홍법사 옆에 다리 건너에는 비가 와도 경내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날 하루는 건설 담당자가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그 위를 한 번 물로 씻어 주면 좋은데 하는 겁니다. 하지만 500평이나 되는 곳을 무슨 수로 씻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억수 같이 퍼부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준비하던 그때부터 시작해 새벽 6시까지 내리니 공사 현장이 깨끗이 씻겨지더군요. 그러니 부처님 가피로 홍법사가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불사를 이룬 홍법사는 현재 등록 신도 숫자만 해도 7천 명이 넘을 정도이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2만 명의 불자들이 다녀간다. 또한 초하루 법회와 어린이법회 등 각 법회에는 불자들이 몰려들면서 법당을 가득 채우는 활기 넘치는 사찰이 된 것이다.

출가의 원을 세우다

심산 스님은 고등학교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울산고에 입학했을 때 불교학생회 선배들이 학생회 설명차 교실을 찾아왔는데 자석에 이끌리듯 선배들을 따라 학생회를 찾았어요. 정기법회로 해남사를 처음 찾았을 때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향나무, 단청 그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법회를 다녔죠.”

그리고 그해 5월 통도사에 법문하러 온 종범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 스님은 ‘일체유심조’를 주제로 자유자재한 마음에 대해 법문을 하셨어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단박에 정리해주는 법문에 큰 충격을 받았죠. 어린 시절 겪었던 긴장감과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귀신을 만난 상상을 하며 느꼈던 두려움도 떠올랐죠. 내 마음에서 만드는 두려움과 긴장감,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 후로는 일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불교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 학교 공부도 의미가 없어져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내내 불교 학생회 활동에 매진하던 스님은 2학년 때는 영남불교연합회 학생회장을 맡게 된다. 그때부터 스님은 포교에 남다른 역량을 보여주었다. 당시 200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이 340여명까지 늘게 된 것이다. “당시 임원단들은 신행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철야정진과 법회, 야외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니 회원수가 1.5배 늘었어요. 해인사에 야외법회를 갈 때는 참가자 수가 200명 가까이 모일 정도 반응이 좋았어요. 당시는 회장직을 한 학기만 할 수 있었으니 이 모두가 6개월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죠.”

또한 이 시기에 스님은 출가를 결심한다. “2학년 때 여름 학생연합수련회가 경주 중생사에서 열렸어요. 500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죠. 마지막 날 수계식에서 당시 중생사 주지였던 불심 도문 스님이 출가 할 사람이 있냐며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번쩍 손을 들었는데 참가자 중에 손을 든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자 도문 스님께서는 동국대에 입학하고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학년 내내 손을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동국대 선학과에 합격하고 스님을 찾아뵙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문화로 경계없는 불법 홍포 발원

이렇게 출가한 스님은 1994년 통도사 부산 포교당 불지사 주지를 맡게 된다. 당시 스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포교 실력(?)을 발휘했다.

“당시 불지사는 숟가락, 젓가락조차도 사러 다녀

마하연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 여행 문의 상품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인도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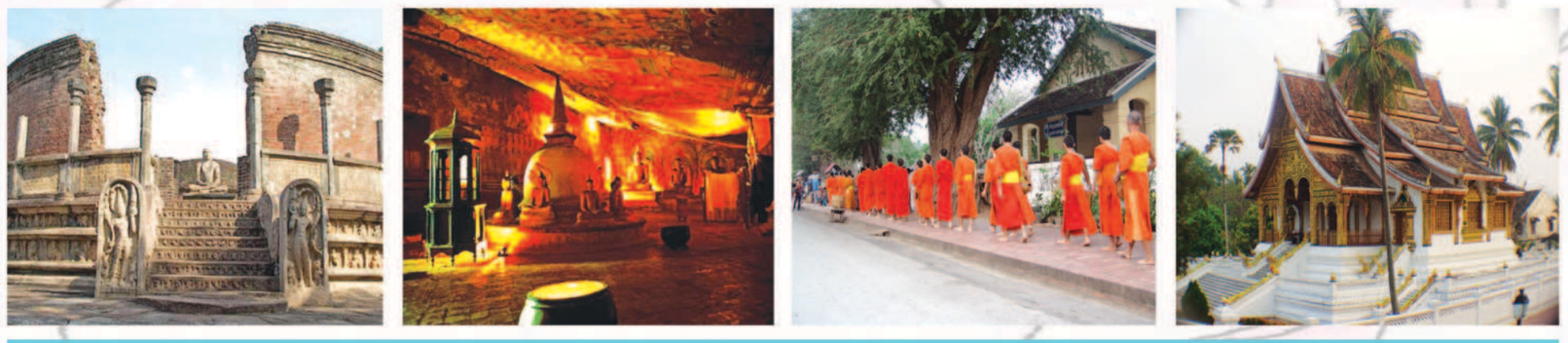
인도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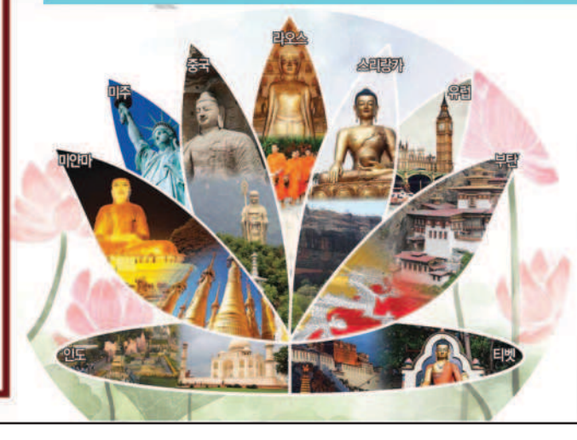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인도양의 찬란한 빛 스리랑카
구름도 머물다 가는 곳 라오스



1.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
4.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6. 8인이상 출발 가능



● 스리랑카 완전 일주 8일 출발일: 매주 일,월,수,금 출발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 6일 요금문의 출발일: 매주 수요일 출발
● 라오스 6일 출발일: 매주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출발일: 매주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 여행사 만의 알찬 일정 》

포교의 첫 걸음이죠”



아미타대불 앞에서 신도들과 함께. 45m의 규모의 홍법사 아미타대불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웅보전 건립 기공식에서 심산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자승 삭발식을 진행하는 심산 스님의 모습.



심산 스님은 동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야 할 만큼 살림이 가난했고, 신도는 1~2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신도가 찾아와 부적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난감했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쳐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불교를 기복으로 믿는 신도들을 부처님께 안내할 길을 모색했다. 불안에 떨며 부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은사 스님이 일러준 다라니기도를 생각해냈다.

“신도들과 함께 다라니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월 1일~3일은 어김없이 다라니기도를 이어 갔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정기 다리니 기도였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고 기도비는 공양미 이외에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3년여 만에 신도가 14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쯤 되자 매월 다라니 기도가 있는 날 불지사 앞에는 새벽 기도를 마친 불자들을 위해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기도하는 회원이 늘어나자 공양미만 매달 50가마니가 넘어섰다. “당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신도들이 보시 올린 쌀은 복지관에 보내고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해 100가마니 정도 모았죠. 그때 IMF가 터졌어요.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공양미를 회향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스님은 무료급식을 위한 밥차를 마련, 매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급식을 진행했다. 이는 스님이 주지를 놓고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불지사는 현재 부산 초읍 부산자유회관에서 500여명에 이르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다라니 기도는 새로운 불사를 위해 홍법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어졌다. 현재 홍법사는 정기적으로 매월 1일~3일 다라니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특별한 노하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님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또한 스님은 작은 인연도 허투루 보는 법이 없다. “홍법사 경내에는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가가서 아기 손도 잡아 보고 이름도 묻고 하면서 언제 동자승 할거냐고 물어 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를 동자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다음의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고 신도 한 분 한 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스님의 철저한 문제 해결 방식 또한 포교활동의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를 통한 문제점 확인과 대책 마련 그리고 철두철미한 실행을 통해 스님은 사안을 해결해낸다.

“영남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았던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과 성찰입니다. 어떤 행사든 끝나고 나면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다음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적용해 나가죠.”

홍법사는 현재, 영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외국인 불자와 비불자 등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광받고 있다. 불자뿐 아니라 비불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니 스님은 불교가 아닌 것으로 불교를 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포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힐링, 복지,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갈 곳을 찾아다닙니다. 불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사찰이란 취미에서 신행까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문화 복지타운입니다. 비불자들은 처음부터 불교색을 강하게 드러내면 대부분은 반감을 가지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불교로 물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포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포교의 방향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 템플스테이, 동자승, 영유아 수기 등 불교를 통한 전통 포교를 우선으로 하는 포교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뛰어 넘는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세상의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만물을 모두를 포용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홍법사, 그 중심에는 심산 스님이 있었다. 모두가 화합하는 불국정토의 아름다움이 홍법사를 통해 이뤄지길 발원한다.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아이스크림과 교화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세 개씩만 먹는 거다! 알았지?”

“네!”

아이들은 무엇인가 가르치면 대답을 굴뚝같이 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세 개만 먹기로 했다고 정말 세 개만 먹을까? 아니다! 꼭 더 먹는 아이들이 있다. 더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다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당당하게 하나 더 먹고 싶다고 말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훔쳐 먹는 사람처럼 저 구석에서 몰래 먹는다. 그러다 스님이 지나가는 소리라도 들리면 깜짝 놀라서 흘리고 체하고… 꼴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천진하다. 그래서 그냥 교육 없이 가만히 두면 아이들이 저절로 착하게 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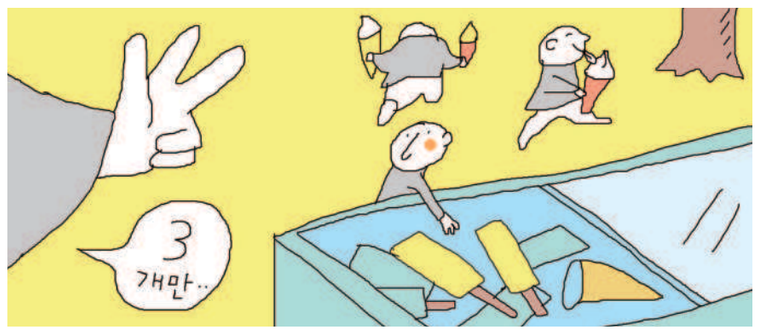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천진하다는 것은 물들기 쉽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를 둘러보라. 착하다 착한 세상인가? 아니면 번뇌로 물든 세상인가?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너무나도 쉽게 온몸과 마음에 악습을 덕지덕지 붙여버린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골수를 빼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을 크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부모로선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아웃소싱이 시작되는데 스승의 필요성은 바로 이때 시작된다.

제자의 악습과 선습의 밀당을 주도해 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기 때문이다.

교화라는 말은 교도 전화의 줄임말이다. 가르쳐서 이끌어주면 뒤집어진 견해와 습관이 180도 돌아 변화된다는 뜻이다. 스승은 제자를 교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전법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의 악습을 가르쳐 선습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이는 분명히 약속했다. 아이스크림을 세 개만 먹겠다고! 하지만 세 개를 넘게 먹었다. 그것도 훔쳐먹는 사람처럼 비굴하게.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아니면 버릇을 고쳐줘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딜레마가 공존한다. 그대로 두면 악습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어렵고 어려운 절집에서조차 이렇게 거짓말, 도둑질을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악습 행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잘못을 알려주고 혼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쓰디쓴 말이 마음에 거슬리고 두려워져 우리의 눈 앞에서 도망가 버릴 것이다. 선택은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

스승과 제자 간에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의 색깔이 표현되겠지만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어야 한다. 첫째는 스승에 대한 경외심이고, 둘째는 스승에 대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끊임없는 밀당을 해내고 균형을 이룰 때 교육 효과는 급상승된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만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치우치면 즉각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려움에 짓눌려 억지로라도 자신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깨지기 쉽기에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치우치면 도망가지 않고 스승 옆에서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기에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두려움이 적기에 스승이 더 이상 스승 아닌 친구가 되어 버린다. 그럼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의 악습을 선습으로 이끌어줄 수 없게 된다.

아이스크림 먹는 약속을 안 지킨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은 밀당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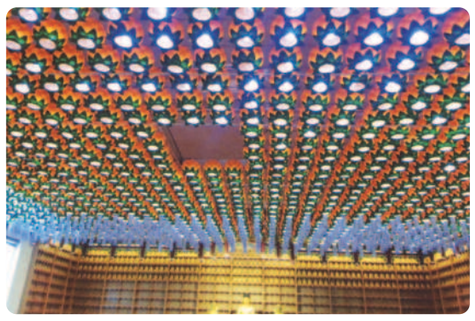
나는 오늘도 그 아이가 냉장고 문 여는 소리에 집중하며 가장 거룩한 밀당을 하고 있다.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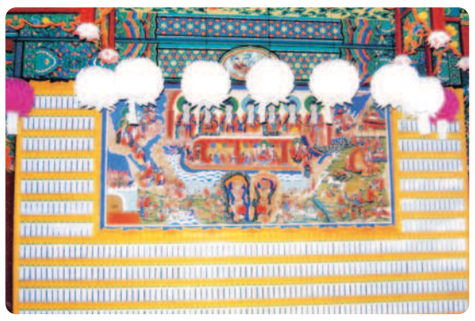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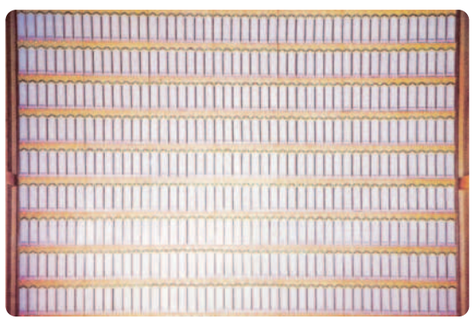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지금 그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놓고 가는 것!

(지난 호에 이어서)

저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올바로 하는 건지, '대행'이라는 이 자체가 이름이면서도 대행을 온전히, 올바로 길을 인도하고 지금 가고 있느냐는 것을 나는 항상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바로 너는 대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어떤 때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너는 밝은 보배와 같다고도 하고, 너는 벌레와 같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죠. 저는 어떠한 나무의 뿌리에 매달려 있는 가지 이런 걸로 한번 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어떤 때는 빙긋이 웃으면서 가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이나 그런 분들이 풀숲을 지날 때는 짚신에다가 방울을 달고서 뇌성벽력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냥 드문드문 팔자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건 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죠. 걸음을 드문드문 걸었던 까닭은 바로 이 마음을 항상 무겁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항상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을 무겁게 두고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내보면 아시겠지만 풍청풍청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펄떡펄떡 뛰면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일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또는 길을 걸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내가 자재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문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2세, 3세의 나의 길을 인도하는, 또 뿌리에 물을 주는 그러한 행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하고, 어떠한 데 무슨 고난이 있을 때도 한번 굴려서 대답을 해 주고, 한번 굴려서 말을 하고 이러면은 모든 불안이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경솔하지 않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 아무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거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꼭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나처럼 있는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후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걸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서 서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건 함이 없는 것이니까 거기도 끄달리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한 분 한 분 여기 나오셔서 질문하신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한테 양식이 되고 가는 길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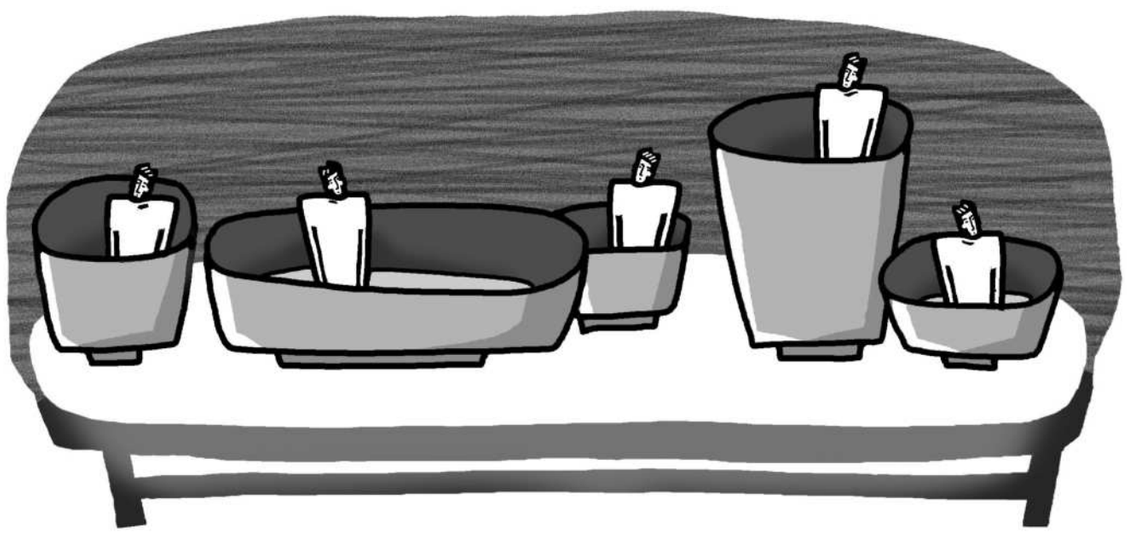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여)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절에 다니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행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지장보살만 찾으면 어떻게 그리 마음에서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스님께서는 다 몰락 놔라 하시지만 지장보살만 찾으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지장보살이 될 수 없는가? 아냐, 내가 무슨 그런 지장보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큰스님 예. 지금 보살님이 지장보살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장보살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름이라도, 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부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입니다, 그건 모두가.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지장보살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이요, 모든 게 이름입니다. 그러니 보살님이 지장보살이라고 만약에 위대하게 생각해서 위에다 놓고 바깥으로 찾는다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머리가 잘못된다든지 크게 잘못되는 수도 있죠. 지장보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무명에 묻혀 있는 보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장보살은 내 무명에 묻혀 있는 바로 그 보배의 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깐 바깥으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일체 부처님, 일체의 모든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지장보살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계합이 돼서 돌아가니까, 모든 게 종합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면의 나의 주인공'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포기 하나,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지수화풍이라는 집 속에 그 주인들이 아주 한마음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 인해서 의식 자체가 돌아가고 악업 선업이 거기 한데 뭉쳐서 회전을 하고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보살님은 그것을 지장보살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의 주인공 안에 같이 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곧 불성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는 절대 끄달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당신도 언짢고 당신 가정도 못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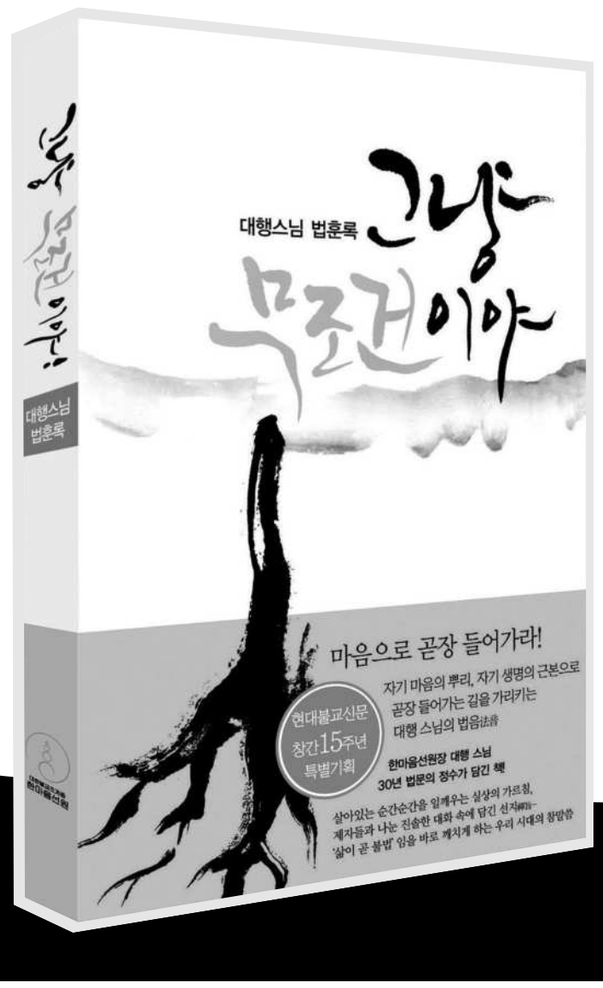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 질문을 받아 보니깐 너무도 신랄하게 잘들 하시더군요, 뭐 거침없이. 날더러 하는 소리가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허허,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겁니다. 참, 옆에서는 질문도 질문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이 컵의 물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덥다 하고선 들어가면 냉장고 문 열고 찬물을 따라서 먼저 마시고 난 뒤에 '이거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이런 생각은 이차적으로 하지, 목말라서 죽겠는데, 더워서 죽겠는데 물부터 마시지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건 목마르면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겁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그거거든. 내가 목마르면 그냥 먹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화날 때는 이러죠. "에이, 그냥 사는 거고, 살고 보는 거야, 그냥…." 이런 말을 하죠? 그렇듯이 그것이 아무 말이라도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떠한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의정 나는 게 있다면 질문하시고 또 한번 질문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시면서도 한번 질문해 보실 수도 있고, 몰라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책을 읽어도 여러분은 그 백지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줘요, 백지를. 그 종이는 생각 안 하고 글자만 들여다보고 따지죠. 허!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가 오래됐는데 같이 열심히 다니던 한 도반이 선교 쪽으로 갔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따금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리로 오게 되면 많은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 자꾸 이리 가자고 해서 많이, 좋은 의미에서 다투는 겁니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잘 때마다 사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대자대비하시고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생불이신 우리 큰스님께 한마음으로 발원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 보은하는 마음,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함으로써 참나,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참주인공을 내가 체득할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아이고! 아이고! 하는 놈은 누구냐? 요놈!

☞ 29면에서 계속

래서 저희 가정은 물론 저희가 접촉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고 하루 생활도 하고 일일 삼송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제 한마음, 부처님이 늘 지적하여 주시는 참주인공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2(남)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마등처럼 어렸을 때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쁘게 한 생각 좋게 한 생각…. 제 깐에는 좋은 생각, 좋은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일일 삼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된다, 이런 얘길 그 친구한테 했더니 그 자체를 꾸중을 해요. "너는 왜 큰스님이나 부처님한테 대고 절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상이니냐? 자네는 남 보고 그걸 우상이라더니…." 이 살아 있는, 대행 큰스님은 살아 계신데 왜 우상이냐? 살아 계신 스님을 상대해서 절을 하는 건데, 물론 보이지는 않고 우리 집에서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지마는, 그래도 산 부처님이시다. 우상이 아니다. 이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게 잘못이야. 자네 그거 우상이니까, 한번 큰스님을 만나 뵙거든 불문곡직하고, 여태까지 불교에 입문해서 귀동냥 눈동냥 입동냥 많이 했다. 아는 건 알만큼 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 엎드려 절을 하고서 한번 여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큰스님 예, 예.

질문자2(남)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이렇게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는 가깝게 앉아서 큰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주문을 받고 와서 망설였습니다. 왜 질문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도 있듯이 물으면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묻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의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와 마침 또 그렇게 해서 싸웠고 "큰스님한테 한번 불문곡직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자네에게 진짜로다가 뭘 가르쳐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예, 오늘 참 이 질문을 하기로 한 것이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다음서부터는 문답으로 항상 이렇게 진행합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 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나한테도 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절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부처님한테 절하죠? (부처님을 가리키신 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절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배(一拜)를 올릴 때, 삼정례(三頂禮)가 일배로 될 때 그 일배는 만배도 되고 천배도 되고 또 일배도 될 수 있고 칠정례(七頂禮)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 이게 각자 마음에 정해진 문제죠. 그러면은 나한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면 벌써 둘이 되죠? 내 주인공을, 참나 주인공을 믿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오는 것도 거기 맡겨 놓고,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 맡겨 놓으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좋은 대로 지금 길을 걸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차원이, 이 지금 요 그릇은 (법상 위의 물 컵을 들어 보이시며) 요 컵의 물밖에는 못 담습니다. 큰 드럼통은 드럼통의 물밖에는 못 담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만큼의 물이 들어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은 없으나 모두가 그릇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상점에 가니까 컵은 컵대로 놓여 있고, 사발은 사발대로 놓여 있고 접시는 접시대로 놓여 있던 걸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돼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면 아니 되고, 싱긋이 웃으면서 '야, 내 주인공, 내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 저 친구도 내 주인공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 주인공이 저 주인공이고, 저 주인공이 내 주인공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다 통하겠지.' 이렇게 그냥 놓으세요, 편안하게. 어디다가 대고 절을 하거나 이러지도 마시고, 집에 부처님을 모셔 놓고 또 하시지도 마시고, 물을 떠 놓고 빌지도 마시고, 향 · 초를 켜 놓고 빌지도 마시고. 그렇게 귀신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그 귀신 짓 하는 습이 있으면 그 의식이 이다음에 죽어서도 귀신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해가 가게 하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싹 놔 버리시면서 자기와 자기를 둘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써 거기 맡겨 놓는 그 행을 항상 하세요. 그러면 슬며시 그냥 돌아와요. "아무개, 자네 나하고 한 번 안 가 보려나?" "나도 한번 가 보고 싶네." 아, 이렇게 스스로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조직이 자유스러운 조직이지 강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돈이 하는 소리가 "아, 네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닌 게 아니니까 너를 쫓아갈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허허허. 그렇듯이 이건 강요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기 운전수를 믿고, 운전수가 바로 마음이라면 마음이 있기 이전 바로 그 기름,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쳐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기름을, 항상 서로 주면서 자기 속에서 내면의 자기 주인공만을 믿고 거기 놓으십시오.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공부 길이 탁 트일 겁니다, 아마.

>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 놓고, 둘째 아주 믿는 거!**
>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첫째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합니다.**

아, 이런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가?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만날 곤궁하게 사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참 토론을 하고 질문하면서, 좀 좋아요?

질문자3(남) 저는 스님이 쓰신 설법 책 『무(無)』라는 책과 『영원의 오늘』을 읽고,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책을 통해서 스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스님께서 그걸 전부 놓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부터 계속 놓아 갔습니다. 놓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놔야 될 거는 어떤 개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나 자신을 놔야 된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놓으려니까, 자꾸 놓는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들고 있는 이런….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스님께서 쓰신 책을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오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으면은 스님께 일부러 여쭙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인공을 터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스님을 처음 뵈니까 뭔가 질문을 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왜 안되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믿음이라든지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걸 강하게 하는 그런 길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님! 다 놔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은 "놓으면 놓을수록 쥐고 있게 된다." 이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그 말씀을 내놓으라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들고 있고 놓고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북하면 '그분이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안 그랬다면, 둘로 봤다면, 일곱 발자국을 떼지 않았다면 이런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을…. 내가 있었더라면 죽여서 개나 줘 버렸을 것을….' 하는 그런 말도 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찰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방 자식을 만나고 돌아섰어도 가 버린 겁니다. 놔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 놔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 말이지, 이론입니다. 그냥 놓고 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만났습니다. 또 스쳐 갔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습니다. 또 스쳐 갔습니다. 그럼 그거 하신 거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있을 것도 없고 안 붙들고 있을 것도 없고,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파도 아니 되고, 아니 파도 아니 되느니라. 너는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면 거기에 톡톡한 무엇인가 있을 터인데, 그 도리가 무엇인고?' 이랬을 때, 또 '들어가도 삼십 방망이 나가도 삼십 방망이, 거기에는 들어와도 삼십 방망이를 때리고 나가도 삼십 방망이를 때리는 그 톡톡한 무엇인가 있을 텐데.'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했죠. "부처님이 어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러서 척 내려가시더니 하는 소리가 멱살을 탁 잡고 "요놈아!" 그러면서 주장자로 어떻게나 갈겨 댔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요놈, 아이고! 아이고! 하는 놈은 누구냐? 요놈!" 아, 이러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 놓고, 둘째 아주 믿는 거!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첫째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합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해, 글쎄? 아니, 남의 이름은 믿으라면 잘 믿으면서 왜 자기는 못 믿어?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더 있나? 누가 대신 죽어 주나, 대신 아파 주나, 응? 대신 누가 자 주나, 먹어 주나, 똥 싸 주나? 아, 이거 큰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믿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건 없거든. 그러니 믿고 그저 놔요. 거기서밖엔 끌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어떠한 괴로운 게 닥치겠죠. '아이, 이것도 거기서밖엔 해결 못하겠지.' 탁 놔! 그저 놓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일을 지켜봐라 이거야.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면 거기서 체험도 얻을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는 거지, 그 어떡합니까? 그거. 둘로 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도'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을 안 믿어서, 아주 나만 생각하고 부처님은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자서부터 그게 누적이 돼 내려왔고, 습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벌써 불렀다 하면, '지장보살!'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올려놓고 부르고, '관세음보살!' 하면 이렇게 벌써 둘로 놓고 보고 아, 이러니 그놈의 걸 누가 그 노릇을 합니까? 그저 얼른 길을 같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부처님!" 하면은 그냥 둘이 돼. 그러니까 "네 주인공을 믿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주인공 속에는 역대 일체의 부처님이 다 들어 계시고 중생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진짜 믿고 놓으십시오. 네. 그냥 놓고 가는 거니까요, 이왕지사. 하하하.

(법문을 마치시길 권하는 스님에게)

큰스님 가만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뭘 그래. 뭐 새털 같은 날에 뭐…. (대중 웃음)

※위 법문은 89년 7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